

# H ART LAB 2

Artist-Critic  
Creative Studio

H ART LAB

# Artist - Critic

# Creative Studio

H ART LAB 소개	About H ART LAB	5
인사말	Greetings	6
<b>H ART LAB 창작자 : 작가</b>	<b>H ART LAB CREATOR : ARTIST</b>	<b>8</b>
박관우	Kwanwoo Park	10
신선주	Sunjoo Shin	30
신창용	Changyong Shin	48
이연숙	Yeonsook Lee	66
조영주	Youngjoo Cho	86
<b>H ART LAB 창작자 : 이론가</b>	<b>H ART LAB CREATOR : ART CRITIC</b>	<b>108</b>
고윤정	Yoonjeong Koh	110
이경미	Mia Kyoungmi Lee	120
<b>H ART LAB 전시</b>	<b>H ART LAB EXHIBITION</b>	<b>134</b>
<b>H ART LAB 프로그램</b>	<b>H ART LAB PROGRAM</b>	<b>162</b>

# About H ART LAB

호반그룹의 호반문화재단 H ART LAB은 국내 예술가와 이론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작스튜디오입니다.

시각예술 작가와 이론가의 창작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H ART LAB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 및 연구 프로젝트지원, 작가와 이론가 매칭 프로그램, 강연 등을 통해 예술가와 이론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예술, 창작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창작자들이 가진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가 양질의 결과물로 이어져 동시대 예술 안에서 예술의 가치와 담론을 형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H ART LAB을 거쳐 간 작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꾸준히 입주자들의 후속 활동을 지지하고자 하며, 이는 H ART LAB 입주자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호반문화재단이 지향하는 시각예술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자 합니다.

Hoban Group's Hoban Cultural Foundation H ART LAB is a creative studio that helps domestic artists and theorists lay the foundation for their work in a stable environment.

To support the creative and research activities of visual arts writers and theorists, H ART LAB operates various programs. Through exhibition and research project support, artist and theorist matching programs, and lectures, we would like to establish ourselves as a venue for art and creation where artists and theorists can share and exchange opinions with each other. It supports the creative ideas and research of creators to lead to high-quality results and to help shape the value and discourse of art within contemporary art.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support the follow-up activities of residents through continuous exchanges with artists who have passed through H ART LAB, which strengthens the capabilities and networks of H ART LAB residents, and further functions as a visual art platform for the Hoban Cultural Foundation.

# 인사말

**우현희**

호반문화재단 이사장

호반문화재단은 대중과 함께 문화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실현시켜 사회에 이바지 하고자 문화예술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반문화재단의 운영 미션은 대중과 문화예술, 지역사회와 글로벌을 연결하고 나아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할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HART LAB은 시각 예술가와 이론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호반파크 내에 창작공간을 조성한 창작스튜디오입니다.

HART LAB의 2기 입주자는 5명의 시각예술 작가와 2명의 이론가가 선발되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입주자들은 창작 활동과 더불어 HART LAB 내에서 전시, 프로젝트 발표, 교류프로그램 참여 및 오픈스튜디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결과물을 발표하여 HART LAB을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창작자의 깊은 연구 끝에 양질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듯이 창작자의 연구 과정을 지원하는 본 사업은 결과 중심에서 벗어나 과정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으로 입주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분들의 뜨거운 열정을 이어나가 균형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호반문화재단도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창의적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의미 있는 발자취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술로 소통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Greetings

**Hyunhee Woo**

Chairman of the Hoban Cultural Foundation

The Hoban Cultural Foundation operates cultural and artistic projects to contribute to society by realizing various values through culture with the public. The Hoban Cultural Foundation's mission is to establish a complex culture and arts platform that can connect the audience, culture and arts, local communities, and global, and represent Korean contemporary art. HART LAB is a creative studio located in the Hoban Park so that artists and critics can work in a stable environment.

The HART LAB the second artists and critics were composed of five artists and two critics. For more than a year from March 2022, artists and critics present their results through various programs, including exhibitions, project presentations, exchange programs, and open studios. Just as high quality results can be produced after a deep research by creators, this project, which supports the creator's research process, is supporting residents' works with a paradigm that values the process away from the focus of results.

The Hoban Cultural Foundation will also be accompanied by the artist so that artists can continue their passion and build a balanced cultural and artistic ecosystem. Furthermore, we think it will be a meaningful step if we can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a creative community through this. We will work hard to communicate with art and create sustainable value.

# H ART LAB

Creator:

Artist

박관우

Kwanwoo Park

신선주

Sunjoo Shin

신창용

Changyong S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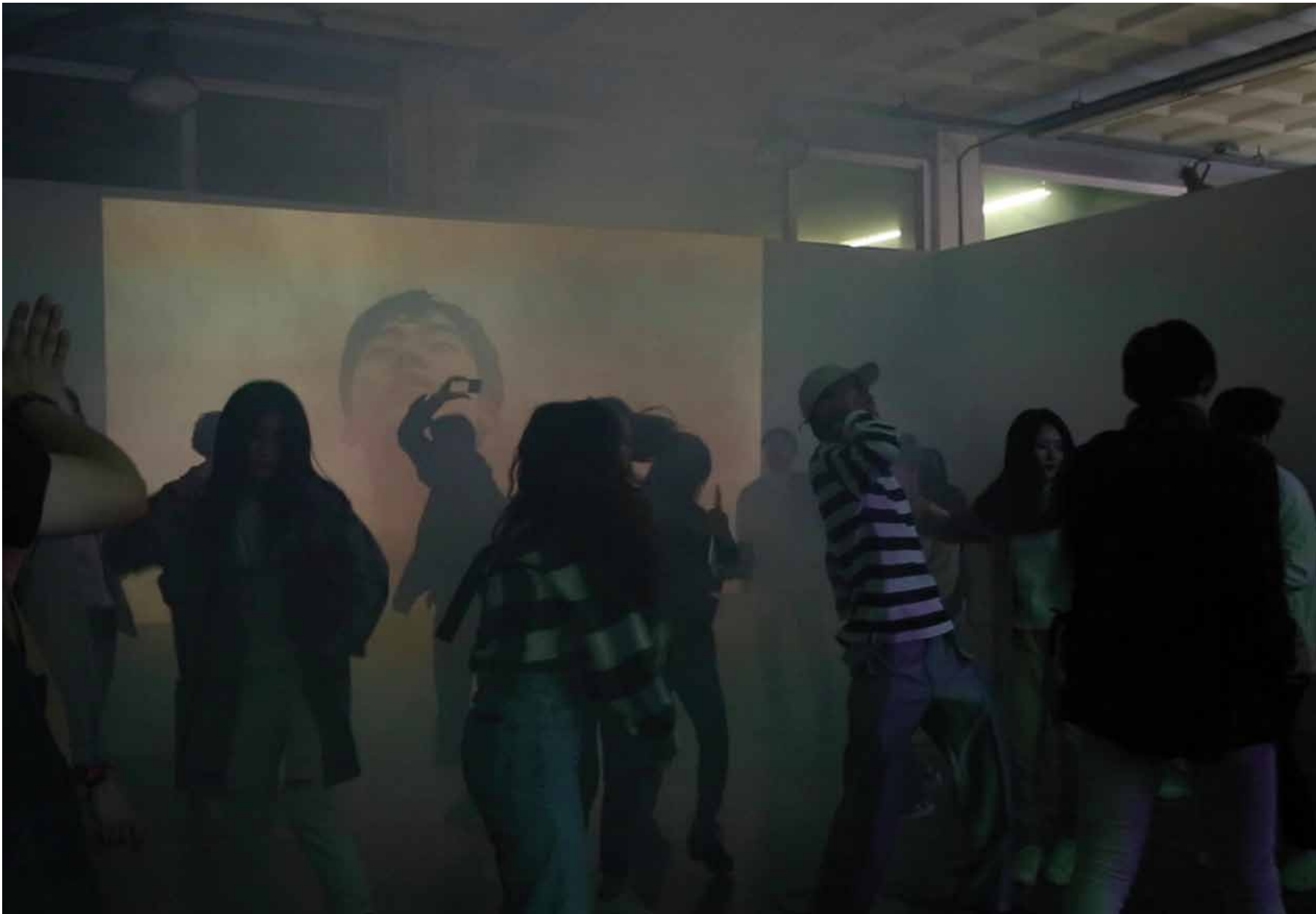
이연숙

Yeonsook Lee

조영주

Youngjoo Cho

박관우  
Kwanwoo Park



안드로이드는 춤추고 싶은 기분을 느끼는가  
Do Androids Feel like Dancing  
2019

# 세계를 현상하기 그러나 답을 유예하기

## 배혜정

미술 평론가, 예술학 박사

### 기술적 특이점 이후

2019년에 박관우는 일종의 게릴라 전시를 통해 <Human-Being-Human>(2019)을, 제로원 프로젝트를 통해 <안드로이드는 춤추고 싶은 기분을 느끼는가?>(2019)와 <래빗홀 2052>(2022)를 세상에 내 놓았다.

이 세 작품은 기술의 특이점<sup>1)</sup> 이후의 인류에 관한 상상과 관련된다. "생물학적으로 존재한다는 경험은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작가노트의 문구로 알 수 있듯 호모 사피엔스 이후,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존재를 가정한 것이다. <Human-Being-Human>은 압구정의 한 지하 갤러리에서 100년 후라는 기술 특이점 이후 시대를 상상하고 2119년의 시점에 2019년을 회고하는 레트로 파티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전개시키는 또 다른 작품이 <안드로이드는 춤추고 싶은 기분을 느끼는가?>이다. 현대차그룹에서 운영하는 제로원 프로그램의 결과물인 이 작품은 공학도 이찬과의 협업으로 제작되었다. 이 작품의 전시장을 먼저 떠올려 보자. 작품의 전시공간은 텅 비어 있고 공간의 한 면에는 무아지경으로 춤을 추는 탈의한 한 남자의 상반신 모습만 반복 재생된다. 그러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전시장 안전요원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카드가 전달되는데 그 카드에는 작품의 제목을 유튜브를 통해 검색하고 스트리밍 되고 있는 음악을 듣고 느껴보라는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다. 이제 관객들 주변에는 춤추는 사람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한다. 이들 중 몇몇은 작가가 개별적으로 섭외해 투입한 퍼포머들이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두 가지인데 작가에 의해 스트리밍되는 음악을 듣고 점점 절정적으로 춤을 출 것, 음악이 끝나기 5분 전 신호가 있으면 5분간 조각상처럼 정지한 채 머물다가 자연스럽게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다. 여기서 관객은 기술이 인간 신체의 유한성을 극복해 물리적 인간이 데이터의 인간으로 치환된 상황을 목도하고 춤이라는 인간 고유의 행위를 통해 기술의 특이점 이후를 경험했다. 이 상황만들기 작품에서 특기할 만한 또 하나의 요소는 협업의 주체인 공학도가 작품의

공학적 요소를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일반적인 형태로 공동작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작품의 영상에서 무아지경의 춤을 추는 퍼포머로 등장한다. 공학자와의 다른 협업 방법이었을까?

올해 초 선보인 <래빗홀 2052>은 요 몇 년 사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로 압축되는 가상과 현실의 공존의 시대에 작가 특유의 SF적 상상을 덧입혔다. 2050년 머크 저커버그는 생물학적 신체를 '종료'하고 메타버스에 완전한 인간을 업로드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곧 멜론 머스크도 합세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이주하기 전 베타테스터를 모집하면서 이주의 대가로 유가족에게 700만 달러를 제공하고 마치 신과 같이 '이주' 환경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공언한다. 참가자들은 실제의 생을 메타버스에서의 생으로 완전히 교체하기를 서약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시점, 조건으로 오직 가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래빗홀 2052>는 5주동안 베타테스터를 모집해 정기적인 상황극 모임과 증언록(가상일기) 쓰기, 이주 협약서 쓰기와 같은 활동을 거쳤다. 프로그램의 피날레는 베타테스터와 증언록의 등장인물들, 일반 관객 모두가 자신이 설정한 '배역'을 연기하며 코스튬 상황극을 벌이는 파티다.

<Human-Being-Human>과 <안드로이드는 춤추고 싶은 기분을 느끼는가?>는 인간이 인공지능으로 존재할 미래에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여겨질 만한 신체의 유희능력, 즉 춤을 하나의 변수로 사유했다. 춤이 고대 인류의 의식, 기원과 관련된다는 그리고 인식으로 포섭되지 않는 신체의 인간적 영역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춤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의 대척점에서 그 기술을 재사유하게 한다. <래빗홀 2052>(2022) 또한 이러한 범주의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는 한편 메타버스가 생물학적 삶을 대체한 시대 인간 생의 무한회귀를 모티브로 한다. 이러한 범주의 작품에서 박관우는 플라톤의 시대를 지나 매트릭스의 시대, 즉 디지털



늑대와 함께 춤을  
A Dance with a Wolf  
2021

혁명 이후 인간 삶의 이원성에 관한 테제를 보여준다. <매트릭스> 1편에서 빨간약과 파란약, 즉 가상의 평범한 삶과 인공지능에 의해 양육되는 참혹한 인간의 삶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기로에 섰던 주인공 네오의 고뇌를 떠올려보라.

<Human-Being-Human>, <안드로이드는 춤추고 싶은 기분을 느끼는가?>, <래빗홀2052>와 같이 기술의 특이점 이후를 상상하는 작품들에서 박관우는 특유의 기술에 관한 사유를 보여준다. 이 때 그는 핑크빛 전망이나 암울한 상실의 시대로 그 미래를 그리지 않는다. 그는 그러한 전개

한 가운데서 현상의 이면에 우리가 고찰해야 할 지점들을 건드린다.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춘다는 인간 본유의 유희 활동으로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삶 내지 인공지능이 인간 신체를 완전히 대체하는 삶을 생각해보게 하고 가상과 실제의 병치된 현실을 살아가는 인류의 당면한 문제를 사유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것. 박관우의 기술에 대한 상상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지만 그 미래에 대한 판단은 유보적이다.

1)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특이점이 온다』에서 유전공학, 나노 기술,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 혁명을 통해 인류의 문명이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이 온다고 주장한다.

# To perceive the world yet defer the answers

**Bae Hye-jeong**

Art Critic, PhD in Art Studies

## After the Technological Singularity

In 2019, Park Kwan-woo presented "Human-Being-Human" (2019) through a kind of guerrilla exhibition and introduced "Do Androids 'Feel' Like Dancing?" (2019) and "Rabbit Hole 2052" (2022) to the world through the ZERO1NE Project. These three works are related to imaginings about humanity after the technological singularity. As can be seen from the phrase in the artist's note, "What was the experience of existing biologically like?" the assumption is made of new existence beyond biological limits after Homo sapiens. "Human-Being-Human" imagined the era 100 years after the technological singularity<sup>1)</sup> in a gallery underground in Apgujeong, hosting a retro party that reflected on 2019 from the perspective of 2119. Another work that develops this assumption is "Do Androids 'Feel' Like Dancing?" Produced in collaboration with engineer Lee Chan, as a result of the ZERO1NE Program operated by Hyundai Motor Group, this work envisions a new existence beyond biology. Let's envision the exhibition space of this work. The exhibition space is empty, and on one side of the space, the upper body of a naked man dancing aimlessly is repeated. Then, when the designated time arrives, safety personnel within the exhibition space hand out cards to the audience. These cards contain a simple message instructing the audience to search for the work's title on YouTube and listen to the streaming music, encouraging them to feel it. Now, people dancing begin to appear one by one around the audience. Some of these are performers individually recruited and brought in by the artist. They are given two tasks: to listen to the music streamed by the artist and progressively dance more passionately; and when there's a signal 5 minutes before the music

ends, to stay frozen like statues for those 5 minutes and then smoothly exit the scene. In this context, the audience experiences the post-technological singularity through the unique human act of dancing, where technology aims to replace the physical human with a data-based one,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human body. Another notable aspect of this situation-setting artwork is that the collaborator, who is an engineer, doesn't engage in a typical collaborative role of handling or supporting the engineering aspects of the artwork. Instead, they appear as a performer dancing aimlessly in the video of the artwork. One could say it's a different form of collaboration with an engineer.

Introduced earlier this year, "Rabbit Hole 2052" added Park Kwan-woo's distinctive sci-fi imagination to the era of coexistence between virtuality and reality, compressed into the term "metaverse" over the past few years. In the year 2050, MERK Zuckerberg plans to "terminate" biological bodies and fully upload human beings into the metaverse. Soon, MELON Musk also joins in, announcing that they will recruit beta testers before the migration, offering USD 7 million to families as compensation for migration and allowing them to participate in shaping the "migration" environment, almost like gods. Participants pledge to completely replace their real lives with virtual lives in the metaverse, on their own terms and conditions. Based on this scenario, "Rabbit Hole 2052" recruited beta testers over 5 weeks and engaged in activities such as regular situational role-playing gatherings, writing testimonies (virtual diaries), and drafting migration agreements. The program's finale involves both the beta testers and characters from the testimonies, as



고래 The Whale, 2023

well as general audiences, enacting the "roles" they have set for themselves and engaging in a costume-based role-play party.

"Human-Being-Human" and "Do Androids 'Feel' Like Dancing?" encapsulate the unique domain of human physical playability, specifically dance, which might be considered distinctive to humans in a future where humans coexist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I). Dance is treated as a variable to explore in the context of a future where humans exist as an AI. Dance, with its associations to ancient human consciousness and origins, as well as its connection to the realm of the human body that remains outside of cognition, prompts a reevaluation of technology in contrast with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represented by AI. Similarly, "Rabbit Hole 2052" (2022) falls into this category of works while also being motivated by the concept of the metaverse replacing biological life, symbolizing an infinite regression of human existence. In works of this category, Park Kwan-woo presents a thesis about the duality of human life after the digital revolution, traversing eras from Plato's time to the era of the film, "The Matrix." Consider the protagonist

Neo's dilemma in "The Matrix," where he stands at a crossroads, facing the choice between the red pill and the blue pill, between an ordinary life in the virtual world and the harsh reality nurtured by AI.

In works like "Human-Being-Human," "Do Androids 'Feel' Like Dancing?," and "Rabbit Hole 2052," where Park Kwan-woo envisions the post-technological singularity era, he presents his distinctive musings on technology. However, he doesn't portray the future as solely rosy with possibilities or as a bleak era of loss. Amidst such developments, he touches upon points beneath the surface of phenomena that we should contemplate. Engaging in the innate human play activity of dancing to music, he encourages us to consider a life coexist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or a life where AI completely replaces the human body. He offers these scenarios to prompt contemplation on the imminent issues humanity faces—how to live in a reality where virtuality and actuality are intertwined. Park Kwan-woo's imaginative view on technology is specific and practical, yet his judgment about the future remains cautious.

<sup>1)</sup> Futurist Ray Kurzweil claims in "The Singularity is Near: When Humans Transcend Biology" that through the revolutions in genetic engineering, nanotechnology,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ity's civilization will reach a moment where it transcends biological limitations.



## 박관우 × 이경미

창발하는 순간들을 조우하며  
-박관우 '클럽 리얼리티'에 관한 파편적 기록



바람은 말했다 The Wind Said  
쉬폰 커튼, 마이크로 컨트롤러, 산업용 선풍기, 마이크 센서  
chiffon curtain, micro-controller, electric fan, microphone sensor  
8×6×16 m  
2014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쓸 줄은 저 역시 몰랐는데 혹시 당황하셨다면 송구한 말씀 먼저 전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시면 왜 제가 당신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오늘 저는 증인으로서 파편적인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그리하여 미결사건으로 남은 <클럽 리얼리티 Club Reality>에 관하여 몇몇 현장에서 제가 포착한 것을 당신께 전하려 합니다.

### 다른 누군가가 되어라!

<클럽 리얼리티>의 룰은 매우 단순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가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타인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거예요. 당신 역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이곳에 입장하셨을 테지요. 약간 상기된 채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당신을 상상하면, 웃음부터 나네요. 전시장에 붙어있는 사진과 인터뷰 영상에 등장하는 11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전시장에서 먹고 마시며 떠드는 그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새로운 페르소나로 무려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모이고 관찰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바를 증언하는 인터뷰 영상은 흥미로워요. 각자가 생각하는 인물에 대한 묘사가 다 다르거든요. 그들이 가상의 '나'를 제대로 연기하지 못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트릭 미러』(생각의 힘, 2021)를 쓴 저자 지아 톨렌티노(Jia Tolentino)는 본인이 10대 시절 출연했던 TV 리얼리티 쇼를 성인이 된 후 다시 찾아보고선 화들짝 놀라요. “빨리 먹기” 게임에서 마요네즈를 먹지 못하는

저자가 매운 마요네즈 요리를 “자진해서” 게걸스럽게 먹어치운 장면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뚜껑이 덮여 무슨 요리인지를 몰랐고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생각했던 저자는 자진해서 먹는 어린 나를 보며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은 생경함을 느끼게 되지요. 그 챕터(“2장 리얼리티 쇼와 나”) 전체가 마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다른 면, 서로를 다르게 기억하는 친구들의 에피소드로 채워져 있어요. 성인이 되기 전 아직 아물지 않은 청소년 시기라서, 기억의 불완전성 때문에, 혹은 TV 프로그램이라서 연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시장의 인터뷰와 연결시켜놓고 보면 처음의 질문, ‘어째서 “단일한” 인물이 이렇게 다채로운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견고하게 만들어진 정체성의 단일함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없는 것은 아닐까요?

### 상상하고 둘러대면서 순간을 생성하라!

우리 모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양한 관계와 상황, 환경이라는 무대 위에서 매번 다른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지금, 당신이 전시장에 서서,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 인양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걸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사회심리학자 어빙 고프먼(Erving Goffman)의 말이에요. 인간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자신의 설정, 외모, 태도를 바꿔가면서 각각의 관계에게 적절한 인상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를 ‘상황 정의(The Definition the Situation)’라고 부르죠.<sup>1)</sup> 50년도 넘는 이 사회심리학 이론을 언급하는 것은 “진짜” 자아란 허상에 불구하고 상황에 따른 “상황적” 자아들만 존재한다는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예요. 일터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수행되는 사회적 역할에서부터 연인, 가족, 친구, 동료, 지인 등 내밀한 감정적인 영역에서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습은 어떤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알게 모르게 다변화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저는 작가의 시도가 일차적으로는 (고프먼의 책 부제이기도 한) '일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기하는가'를 <클럽 리얼리티>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제시하려는 것은 아닌가 되문게 돼요. 여기서는 프리랜서 CF작가, 누드모델, 대학 5학년, 이자카야 알바생, 고등학생 등 가상의 정체성을 (스스로) 설정하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연기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렇지만 매번 낯선 상황들을 마주하며 그 연기는 실패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지요. 평상 시라면 본능적으로 작동할 자아 연출이 이곳에서는 매 순간 무너짐으로써 오히려 인지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관계 혹은 상황 안에서 빠그덕거리며 대응하고 틈을 메꿔나가며 미끄러지는 모습의 자기들이 출현하는 과정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사회 안에서 매 순간 반응하며 연기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 아닐까요. 어떤 참여자는 "사실은 나의 삶 전체가 가짜인데, 나를 그대로 표현하면 될 텐데 그게 왜 어려운지..."라는 자조 섞인 글을 일기장에 적었던군요.

그런데 작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차원 더 나아가는 듯합니다. 11주간의 에피소드는 매회 특별한 상황을 제시하는데요. '마시다 만 술병들' 에피소드를 그 예로 들어보죠. 숨기고 싶은 기억을 쪽지에 적고 제비뽑기한 후 다른 사람의 기억을 마치 본인이 겪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골자예요. 쪽지에 적힌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즉흥적으로 상상해서 둘러대야 하는 것이죠. 기억이란 앞서 지아의 리얼리티 쇼 에피소드처럼 왜곡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가상의 '나'가 만들어낸 기억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타인의 상상을 통해 재구성되는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되는 거죠. '과거의 경험(사실) → 왜곡된 기억 → 가상의 정체성에 의한 변주 → 타인의 상상으로 재구성' 단계를 거치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그럴듯하게 둘러대는 상황만이 남게 되는거죠! 작가의 말로 대체하자면 "모든 데이터들은 손실되고 휘발되는" 것이죠. 재밌지 않나요? 결국 애초의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단서들을 이어가며 허우적거리고 재조작하려고 연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고 창발하는 순간들의 번뜩임만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작가의 의도는 정체성이나 기억이라는 본질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순간마다 다르게 창발시키는 관계들의 지형도를 포착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클럽 리얼리티>와 상호참조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Rabbit Hole 2052>(2022)의 경우 '프리퀴'이라는 설정을 갖고 있죠. 다시 말해, 본 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상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클럽 리얼리티> 역시 다섯 개의 코드와 600여 장의 현장 사진, 400 페이지 가량의 증언록, 200여 장의 그림과 인터뷰 등 무수한 기록으로만 존재하죠. 그 파편화된 증거로 구현된 전시장에서 우리는 <클럽 리얼리티>의 본질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무위로 그치며, '순간들'을 따라서 어렵듯이 유추해 볼 따름인 것이죠.

**그/그녀의 일기를 매일 쓰라 그리고 만나고 교제하라!**

<클럽 리얼리티>에서는 가상의 정체성을 유추해보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작동하고 있어요. 우선 증언록은 상상의 인물로 분한 참여자 본인이 쓴 일기입니다. 하루 10분씩 가상의 나를 반추하며 적어 나가도록 했죠. 그리고 '버디'라는 존재가 있어요. 모임기간 동안 서로를 관찰하고 본인을 대신해서 개인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여자 여럿이 자신의 버디를 가리켜 '나의 거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일 겁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의 본질에 근접하고 이해하려는 시도는 관찰을 기반으로 합니다. 일종의 바라봄이죠.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완벽하고 통합적으로 대상(나 혹은 타인)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이와 대상 사이에는 언제나 일종의 괴리와 간극이 있기 때문이죠. 푸코(Michel Foucault)의 텍스트 「유토피아적인 몸(Le Corps Utopique)」(1966)에는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도입부가 나와요. 주인공이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에 비친 이미지를 통해 본인의 육체를 확인하는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거울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행위는 얼마나 정확한 나를 반영하는 것일까요? 푸코는 한 강연에서 "거울 안의 나를 바라보는 순간 거울이 놓인 그 자리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공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만, 그것이 지각되려면 [거울] 저편에 있는 가상의 지점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sup>2)</sup> 거울의 상으로서 인지하는 이미지는 실재와 가상이 뒤섞인 상태(헤테로토피아)라는 거죠. 따라서 이를



클럽 리얼리티  
Club Reality  
2022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해줘 1  
Tell me that I'm here 1  
2019

통해 인지된 몸이란 그 자체로 완결되거나 통합된 것이 아니라, 주위에 배치된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즉 육체는 언제나 부분적으로 그리고 타자화 되어 생경하게 인지될 뿐이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은 거울이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반영과 일루전을 제시하는 박관우 작가의 작업 면면에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선>(2013), <내일>(2014) 과 같은 초기작에서부터 <타인>(2017),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해줘 1, 2>(2019) 등에 이르기까지 작가는 거울, 잠망경, 스크린, 헤드셋 장치를 고안하여 다른 각도에서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거나 시간이나 장소의 인지감각에 변주를 감행하죠. 이들은 모두 자기 인식의 고정된 틀과 경계를 순식간에 흔들어 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그 존재만이 가지는 고유한 본질은 실재하는가?'

**위 규칙을 영구적으로 지속하라!**

<클럽 리얼리티>는 가상의 정체성으로 분한 11명의 인물들이 매회 특별한 에피소드로 모여 "이상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작가는 이 연극에서 상황을 연출하는 설계자이며,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산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폐쇄적인 사고모임에서 생산된 무수한 증언들을 수집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재배열하는 역할을 하지요. 하지만 작가는 그 무엇도 통제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떠한 계기와 자극을 마련할 뿐이지요. 참여자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개인의 실재와 가상이 뒤엉키면서 제3의 순간들이 창발하도록 독려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현실은 매 순간 실시간으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 모임이 다섯 개의 심플한 코드(와 14개의 시행세칙)를 중심으로 영구적으로 지속되도록 고안되었다는 겁니다. 최초로 생성된 일련 법칙은 모임이 진행됨에 따라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변주하며 진화하는 형태지요. 가상의 정체성으로만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증언록은 온라인에 개방되어 유지되며, 간헐적인 만남은 작가 생애에 총 세번 이뤄진다고 해요. 물론 작가가 위임한 사람은 향후 모임에 있어서 진행 권한을 갖게 됩니다. <클럽 리얼리티>는 마치 생물처럼 자생하고 있다고 봐요. 맨 처음 작가의 머리 속에서 하나의 개념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진행되고 발화하는 전개방식은 지극히 수행적입니다. 미술관 안팎이라는

시공간적인 상황, 참여자들의 언어적이고 신체적인 소통방식, 일상적 차원에서의 담화와 기록 등 "아직 분명하게 인식할 수 없는 움직임과 변화들,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 작업에서는 "정체성은 타고나거나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행위하기'를 통해 변화하고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sup>3)</sup> 아티스트 토크에서 작가와 마주한다면 크게 인사해보세요. <클럽 리얼리티>에서 작가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두 차례 밖에는 없으니까요. 혹은 관객 중에 당신의 모습으로 행세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잘 둘러대시면서 순간을 모면해보세요, 내가 마치 다른 누군가 인척. 한바탕 파티가 진행된 흔적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요. 여전히 그 파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신을 포함한 모두가 그 파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상황 안에 머물면서, 상황을 변주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리고 거울들이 나에게 말을 걸지요. "<클럽 리얼리티>는 상황을 생성하는 구조이며, 영구적으로 결론나지 않는 미결의 사건이다."

아, 그러고 보니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거울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지만 오늘은 이만 줄여야겠습니다. 마시다 만 맥주가 식어버린 지 오래지만, 아무렴 어떤가요.

2022. 7.  
당신의 거울

1) 어빙 고프먼(진수미 역), 『자아연출의 사회학』, 현암사, 2016/1956, p.14.  
2) 미셸 푸코(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1966~, p.48.  
3) 강수미, 『다공예술-한국 현대미술의 수행적 의사소통 구조와 소셜 네트워킹』, 글항아리, 2020, pp.300-302.

## Kwanwoo Park × Mia Kyoungmi Lee

### Encountering Emergent Moments: Fragmentary Records on Club Reality

Hello. I also didn't expect to find myself writing a letter like this, so I apologize if it caught you off guard. By the time you finish reading this, you will understand why I wrote this letter. Please don't be surprised. Today, as a witness,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things I captured at certain scenes related to <Club Reality>, which remains an unsolved case and only exists through fragmentary records.

#### Be someone else!

The rules of <Club Reality> are very simple. You get to become someone other than yourself. Take on a virtual identity and interact with others. You have also been given a new name upon entering this place. I can imagine you, still a bit bewildered, looking around the place. In the exhibition place, there are photos on the wall and interview videos featuring 11 individuals. If you're lucky, you can engage in conversations with them as they dine, drink, and chat at the exhibition. Over a period of more than 3 months, they regularly gathered, observed, and shared stories with each other, all in their new personas.

However, the interview videos that testify to their understanding of each other are fascinating. Each person's description of the others is different. Could it be that they couldn't properly act out their virtual "selves?" No, I don't think so. Let me tell you a story from a book I recently read, "Trick

Mirror: Reflections on Self-Delusion," written by Jia Tolentino. The author was taken aback when she watched a TV reality show she participated in as a teenager. During a "speed-eating" game, she saw a scene where she willingly and gleefully devoured a dish with spicy mayo, which she can no longer eat now. Until that moment, she believed she ate it "unavoidably." Seeing her younger self willingly eat it, she felt as if she was looking at a different person. The entire chapter, "Chapter 2: Reality TV Me" is filled with episodes of her not realizing certain aspects of herself and her friends remembering things differently. You might think it's because of her "pre-adult, still not fully healed teenage years," "imperfection of memory," or "the nature of a TV program that necessitates acting." However, when you connect this with the interviews at the exhibition, you might question the initial question itself: "Why can a 'singular' individual be understood in such diverse ways?" Perhaps the notion of a solid and singular identity doesn't even exist to begin with. The rigid singularity of a constructed identity might not be a real concept at all.

#### Immerse yourself in imagination and create the moment!

Let's assume the following: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we are all performing different ro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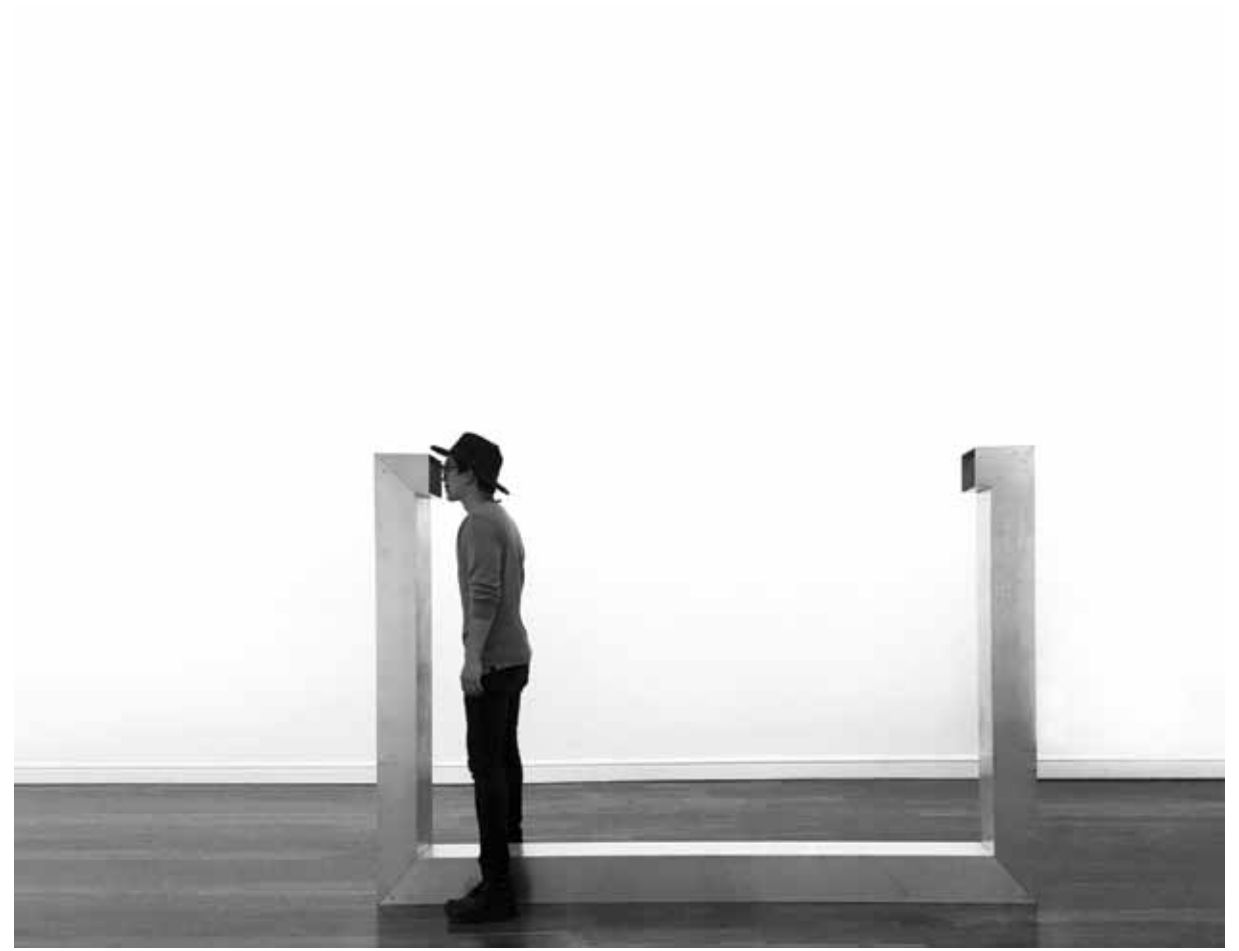
on the diverse stage of relationships, situations, and environments. It's as if right now, you are standing in an exhibition, embodying someone else, not yourself. This is not my own story but a quote from the sociologist Erving Goffman. According to him, humans have a tendency to alter their settings, appearances, and attitudes to form appropriate impressions for each relationship. He calls this "The Definition of the Situation."<sup>1)</sup> This social psychological theory that is over 50 years old highlights the insight that, despite the illusion of a "true" self, there are only "situational" selves that exist based on circumstances. From social roles performed at work, school, and home to intimate emotional realms such as lovers, family, friends, colleagues, and acquaintances, our appearance can unknowingly undergo transformations depending on the situation or relationship. From this perspective, I began to question whether the Park Kwanwoo's primary intention was strategically presenting the exploration of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also titled as Goffman's book) through <Club Reality>. In this place, participants take on (self-set) virtual identities such as a freelance CF writer, nude model, fifth-year university student, part-timer of an izakaya, high school student, and engage in time where they act out new identities. However, facing unfamiliar situations each time, these performances encounter moments of failure. The self-presentation that would normally function instinctively collapses at every moment here, leading to a paradoxical effect of making participants more aware. The process of appearing as "oneself," struggling, adapting, and slipping within relationships or situations paradoxically reaffirms how we constantly react and perform in society. It seems like <Club Reality> serves as a platform that strategically showcases how we act on the stage of our daily lives, exploring the complexities of our constructed identities within

various social contexts. One participant wrote a self-reflective entry in their diary, saying, "In fact, my entire life is fake, so why is it difficult to express myself as I am..."

However, Park doesn't stop there and seems to take it one step further. Each of the 11 episodes presents a unique situation, as exemplified by "Yet unemptied bottles of wine" episode. In this episode, participants write down memories they wish to hide on notes, draw lots to share the memories, and then narrate them as if they had experienced them themselves. The essence of memories is distorted, as seen in the earlier example of Jia's reality show episode. However, this time, the premise is that the memories are created by the virtual "self." They go through a process of being reimaged through the imagination of others. It involves the stages of "past experiences (facts) → distorted memories → variation through virtual identity → reconstruction by the imagination of others," where the essence disappears, and only the plausible storytelling remains. In the artist's words, all the data is lost and evanescent. Isn't it fascinating? In the end, the actual truth itself is not important. What truly matters are the flashes of moments created and emergent during the process of connecting various clues, fumbling, and reorganizing. In my opinion, the artist's intention lies not in the essence of identity or memory but in capturing the landscape of relationships that constantly generate them differently at each moment. The interrelated work of <Club Reality>, <Rabbit Hole 2052> (2022), hold the setting of a prequel: the main part exists only in imagination and not in reality. Similarly, <Club Reality> exists solely through fragments, including five codes, over 600 on-site photos, a testimony book of around 400 pages, around 200 drawings, and interviews. In the fragmented evidence-based exhibition, we strive to find the essence of <Club Reality>, but it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해줘 2  
Tell me that I'm here 2  
2019



타인  
Stranger  
2017

seems futile, leading us to only vaguely speculate along those “moments.”

### **Write their diary every day and meet and interact with them!**

In <Club Reality>, various methods are employed to infer virtual identities. Firstly, there is a “The Book of Testimonies”, which consists of diaries written by participants in the guise of imaginary characters. They spend 10 minutes each day reflecting on their virtual selves and jotting down their thoughts. Additionally, there is a “buddy.” Throughout the gathering, buddies observe and convey individual identities on behalf of their assigned participants. Many participants refer to their buddies as “my mirror,” probably because they serve as a reflection of themselves. The attempt to approach and understand the essence of someone or something is based on observation, a kind of contemplation. However, as we realize, we can never observe a subject (either ourselves or others) perfectly and holistically. There always exists a kind of disparity and gap between the observer and the subject.

In “Le Corps Utopique” (1966) by Michel Foucault, the author references the opening of Marcel Proust’s “In Search of Lost Time.” In this novel, the protagonist wakes up every morning and checks their own body through the reflection in the mirror, an everyday act of self-examination. The act of looking at oneself in the mirror raises the question of how accurately the mirror reflects the self. Foucault mentioned in one of his lectures that the moment of looking at oneself in the mirror is both realistic in the sense that the mirror is connected to all the surrounding space, but also unrealistic because to perceive it, one must pass through the virtual point beyond the mirror.<sup>2)</sup> The image perceived as the reflection in the mirror is a mixture of reality and virtuality, a heterotopia. According to Foucault, the image of the body perceived

through the mirror is not a self-contained or integrated entity but is rather situated within a web of relationships with the objects surrounding it. The body is always perceived as fragmented and othered, and its perception is shaped by its relations to the objects around it.

This perspective is evident in the works of Park Kwan-woo, where he utilizes mirrors and various mediums to present reflections and illusions. From his early works like “Familiar Stranger” (2013) and “Tomorrow” (2014) to “Hello, Stranger” (2017) and “Tell me that I’m here 1, 2” (2019), the artist has used mirrors, periscopes, screens, and headset devices to offer different perspectives of oneself or to alter the perception of time and space. These works all serve to destabilize the fixed frameworks and boundaries of self-awareness in an instant. Ultimately, they lead to the fundamental question: “Does the unique essence that only one existence possesses really exist?”

### **Maintain the above rule indefinitely!**

In <Club Reality>, 11 individuals, each embodying a virtual identity, come together for each special episode to stage “strange situations.” Park serves as the director in this theatrical performance, communicating with the participants to elicit something profound. Additionally, he collects the myriad testimonies produced within this closed social gathering and reorganizes them from an “omniscient artist’s perspective.” However, the artist does not exert control over anything; rather, he provides certain stimuli and triggers. Interactions among the participants intertwine their realities and virtualities, giving rise to third moments. The artist encourages the emergence of these moments, where individual realities and virtualities intertwine. Here, “the reality is constantly being created in real-time.”

An interesting aspect is that this gathering is designed to persist indefinitely, centered

around five simple codes (and 14 operational rules). The initial set of rules evolves and adapts through interactions among the members as the gatherings progress. Through virtual identities, relationships are established, and the testimonies are openly maintained online. The intermittent meetings have taken place only three times in the artist’s lifetime. Naturally, the artist delegates authority to someone else for the future gatherings. <Club Reality> seems to self-generate like a living organism. Although it originated as a concept in the artist’s mind, its unfolding and development are highly performative. The spatial and temporal contexts both within and beyond the art gallery, the participants’ modes of linguistic and bodily communication, and the discourse and documentation within the everyday dimension all reveal “indefinable movements and changes, fluid and variable tendencies.” Through this, the work demonstrates that “identity is not something innate or predetermined, but rather formed and transformed through ‘acting’ within society.”<sup>3)</sup> If you happen to encounter the artist during an artist talk, give a warm greeting. Keep in mind that there are only two more opportunities to meet the artist in <Club Reality>. And you might also encounter someone posing as you among the audience. Don’t be too surprised and try to play along as if you were someone else, as if the party is still ongoing. No, the party is still in progress, and everyone, including you, is participating in it. As you participate here, staying within the situation, you are also altering the situation. We all are actors playing our roles, and the mirrors will speak to us. “<Club Reality> is a structure that generates situations, an ongoing event that never reaches a definitive conclusion.”

Oh, by the way, I apologize for the late introduction. I am your mirror. There are more things I’d like to share, but I should cut it short for

today. It has been a while since the beer has gone flat, but I suppose it doesn’t matter.

July 2022  
Your Mirror

---

1) Erving Goffman,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1956)

2) Michel Foucault, *Heterotopia* (1966)

3) Kang Su-mi, *Performative Communication Structure and Its Social Networking of Korean Contemporary Art* (Geulhangari, 2020), 300-302.

**학력**

2019 영국 왕립예술대학교 (RCA) 조소 전공 석사 졸업 /  
 2015 홍익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전공 학사 졸업

**주요 수상이력 & 커미션**

2023 서울문화재단 2023 예술창작지원사업공모 (트랙 B) 선정작가  
 2022 현대차그룹 제로원 Lab 프로젝트 공모 선정작가  
 서울문화재단 2022 예술창작지원사업공모 (트랙A) 선정작가  
 2021 월간 퍼블릭아트 선정 <2021 뉴히어로>  
 서울문화재단 RE:Search기금 다원예술부문 선정작가  
 플랫폼엘 - 라이브 아트 프로그램 선정작가  
 현대차그룹 제로원 Alumni 프로젝트 커미션  
 2020 서울문화재단 RE:Search기금 다원예술부문 선정작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코 청년작가지원기금 선정작가  
 2019 포스코미술관 신진작가전 선정작가  
 2018 Ashurst London Emerging Artist Prize 파이널리스트

**레지던시**

2022-2023 호반문화재단 H아트랩 입주작가  
 2021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입주작가  
 2020 현대차그룹 제로원 Z-Lab 대표작가  
 2019 현대차그룹 제로원 크리에이터

**주요 개인전 / 개인 프로젝트**

2023 <이상한 꿈 / 미제사건>, 더 레퍼런스, 서울, 대한민국  
 2022 <졸다가 끈 꿈>, 갤러리 조선, 서울, 대한민국  
 <클럽 리얼리티>, 코리아나 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2021 <늑대와 함께 춤을>,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서울, 대한민국  
 2020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관하여>, 스페이스38 (현SAGA), 서울, 대한민국

**주요 그룹전 / 그룹 프로젝트**

2023 Continuous Flow, KOTE, 서울, 대한민국  
 하얀 벽의 고백, 아트스페이스 호화, 서울, 대한민국  
 검은 기둥의 감각, 아트스페이스 호화, 서울, 대한민국  
 2022 인공윤리,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튜링테스트-A.I의 사랑고백,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2021 제로원데이 2021 원효로 현대차 (구) 서비스 센터, 서울, 대한민국  
 2020 가려진 사회, 우민아트센터, 청주, 대한민국  
 2019 제로원데이 2019, Borderless in Everything - 원효로 현대차 (구)센터, 서울, 대한민국  
 Show 2019, Darwin Building, RCA, 런던, 영국  
 Obsession; Reality Tunnel - Hockney Gallery, 런던, 영국  
 2018 제 5회 포스코 미술관 신진작가전 - 포스코 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Too Much Information - Seventeen Gallery, 런던, 영국  
 2017 #33 - CGP Gallery, 런던, 영국  
 Hello, Stranger - Square Gallery, 런던, 영국  
 Under the See - Crypt Gallery, 런던, 영국  
 2016 Drawing Show - RCA Sculpture Building, 런던, 영국  
 2015 CHI 2015 - COEX 국제무역센터, 서울, 대한민국  
 TEI 2015 - 스탠포드대 디자인스쿨, 팔로알토, 미국  
 2014 Dress It Up - SK 아트센터 나비, 서울, 대한민국

**Education**

2019 MA Sculpture, Royal College of Art (RCA), United Kingdom  
 2015 BFA Digital Media Design, Hongik University, South Korea

**Award / Commission**

2023 <SFAC Artist Grant>, Seoul Foundation of Art and Culture (B Track)  
 2022 <Zero One 01-Lab Commission>, Hyundai Motors  
 <SFAC Artist Grant>, Seoul Foundation of Art and Culture (A Track)  
 2021 <2021 NEW HERO> by PUBLIC ART MAGAZINE  
 <RE: SEARCH Project Commission>, Seoul Foundation of Art and Culture  
 <Platform-L Live Arts Program>, Platform-L Contemporary Art Center  
 <Zero One Alumni Commission>, Hyundai Motors  
 2020 <RE: SEARCH Project Commission>, Seoul Foundation of Art and Culture  
 <ARKO Emerging Artist Commission>, Art Council Korea  
 2018 <POSCO Museum Emerging Artists Prize> Finalist  
 <Ashurst Emerging Artist Prize>Finalist

**Resid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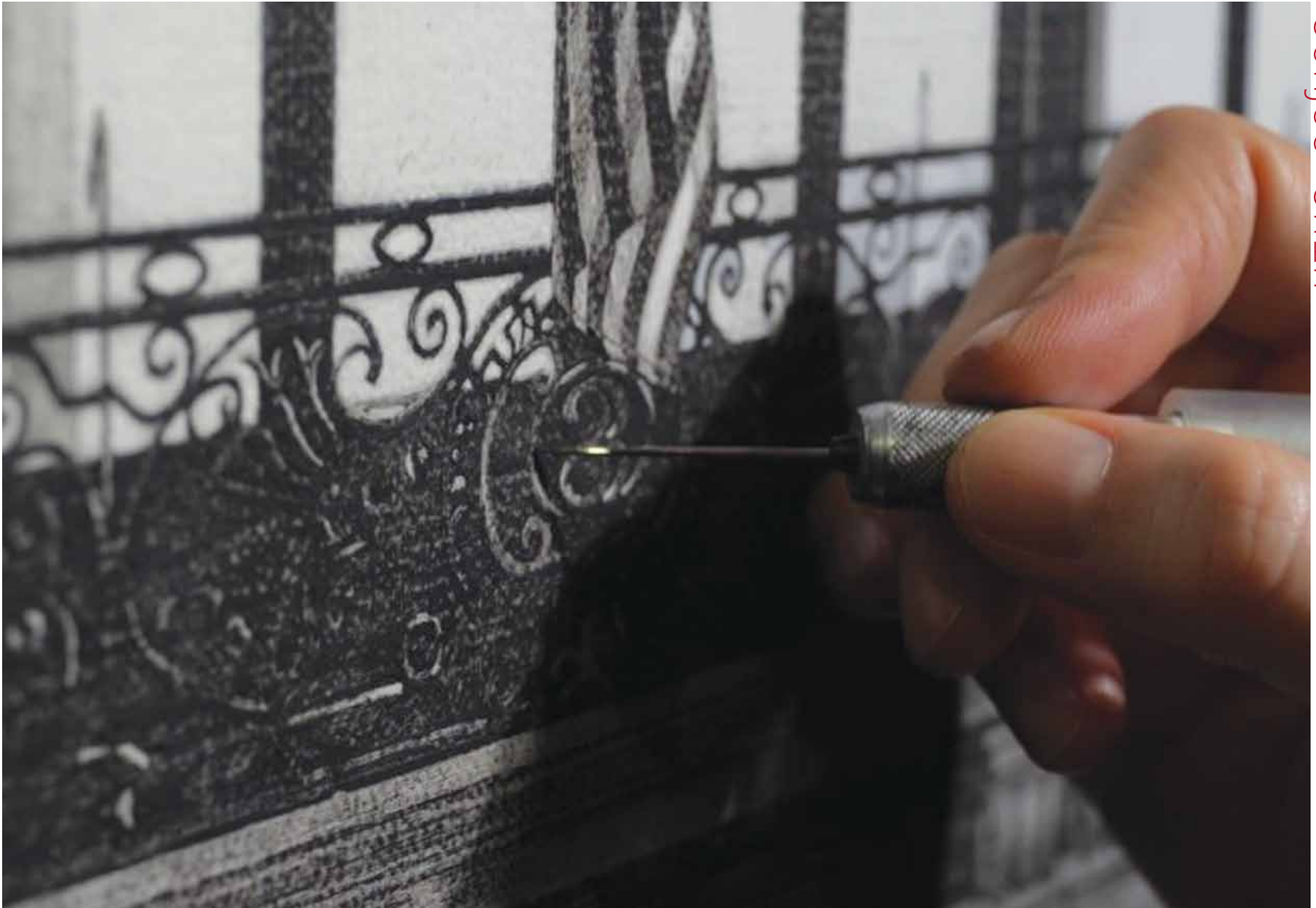
2022-2023 H-Art Lab Artist in Residence, Hoban Cultural Foundation  
 2021 MMCA Artist in Residence (Goyang)  
 2020 Z-LAB by ZER01NE (Zere One)  
 2019 ZER01NE (Zere One) Creator

**Solo Show / Solo Project**

2023 <Strange Dream / Cold Cases>, The Reference, Seoul, South Korea (Upcoming)  
 2022 <Dream during the nap>, Gallery Chosun, Seoul, South Korea  
 <Club Reality> Space \*C (Coreana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2021 <A Dance with a Wolf>, Platform L Contemporary Art Centre, Seoul, South Korea  
 2020 <Kwanwoo Park: On Incomprehensible>, Space38, Seoul, South Korea,

**Selected Group Show / Group Project**

2023 Continuous Flow, KOTE, Seoul, South Korea  
 Voices from the Walls, Art Space Hohwa, Seoul, South Korea  
 Black Nuance, Art Space Hohwa, Seoul, South Korea  
 2022 A.I Ethics, Seosomun Shrine History Museum, Seoul, South Korea  
 Turing Test: An AI's Love Confess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2021 Zero One Day 2021 - - Wonhyoro Hyundai Motors Service Centre, Seoul, South Korea  
 2020 Concealed Society - Wumin Art Centre, Cheong-Ju, South Korea  
 2019 Borderless in Everything - Wonhyoro Hyundai Motors Service Centre, Seoul, South Korea  
 Degree Show 2019 - Royal College of Art, London, UK  
 OBSESSION; Reality Tunnel - Hockney Gallery, London, UK  
 2018 The Great Artists - POSCO Museum, Seoul, South Korea  
 Too Much Information - Seventeen Gallery, London, UK  
 2017 #33 - CGP Gallery, London, UK  
 Hello, Stranger - Square Gallery, London, UK  
 Under the See - Crypt Gallery, London, UK  
 2016 Drawing Show - RCA Sculpture Building, London, UK  
 2015 SIG.CHI 2015 - COEX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Seoul, South Korea  
 TEI 2015 - McClelland Building, Stanford University, Palo Alto, CA, USA  
 2014 Dress-IT-Up - Art Centre Nabi, Seoul, South Korea





## <검은 색조의 방식 : Manière-blanc>

이경미

H ART LAB 2기 입주 이론가

신선주 작가는 '검정 색조의 방식(Manière-noir)'이라 명명하는 고유한 작업방식, 다시 말해 캔버스 위에 오일파스텔을 올리고 이를 긁어내는 특유의 기법으로 검정색이 지닌 깊이를 통한 시각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소방서, 한 때 공장이었던 갤러리, 기차역 등 실존하는 건물 파사드와 건축 공간은 작가에 의해 누구 하나 없이 비워진 곳이자 오로지 빛과 어둠으로만 구성된 장소가 된다. 이 거대한 "건축적 오브제"는 표현에 있어 극단적 대비를 이루는 한편 작가의 수행성을 잘 드러내는 매질이다. 오일파스텔로 공간을 지워내듯 검정으로 쌓아올린 공간은 캔버스의 흰 부분과 대조를 이루며 시각적으로 고요하고 적막한 깊이감을 화면 안에 만들어낸다. 또한 매우 섬세하게 긁어내고 묘사한 디테일의 장식성과도 대비되며 시각적인 묘미와 낯선 감각을 제공한다. 한편 판화의 메조틴트처럼 긁고 새기는 제작 방식은 노동집약적인 작업 과정으로, 작가의 신체적 움직임과 퍼포머티브한 에너지가 화면에

아로 새겨져 묵직한 공간성을 표출하도록 한다.

'하얀 벽의 고백'전시에서 선보였던 <하얀 색조의 방식: Grand Central Terminal>은 <검은 색조의 방식: ON>(2023)과 대구를 이루는 작업이다. 사진 위에 오일파스텔과 아크릴릭으로 덧칠하며 일부 지워내고 비워낸 이 장소는 1903년 지어진 뉴욕의 기차역으로 근현대 모빌리티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동의 주체인 사람이 지워지면서 그 기능이 탈락한 채 시각적 오브제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정면의 창문은 흰 공간으로, 하단은 검정 공간으로 변화하며 현실의 장소에서 조형적 공간으로 이행한다. 사진과 회화 사이에 위치한 본 작업은 최소한의 개입으로 건축공간이 자리하는 현실세계를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낯설게 만들고 역설적으로 공간 본연의 의미를 환기시킨다.



## "Manière-blanc" by Sunjoo Shin

Mia Kyoungmi Lee

H ART LAB Critic

Sunjoo Shin continues to explore visual experimentation through her unique artistic method named "Manière-noir." In this technique, she applies oil pastels on canvas and then scratches them off, creating depth and visual effects with the black color. The existing facades and architectural spaces, such as fire stations, former galleries, and train stations, become empty places devoid of any presence, transformed solely into spaces composed of light and darkness by the artist. These colossal "architectural objects" create an extreme contrast in her expression and serve as a medium to reveal the artist's performative nature. The space built up with black oil pastels, seemingly erased, contrasts with the white parts of the canvas, creating a visually serene and tranquil depth within the artwork. The delicate details she meticulously scratches and depicts further juxtapose with the decorative and visual allure, providing a sense of unfamiliarity and fascination. On the other hand, the process of scratching and engraving, similar to the mezzotint technique in printmaking, is labor-intensive, incorporating the artist's physical movements and performative energy onto the canvas. This results in the creation of a solid spatiality, as the artist's energy is imprinted on the sur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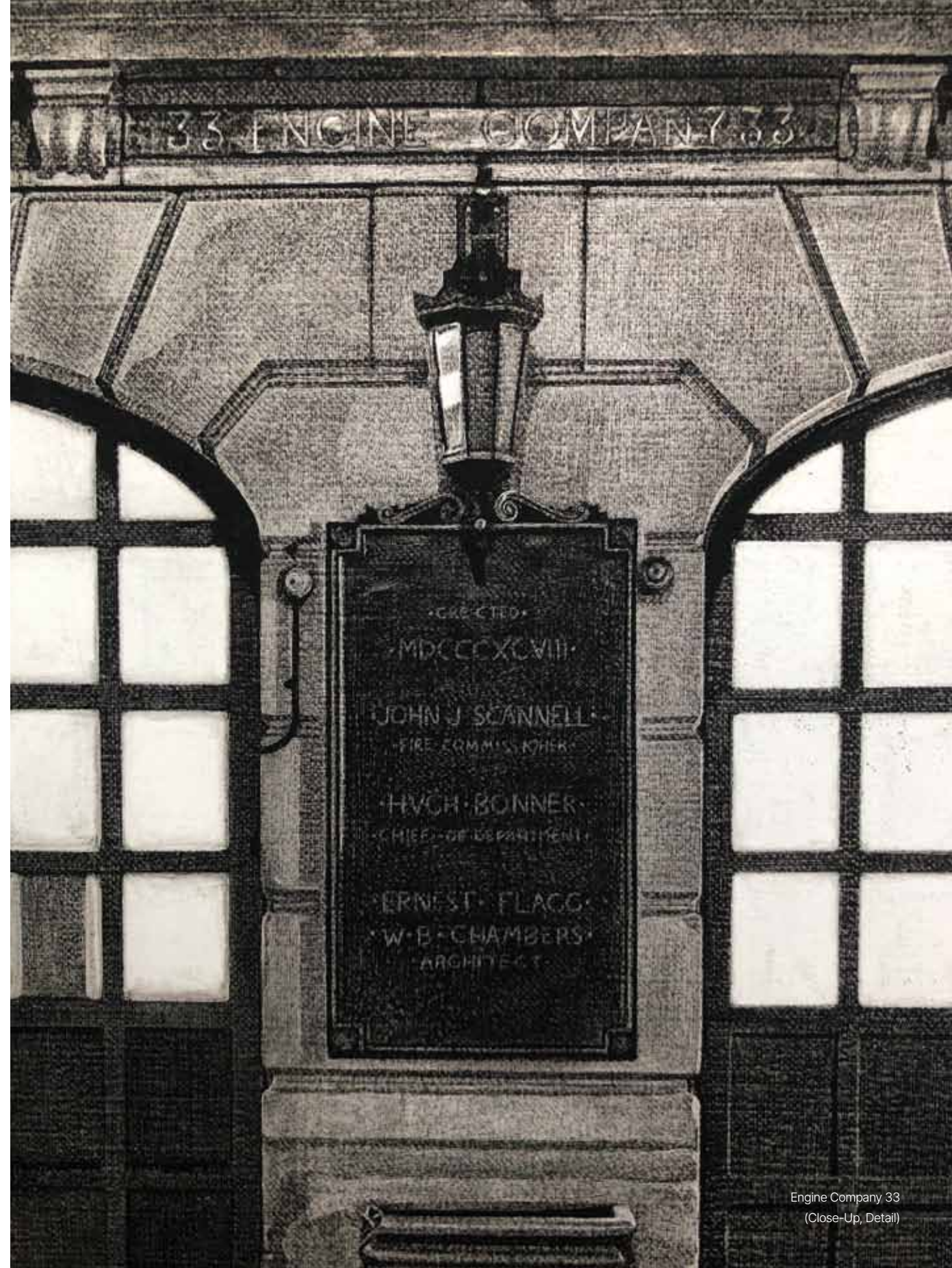
Central Terminal, a train station built in 1903 in New York, symbolizing the history of modern mobility. However, in this artwork, the human subjects, the agents of movement, are erased, transforming the space into a visual object, devoid of its original function. The front windows transition into white space while the lower parts turn into black space, shifting from a realistic place into a sculptural space. Positioned between photography and painting, this artwork leads the architectural space, existing in the real world with minimal intervention, into a different dimension, creating an unfamiliar atmosphere and paradoxically revitalizing the intrinsic meaning of the space.

"Manière-Blanc: Grand Central Terminal," presented in the exhibition "Voices from the Walls," is a project that complements the piece "Manière Noir: ON" (2023), forming a diptych. Shin Sun-joo uses oil pastels and acrylics to overlay on photographs, partially erasing and emptying certain areas. This place depicted is the Grand





Engine Company 33  
scratching, oil pastel, acrylic on canvas  
180 X 180cm  
2016~2022



Engine Company 33  
(Close-Up, Detail)

## 신선주 × 고윤정

### 신선주 작가론 <검은 색의 스펙트럼>

신선주의 작업은 검은 색이 주를 이루지만 색으로만 단정지을 수 없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작가는 '검다', '블랙'이라는 단어가 주는 단조로움을 판화의 메조틴트(mezzotint) 기법을 응용하여 오랜 기간 굵어내면서 더욱 깊고 확장된 의미로 변화시킨다. 건축적으로 스케일이 큰 공간을 작업으로 옮기고 있는 신선주는 어두운 세계와 밝은 세계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미묘하게 관객의 감성적인 이입을 끌어낸다. 초기작에서 주로 대조적인 느낌의 블랙과 화이트를 표현하면서 궁극적인 합일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면 근작에서는 검은 색에 가까운 보라색이나 검은 색에 가까운 색조로 어둡고 정적인 장면들을 보인다. 신선주의 작업에서 특별하게 느껴지는 공간의 감각은 매우 중립적인 입장을 드러낸다. 건축 공간에서의 장식적인 요소들은 제거되고 주요한 공간의 고요한 비현실적인 미장센을 보이는 근작들은 형태가 단순화되면서 오히려 관객에게는 그곳에서 벌어졌던 혹은 앞으로의 일들을 상상하게 한다. 그것은 중립적인 공간이 보이는 무생물적인 특성 때문에 더욱 도드라지는 것일 텐데 오히려 작가의 주체성이 배제되고, 그림이 관객에게 시선과 해석의 여지를 맡기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중화(neutralization)현상은 대립 관계에 있는 요소들이 새로운 복합적 관계나 대립적인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는데, 그것은 표피적인 요소의 충돌보다는 담론의 현상들 속에서 새로움을 고찰하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즉 신선주의 작업에 중화현상을 대입하여 보면 의미를 하나로 고착화시키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작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론화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특성이다. 공간과 공간 밖의 상황들은 역사화된 흔적이기도 하지만 작업 속에서 켜켜이 쌓이면서 덧입혀 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하나가 강하게 드러나면 다시 반대편의 요소가 등장하면서 굵히고 새겨지는 과정을 통해 육체적인 노동과 경험들이 순환적으로 덧대어진다. 작가의 언어, 담론, 몸짓, 행위, 육체는 작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반복,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중립의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나간다. 중립적인 입장이 등장하는 것은 결국 작가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작가가 갖고 있는 작업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관객이 작가의 작업을 처음 마주했을 때 수록인가 싶다가도 꼼꼼한 필치를 보면서 오일파스텔의 특유의 깊은 마티에르를 보면서 눈으로 보고 있는 질감이 손으로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극도로 미니멀하게 구성된 검은 색의 분할 속에서 재구성된 풍경은 중립적이기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작가의 주관적인 풍경이 되기도 하는 양가성을 지닌다. 그것은 작가의 내부에서 치열하게 갈등과 중화적인 작용을 겪으면서 진행되는 작품의 과정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작가는 기존의 체계, 구조의 내부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틈을 발견하고 다시 그 틈을 메꾸면서 망설임과 흔들림, 선택의 순간순간을 맞이한다. 이렇게 제공되는 뉴욕의 소방서, 누군가가 드나드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등 근작에서 보이는 공간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검다'로만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매우 고요하며 압도된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많은 공간일수록 다양한 감상적 태도가 담기게 된다. 신선주의 작업이 이렇게 작가의 주체성을 최소화하고, 관객의 역할을 부각시키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몰입이 되도록 하는 과정에는 회화적 작업에 이르기 이전에 사진가의 태도가 담겨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신선주의



On (Grand Central Terminal)  
scratching, oil pastel, acrylic on canvas  
181.8×227.3cm  
2022~

'사진적 회화'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작품에서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물, 즉 건축과 공간이 있고, 거기에 과거에서부터 현실적인 세계가 결합이 되어 있다. 높아 보이는 이국적인 소방서의 모습과 양측으로 확장된 터미널에서 희끗하게 드러나는 창이 지시하는 것은 작가가 제시하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압도하는 분위기이며, 그것에 대한 해석은 관객의 몫이 되면서 관객은 지시하는 대상의 이면을 마음껏 상상하고 개입한다. 사진의 촬영과 현상 과정을 달리하면 현실도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결국 빛의 효과에서 지시의 대상이나 모방은 흐트러지기도 한다. 신선주의 작업은 회화이지만 끊임없이 중립적인 과정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성질이 투명할 것 같은 사진에서는 불투명한

현실이 보이고, 모호할 것 같은 회화에서는 오히려 중립적인 입장이 강조되면서, 사진적 회화의 관계는 한층 복잡해진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드러남의 순간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과정은 관객에게 지각을 통한 이미지와 실제로 존재하는 불변의 진리의 관계를 짐작하게 하면서 실존적으로 적극적인 감상을 하게 한다. 즉 관객은 몸의 현상학적인 움직임의 과정 속에서 보는 행위를 확장하고 작업의 이면과 쌓여 있는 현상들을 판단하면서 눈과 몸으로 작업에 다가간다. 신선주의 검은 색이 주는 스펙트럼은 이렇게 색에서 시작하여 관객의 몸짓을 끌어내는 데에까지 시지각적인 감각에서 시작하여 현상학적인 관객의 적극적인 감상적 태도에까지 확장된다.



HMMMMMMMM... 상상 재설계  
scratching, oil pastel, acrylic on canvas  
150×200cm each (Dptych)  
2011

## Sunjoo Shin × Yoonjeong Koh

### Sunjoo Shin's Art Theory <Spectrum of Black>

Sunjoo Shin's work is predominantly composed of black, but it shows various spectrums that cannot be simply defined by color alone. She applies the mezzotint technique to printmaking, which involves scraping and refining over an extended period to transform the words "black" and "darkness" into deeper and expanded meanings. By transposing her artistic expression onto architecturally large spaces, Shin delicately draws the viewers' emotional engagement, allowing them to experience both dark and bright worlds simultaneously. In her earlier works, she mainly depicted contrast of black and white, illustrating the process leading to ultimate unity. In her recent works, she portrays dark and static scenes primarily in shades of black or purplish-black, revealing a different aspect of her artistry.

The prominent sense of space in Sunjoo Shin's work is highly neutral. In her recent works, decorative elements of architectural spaces are removed, and instead, the primary spaces present a serene yet surreal mise-en-scène. Through the simplification of forms, she invites the viewers to imagine the events that have taken place or will take place there. The heightened neutral and inanimate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seem to exclude the artist's subjectivity, allowing the viewers to engage with the work and interpret it according to their perspectives.

This neutralization phenomenon results in the absence of clear contrasts or pronounced opposition between elements. Instead of clashes between superficial elements, Shin Sun-joo's work delves into examining novelty within discursive phenomena. The neutralization in her work prevents fixating the meaning into a single interpretation, encouraging the discourse and multiple narratives.

The spaces within and beyond Sunjoo Shin's work are traces that have been historicized, yet they also accumulate, layer, and disappear within the artwork itself. As one aspect becomes prominent, the opposing elements reemerge, undergoing a process of scraping and carving, where physical labor and experiences are cyclically intertwined. The artist's language, discourse, gestures, actions, and physicality tread carefully through the process of neutrality, marked by the repetition of inner conflicts and the exploration of new paradigms through choices and focus. The emergence of a neutral standpoint ultimately signifies the artist's continuous repetition of something, indicating the attitude she holds towards her work. When encountering Shin's work for the first time, the viewer may initially perceive it as ink wash, but upon closer inspection, the meticulous brushwork and the depth of oil pastels' unique matière may create a sensation of visually

feeling the textures as if touching them with one's hands. This multifaceted experience arises from the artist's approach to her work.

The landscapes reconfigured within the extremely minimalist and divided black spaces embody a duality of being both neutral and, ultimately, subjective landscapes of Shin Sun-joo. This is due to the intense conflicts and neutralizing actions that take place within the process of creating the artwork, originating from her inner self. As the artist engages in this process, she doesn't confine herself solely within existing systems or structures but discovers and fills the gaps in the external realm, encountering moments of hesitation, oscillation, and decision-making. Through the depiction of spaces like a fire station in New York or the bustling Grand Central Terminal in her recent works, the artist reveals a world that cannot be merely described as "black" but has evolved over an extended period, presenting multifaceted perspectives within an atmosphere of profound tranquility and overwhelm. Paradoxically, spaces teeming with people offer a canvas for diverse interpretive attitudes.

Indeed, the process in Sunjoo Shin's work, which minimizes the artist's subjectivity and highlights the role of the viewer, contains elements reminiscent of a photographer's approach before arriving at painterly works. One can consider it as a "photographic painting" aspect of her art, where certain objects, namely architecture and space, are undeniably present, and they are combined with the realistic world from the past. The towering and exotic appearance of the fire station and the glimpses of windows in the expansively extended terminal create an overwhelming atmosphere, suggesting that significant events might occur in the depicted scenes.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these scenes becomes the responsibility of the viewers, allowing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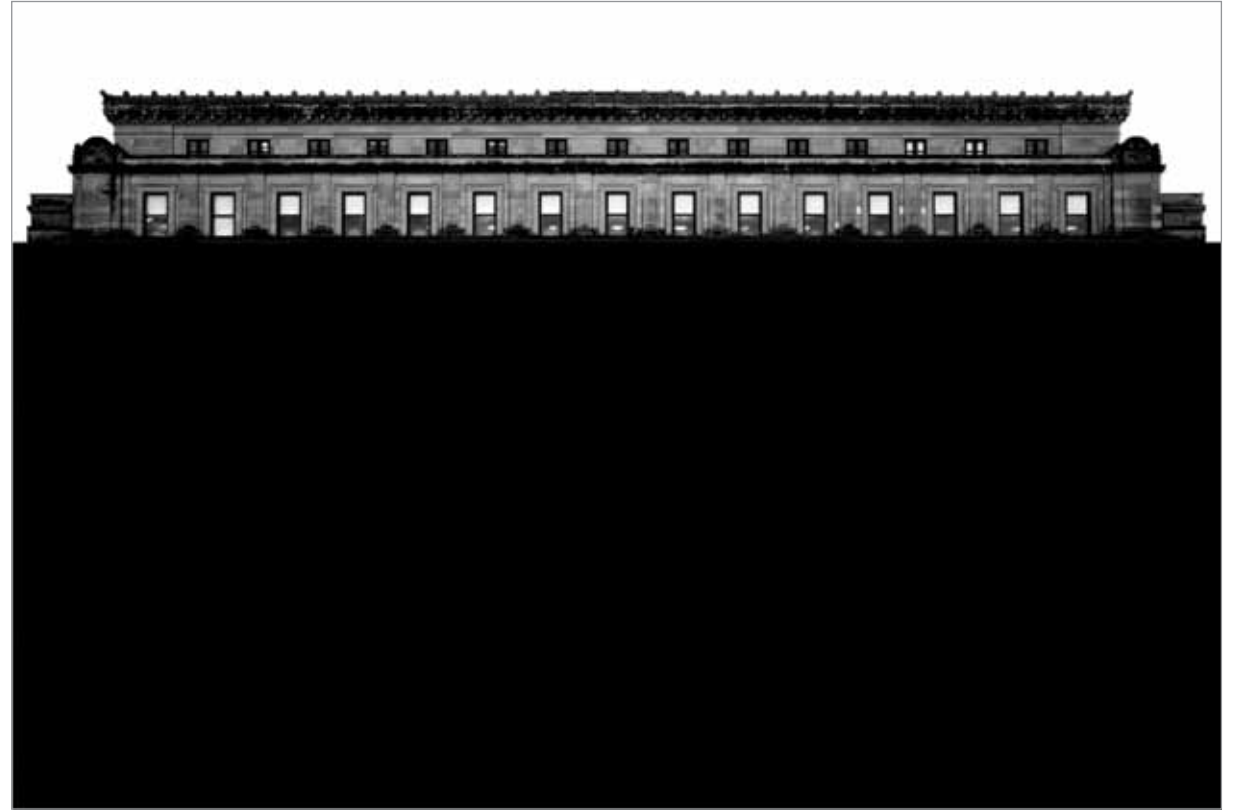
to freely imagine and engage with the hidden aspects of the depicted subjects. The divergence in the process of capturing and developing photographs can give a sense that reality is not quite real. Ultimately, even within the effects of light, the subjects of representation or imitation can become blurred and uncertain.

Sunjoo Shin's art work is painting, but it maintains an incessantly neutral process, which paradoxically highlights objective facts. In photographs where one might expect transparency, an opaque reality is revealed, while in paintings that may seem ambiguous, the emphasis is on a neutral standpoint. This relationship between photographic and painterly aspects becomes even more intricate. Moments of revelation and disappearance of what is seen and unseen prompt the viewer to contemp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images and the unchanging truth that actually exists, inviting an actively engaged interpretation. In essence, the viewer extends the act of seeing through the phenomenological movement of their bodies, judging the underlying aspects and phenomena of the artwork as they approach it with their eyes and bodies. The spectrum presented by Shin Sun-joo's black color extends from the visual perception of color to evoke the viewers' bodily gestures and further unfolds into a phenomenological, actively engaging attitude in their experience.





Art Buiding  
oil pastel on canvas, scratching  
122×80.5cm  
2012~2019



Butler Library  
oil pastel, acrylic, ultrachrome pigment on kodak canvas  
200×300cm  
2015

학력

2003 Pratt Institute, M.F.A. Painting / Photography (예술대학원 복수전공)  
 1997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M.F.A. Painting 예술대학원  
 1991-1995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회화 학부 서양화 전공 졸업

개인전

2021 Maniere-noir : Engine Company 33 [EP전], 아트비엔, 서울  
 2021 Maniere-noir : Royal Blue, Gallery BK, 서울  
 2015 Maniere-noir : CORNICE, LIG 아트 스페이스, 서울  
 2012~13 Maniere-noir : RECESSED, 영은 미술관, 경기 광주시  
 2012 Maniere-noir : FACASE, 갤러리 현대 시간동 원도우 갤러리, 서울  
 2011 Maniere-noir : Gray징[京], 갤러리 현대16번지, 서울  
 2009 Maniere-noir : Beijing Photos, 가능공간 Space Can, 서울  
 2009 Maniere-noir : Brooklyn, 갤러리 현대 강남 원도우 갤러리, 서울  
 2008 SCRATCH, 관훈 갤러리 기획작가 공모전, 관훈 갤러리 신관, 서울  
 2008 Line drawing on Polaroid, Gallery Bressong  
 2006 폴라로이드 초상들, 기획공모, 진흥 아트홀, 서울  
 2005 공상적 초상, 토포하우스 갤러리, 서울  
 2003 The Byrdcliffe Art Colony Show, Woodstock, New York  
 2003 칼리지 아트 갤러리,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New Jersey  
 2002 Multi-portrait, Stueben West Gallery, Pratt Institute, New York  
 1996 Sunjoo Shin Solo Exhibition, Art Center, Department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Kettering University, Flint, Michigan

단체전, 기획전

2023 하얀 벽의 고백, 아트스페이스 호화, 서울  
 2023 검은 기둥의 감각, 아트스페이스 호화, 서울  
 2022 BLACK\_무겁고 깊은, 소노아트, 서울  
 2022 한국-요르단 수교 60주년 전시 <BREAKING THE BORDERS>, Ras Al Ain hangar, 암만  
 2021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오채찬란 모노크롬>,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시  
 2020 20주년 특별기획전 <영은지기, 기억을 잇다>, 영은미술관, 경기 광주시

2020 Open the Memory, 021 갤러리, 대구  
 2019 Hidden Pictures in Cinema: 영화, 미술로 읽다, 롯데갤러리 영등포점, 서울  
 2018 Beyond Balck, 수애노 339 갤러리, 서울  
 2018 공간(空間)-비움. 깊이. 빛, 021 갤러리, 대구  
 2017 4慮공간(사려공간)전, 화이트블럭 아트센터, 파주시  
 2016 2016 아트경기-START UP,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성남시  
 2016 건축에 대한 사진의 몇가지 입장, 더텍사스프로젝트, 서울  
 2016 'Inner Space' 3인전, 아틀리에 아키, 서울  
 2015 회화: 세상을 향한 모든 창들, 블루메 미술관, 파주시  
 2013 전국 공-사립기관 매칭작가교류전 <공감\*공유\*공존의 미학>, 영은미술관, 경기 광주시  
 2013 단상, LIG 아트 스페이스, 서울  
 2012 열망하는 일상 Desirable Routine 展, 갤러리 현대 본관 외 다수

수상 및 선정

2020 서울예술지원 창작준비지원 RE:SEARCH 시각예술선정, 서울문화재단  
 2015 예술작품지원사업선정, 서울문화재단  
 2013 KAP(Korean Artist Project) 아티스트 선정,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2011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선정작가, 서울시립미술관  
 2010 제10회 송은미술대상, 입선, 송은문화재단  
 2009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 시각예술분야 선정작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레지던시 프로그램

2022 H 아트랩 2기 입주작가  
 2016~2017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3기 입주작가  
 2014 LIG 아트스페이스 뉴욕 레지던시 프로그램, 뉴욕  
 2011~2013 영은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8기 작가  
 2009 PS Beijing 창작 스튜디오 입주작가, 베이징  
 2003 Woodstock A-I-R Residency, The Center for Photography at Woodstock

작품소장

XPLOR인베스트먼트,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경기도미술관, 현대카드, LIG문화재단, 아트센터화이트블럭, 영은 미술관, 퓨처스트림네트웍스, Samuel Dorsky Museum of Art at New Paltz 외 다수

Education

2003 M.F.A., Painting and Photography, Pratt Institute, New York, USA  
 1997 M.F.A., Painting,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Rochester, USA  
 1995 B.F.A., Painting, Dong-a University, Busan

Solo exhibitions

2021 Maniere-noir : Engine Company 33 [EP], ArtBN, Seoul  
 2021 Maniere-noir : Royal Blue, Gallery BK, Seoul  
 2015 Maniere-noir : CORNICE, LIG ART SPACE HANNAM STUDIO L, Seoul  
 2012 Maniere-noir : RECESSED,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Kwangju-si, Kyunggi- do  
 2012 Maniere-noir : FACASE, Gallery Hyundai Sagandong Window Gallery, Seoul  
 2011 Maniere-noir: Gray 징[京], 16 bungee, Seoul  
 2009 Maniere-noir: Beijing Photos, Space Can, Seoul  
 2009 Maniere-noir Brooklyn, Gallery Hyundai Window Gallery, Seoul  
 2008 Scratch, Kwanhoon Gallery, Seoul  
 2006 Polaroid Portraits, Jinheung Art Hall, Seoul  
 2005 Portrait-pia, Topohaus Gallery, Seoul  
 2003 The Byrdcliffe Art Colony Show, Woodstock, New York, USA  
 2003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College Art Gallery, New Jersey, USA  
 2002 Multi-portrait, Stueben West Gallery, Pratt Institute, New York, USA  
 1996 Sunjoo Shin Solo Exhibition, Art Center, Department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Kettering University, Flint, Michigan

Group exhibitions

2023 Voices from the Walls, Art Space Hohwa, Seoul  
 2023 Black Nuance, Art Space Hohwa, Seoul  
 2022 Black\_Heavy and Deep, Sono Art, Seoul  
 2022 The 60th Anniversary of Korea-Jordan Diplomatic Ties <BREAKINGTHE BORDERS>, Ras Al Ain hangar, Amman  
 2021 2021 Jeonnam International SUMUK Biennale, Mokpo Culture & Arts Museum, Mokpo-si  
 2021 The City, Daily life Space of Art & Culture, Gyeonggi Provincial Northen Government, Uijeongbu-si  
 2020 Open the Memory, 021 Gallery, Daegu  
 2019 All you need is Love=ART, Gallery Bank, Seoul  
 2019 Hidden Pictures in Cinema: Movie, Read with Art, Lotte gallery, Youngeun deung po, Seoul  
 2019 Less Is More, The Soda Museum of Art, Hwaseong-si  
 2018 Beyond Balck, Sueno 339 Gellery, Seoul  
 2018 Space: Emptiness, Depth, Light, 021 Gallery, Daegu  
 2017 4 Considering Space, Art Center White Block, Paju

2016 2016 Art Gyunggi-START UP, Gyeonggi Center for Creative Economy & Innovation, Seongnam-si  
 2016 'Not architectural photo but photographic architecture', THE TEXAS PROJECT, Seoul  
 2016 'Inner Space', Atelier Aki, Seoul  
 2016 'THERE', Lina Gallery, Seoul  
 2015 Paintings : all the windows to the world, Blume Museum of Contemporary Art, Paju  
 2013 Aesthetics of Sympathy, Share and Coexistence,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Kwangju-si, Kyunggi-do  
 2013 Fragmentary thoughts, LIG ART SPACE  
 2013 Art of Miracle, AK Gallery, Suwon  
 2012 Desirable Routine, Gallery Hyundai etc.

Awards and Selection

2020 Selected Seoul Arts Support for Creative Preparation, RE:SEARCH of Visual Arts,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5 Selected Providing Support for Arts and Creativity,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3 Selected KAP(Korean Artist Project), The Korean Art Museum Associat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ts Council Korea  
 2011 SEMA Emerging Artist Exhibition Support Program Selected Artist, Seoul Museum of Art  
 2010 The 10th Songeun Art Awards, Prize,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2009 Selected Artist in the field of Visual Arts, Annual Artist Development Business Fund, Art Council Korea

Residency Program

2022 H Art Lab Artist Critic Creative Studio Program  
 2016~2017 Art Center White Block Residency Program, Paju  
 2014 LIG ART SPACE New York Residency Program, New York, USA  
 2011~2013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Kwangju  
 2009 P.S. Beijing, Beijing, China  
 2003 Woodstock A-I-R Program by the Andy Warhol Foundation, Center for Photography at Woodstock New York, USA

Collections

XPLOR Investment Co., Seoul Museum of Art, Art Bank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Hyundai Card Co., LIG Art and Cultural Foundation, Art Center White Block,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etc.



신창용  
Changyong Shin



2022. 6. Gallery Seoul 13

# 작가노트

## Artist's Statement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 가면서 마음 속에 자신만의 이상을 꿈꾼다. 우리가 접하는 여러매체는 사람들이 이상을 꿈꾸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나는 그림을 그릴 때 여러가지 종류의 즐거움을 느끼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림에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여러 소재들을 등장시키고 나만의 상상의 공간에 펼쳐놓는 것이다. 항상 나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곳은 나의 '정신의 그릇' 이 되어 그림을 그리는 그 시기의 내 인생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나에게 제공하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세계의 질서가 적용되는 곳이 되어준다. 내가 그림 안에 담아놓은 여러 이야기들은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조금씩 스며나오고 공감을 통해 꽃을 피운다.

최근의 작업에서는 주로 고독하고, 고뇌에 찬, 그리고 고립된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하고 그러한 캐릭터들이 멀티버스 상에서 서로 만나 교류하며 시간여행은 물론 함께 캠핑을 하며 휴식을 취한다. 여기서 라면은 캠핑의 주요 핵심 포인트이며 누구나 쉽게 접하는 보편성과 캐릭터들이 함께 즐기는 의외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캠핑 장면은 영화에서 등장인물 등의 내면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주요한 장치이다.

Many people live their lives while dreaming of their own ideals deep within their hearts. Various artistic mediums that we encounter greatly aid in envisioning these ideals. When I draw, I experience various kinds of joy, and one of them is bringing forth different subjects from popular media into my artwork and unfolding them in my own imaginative space. This place that always exists in my mind becomes a "vessel" for my spirit, providing direction for my life when I create the artwork, becoming a place where the order of a world coexisting and prospering with all the people I love is applied. The stories I embed within my paintings gradually seep out through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 blossoming through empathy.

In my recent works, I mainly empathize with characters who are lonely, anguished, and isolated. These characters meet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in a multiverse, engaging in time travel and camping together to find solace. Instant noodles (ramyeon)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is camping scene, embodying universality that everyone easily relates to and unexpected joy shared by the characters. Moreover, this camping scene serves as a crucial device in revealing the inner stories of characters, much like in mov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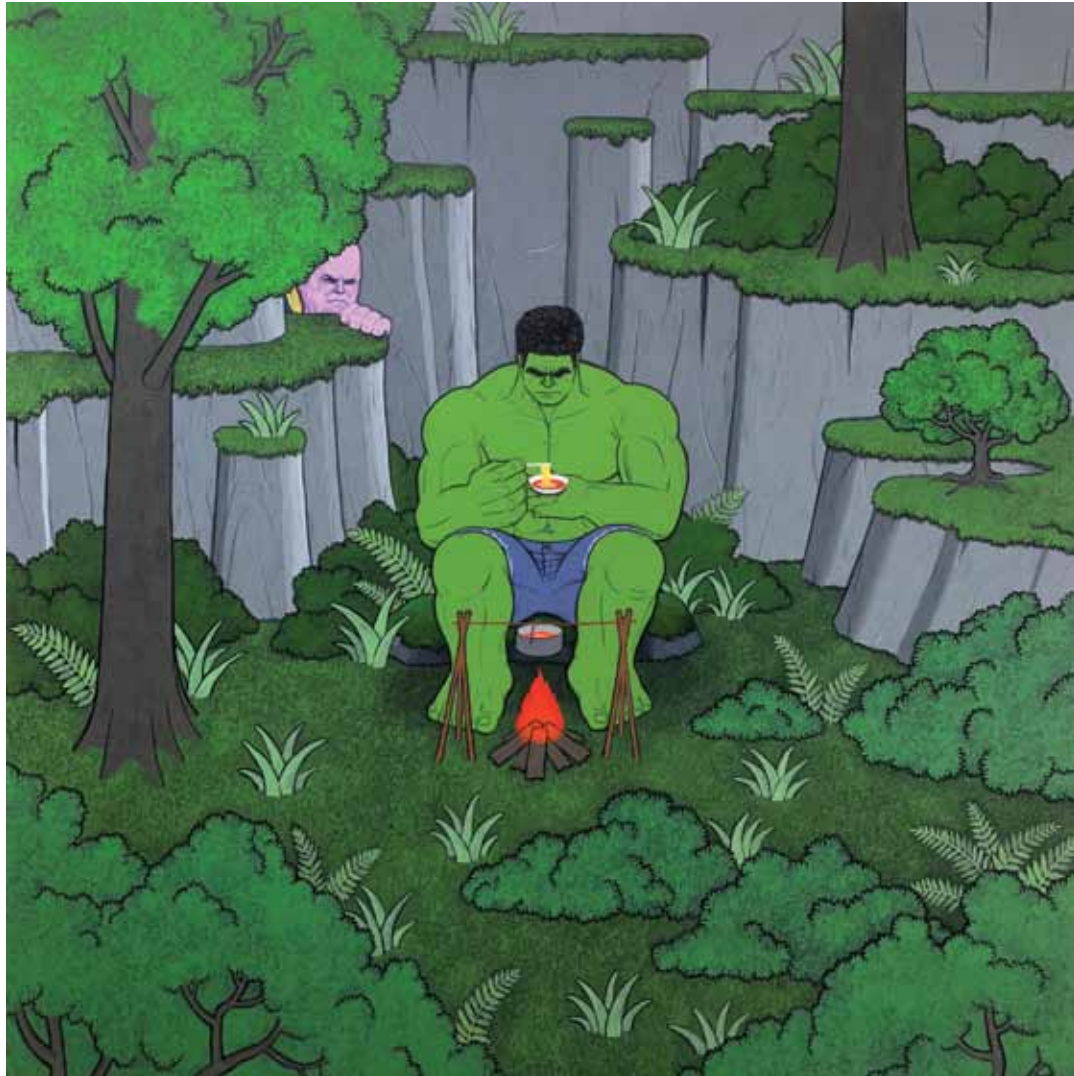


RNB  
acrylic on canvas  
117×91cm  
2022

# 평론 Critique

이선영 Lee Sun Young

미술평론가 Art Cri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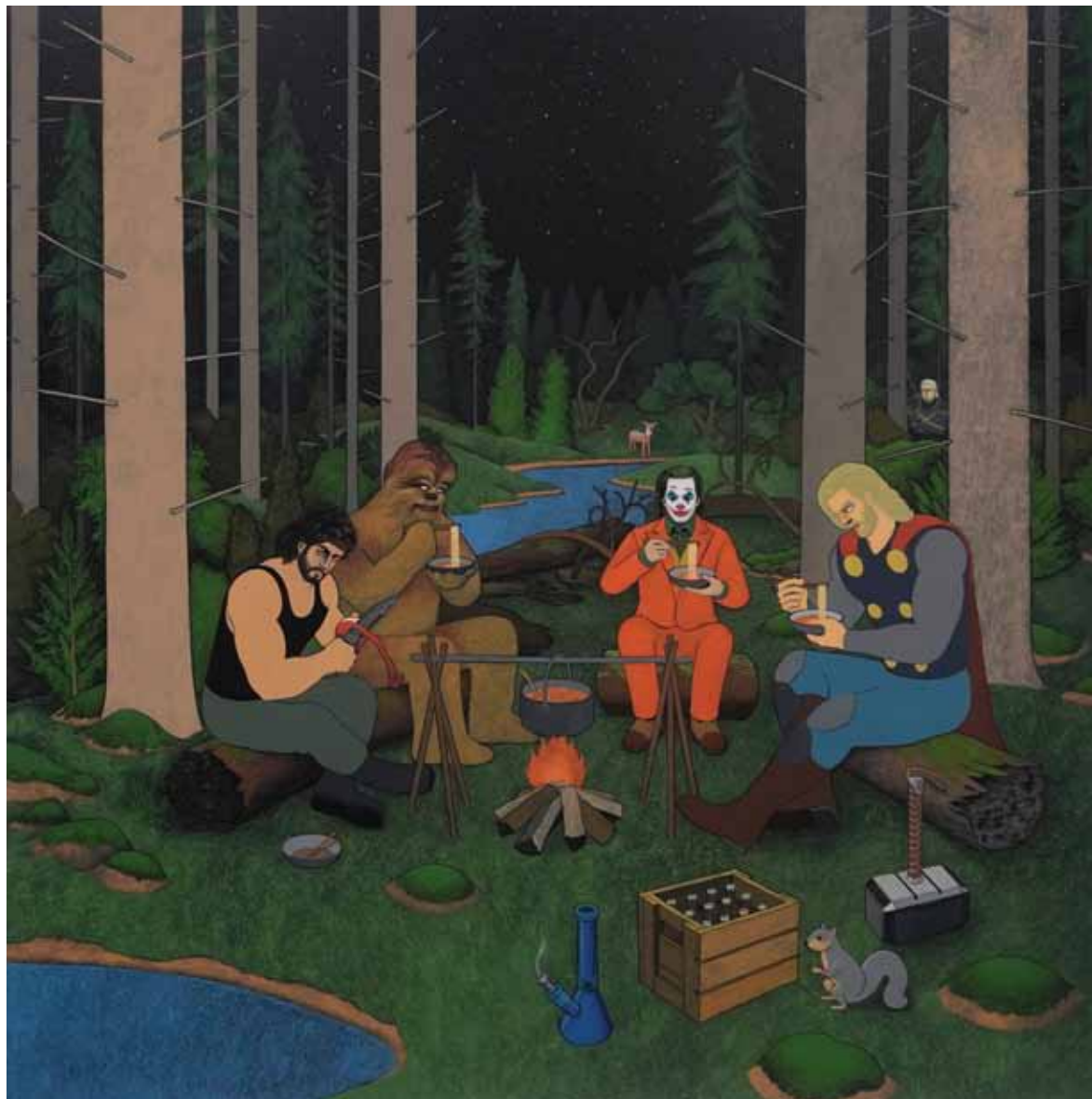
RNB  
acrylic on canvas, 60.7cm × 60.7cm, 2023

헉슬리가 소설로 그려낸 바 있는 [멋진 신세계](1932)에는 몸에 해가 전혀 없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전능한 약이 등장한다. 헉슬리는 이후에 환각체험을 하면서 '사이키델릭'으로 대표되는 1960년대 하위 문화의 고전이 된 [인식의 문]과 [천국과 지옥]을 발표 한 바 있다. 예술은 의식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인식의 문'을 여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진부한 현실은 '무한하고 신성한 존재로 나타날 것'(블레이크)이다. 헉슬리의 서신집인 [모크샤]에 의하면, 인간은 개인의 의식으로 이루어진 구세계와 그 반대편 대양에 있는 신세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잠재의식의 신세계는 결코 식민지가 되지 않으며, 탐험되는 경우도 지극히 드물고 대개의 경우 발견되지조차 않고 있다고 한다. 신창용에게 회화는 이 광대한 미지의 영역으로 여행하는 수단이자, 그렇게 도달한 영역의 진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방식이다.

Huxley published [door to awareness] and [heaven and hell], which became classics in lower culture in the 1960s and were expressed as 'psychedelic.' Art opens a new 'door to awareness' through changes in consciousness, and based on this, old-fashioned reality will appear as 'infinite and sacred being'(Blake). According to Huxley's collection of letters [Moksha], human being consists of the old world that is formed with individual consciousness and the new world that is in the opposite ocean. The new world in this subconscious-ness can never be a colony and is rarely explored, and in most cases, is never discovered. To Shin Changyong, painting is a means to travel vast unknown areas and a strong method to show the real worth of the areas that he had reached so.

## 신창용 × 이경미

### 엄힘의 장면들 - 신창용의 멀티버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RNB  
acrylic on canvas, 130×130cm, 2022

조커, 토르, Chewbacca와 램보. 이들은 지나치게 대중적이고 엄청나게 상업적인 캐릭터들이다. 20세기의 미국 대중문화 부흥을 함께 한 '코믹스'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접수하는 각종 히어로물로 이어지며, 이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두의 삶에 침투해있다. 아이콘이 되어버린 존재들은 잘 알려진 만큼 "플랫한" 존재들이기도 하다. 삶의 고단함을 잠시 잊는 오락거리로서 대중매체와 미디어를 통해 지나치리 만큼 광범위하게 소비되는 그들은 그래서 알팍하다. 익숙한 도상에는 눈이 쉽게 가지만 깊이있는 사유로 이어지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여기 익숙한 하나의 장면, 신창용 작가의 <Thor, Chewbacca, Rambo and Joker>(2022) 속 풍경에 등장하는 히어로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하늘에 별이 총총 박힌 어느 밤 모닥불 앞에 모여앉은 이들은 라면을 끓여 먹고 사과를 깎는다. 그들 주위에는 맥주 한잔과 물담배가 놓여있고, 토르의 망치 몰니르가 바닥에 있다. 저 멀리 숲에는 위쳐의 주인공 '게를트'가 이 장면을 훑쳐보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가? 보는 이를 당황하게 만드는 수상한 장면이다. 어떠한 연유로 이들이 함께 있는지 상황을 유추해보려는 사이 화면 속 인물들은 다시금 불륨감을 갖는다.

맨 왼쪽에서 사과를 깎고있는 '램보'는 베트남 참전용사로서 지역마을에서 억울한 다툼을 가지는 인물이다(영화 <램보 1>).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먼저 시작했을 뿐이라고요."라는 대사처럼, 1960~70년대 미국의 정치 상황 속에 인간병기로 활용되었던 젊은이들을 상징하며 당시 사회의 냉소를 비판한다. 기관총을 쏘아대는 액션의 이면에는 반전주의에 관한 시대적 정서가 드러난다.

한편 SF 영화의 본격적인 흥행을 알린 스타워즈는 미소 냉전 시대에 발발한 우주전쟁의 열기와 연결된다. '루크 스카이워커', '한 솔로'와 함께 모험을 이어가는 외계인 종족인 '츄바카'는 검은 헬멧을 쓴 '다스 베이더'와 제국 일당을 물리친다. 이는 독일 나치와 일본 제국주의, 소련의 파시즘에 대항하고 군비와 기술력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미국의 시대정신과 맞닿는다. 미국 코믹스를 대표하는 양대산맥 DC 코믹스의 '조커'와 마블 코믹스의 '토르'는 또 어떠한가. 조커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광대 출신의 아서 플렉이 겪는 삶의 고단함에서 파괴적 힘을 발견한다. 신이자 영웅으로 추대받던 토르는 지구로 추방당해 힘이 사라졌던 무력감에서 점차 깨어나며 천동 번개를 치고 비바람을 부리며 자신의 힘을 되찾는다. 이처럼 이들 각자는 목적인 세계관을 가진채 살아간다. 작가의 말대로 저마다 다른 '3고(고립, 고뇌, 고독)'를 겪으며 서사를 만들어 나간다. 체제와 계급에 대항하며 살아갈 존재이유를 각자 찾아 나선다. '멀티버스 프로젝트'라고 명명되는 이 일련의 작업들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인물들이 화면에 다같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만남에 의미를 찾으려는 당신의 시도는 미끄러진다. 그들 사이에는 어떠한 교류나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동공이 풀린 채(검은자위가 없다!) 그들은 그저 눈앞의 일에 몰두할 뿐이다. 여기서 다시금 우리는 질문한다. 다른 세계관의 존재들이 굳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작가의 작업 속 멀티버스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히어로물에 나오는 맥락을 우선 살펴보자면, 다중우주, 더 정확히 말하자면 평행우주를 뜻한다. 이는 '닥터 스트레인지'를 필두로 '스파이더맨3: 노웨어맨' 등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며 영화 안으로 소환되기 시작했다.



RNB, acrylic on canvas, 145.5 X 112cm, 2022

실제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의 평행우주 속 지구는 80만 개가 넘는다.(예를 들면 무법천지의 황무지에서 늙은 울버린의 삶을 그린 '울드맨 로건'의 세계는 '807128' 숫자가 달린 지구이다.) 또한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포켓디멘션'과 같은 다른 차원의 세계도 존재한다. 이처럼 히어로물에서는 다른 차원 간의 간섭 및 교류가 가능한 세계를 구현한다. 이를 설득하기 위해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여러개의 다중우주가 무한하게 존재한다는 '다중우주론'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같은 모습을 가지고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우주가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는 '평행세계'가 추가되며 시공간을 가볍게 뛰어 넘는다. 이를 통해 스토리가 무한하게 확장되며 소비되도록 한다.

그렇다면 작가가 활용하는 멀티버스의 전략은 무엇일까. 여기서는 등장 캐릭터가 지닌 고유의 서사를 뒤섞어 버리며 새로운 내러티브를 생성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낸다. 예상 밖의 조우와 얽힘이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주는 의외성은 작업 전체를 관통하는 작가 특유의 '위트'와 연결된다. 예를 들면 아놀드 뵉클린(Arnold Bocklin)의 <죽음의 섬>(1880~1886)을 패러디한 작품 <Into the Arnold Bocklin's Painting>(2020)에서는 원작의 침울한 분위기와 대조되는 캐릭터가 등장한다. 남편을 잃은 미망인 대신에 '이소룡'을 앞세우고, 남편의 관 대신에 무기상자를 둔다. 배가 향하는 섬은 새로운 미션을 진행하는 게임의 무대가 된다. '죽음'과 '장례의식'이라는 기존의 서사는 작가가 투입한 인물들과 만나며 새로운 층위, 다시 말해 이별의 슬픔이 주는 침묵이 게임이 펼쳐질 설렘과 흥분으로 대체된다.

한편 <The Last Supper>(2022)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1495-1497)의 유명한 도상을 가져온다. 여기서는 예수와 열두 제자 대신에 빌런들이 자리한다. 식탁 위 라면 그릇들은 텅 비어있고 라면을 먹고 있는 예수 '조커'와 의심하는 도마 대신에 '핑거스냅(우주생명체의 절반을 몰살시키는 힘을 작동시키는 제스처)'하는 '타노스', 예수 쪽으로 얼굴을 쪽 뺀 베드로 자리에는 '베놈'이 허를 날름거리고 있다. '예수를 팔아넘긴 자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심오한 질문은 '언제까지 먹을건데?'라는 일상의 물음으로 대체되는 듯 하다.

히어로와 빌런은 이미지가 소비되는 시대의 중심에 있다.

멀티버스는 그들의 소비를 가속화하며 전략적으로 미디어에서 활용된다. 그러나 신창용의 회화에서 인물들이 얽히는 풍경은 기존의 이미지나 시퀀스의 일부를 반복, 재생산하며 재맥락화한다. 그들을 기존의 이미지 그대로 소비하는 대신 인식의 틀을 바꾸는 행위의 과정으로 매개한다. 이러한 패러디의 전략은 전작에서도 포착된다. 각 인물이 원래의 시공간에서 보여지는 작업들(2015년 작 <Bruce Lee and Car>, <Give me Water>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작가 본인이 종종 화면에 등장했다. 다시 말해 작가의 세계와 히어로의 세계가 캔버스 안에서 조우하며 개념적으로 점점 이루어졌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작가의 작업이 애초부터 다른 세계관 속 존재들이 만나는 무대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점차 캐릭터들로만 화면이 채워진 이유는 히어로와 작가가 (작가에게) 동일시되면서부터다. 결국 '멀티버스 프로젝트'에는 히어로, 빌런과 작가 본인이 각자의 세계관을 허물며 한자리에 모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는 이에게 새로운 인식의 지평 속으로 초대한다.

## Changyong Shin × Mia Kyoungmi Lee

### Scenes of Entanglement - Focusing on Changyong Shin's Multiverse Project

Joker, Thor, Chewbacca, and Rambo. These characters are excessively popular and incredibly commercialized. They originated in the world of comics, which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revival of 20th-century American pop culture. From there, they transitioned into various blockbuster films and superhero stories that dominate multiplex cinemas today, permeating the lives of everyone in the 21st century. As iconic figures, they have become widely recognized and, in a way, "flat" entities. They serve as a momentary escape from the weariness of life, consumed extensively through mass media and entertainment, which can make them appear shallow. They are so familiar that our attention is easily drawn to them, but delving deeper into profound contemplation is not as straightforward.

However, in one familiar scene from the artwork "Thor, Chewbacca, Rambo, and Joker" (2022) by artist Shin Chang-yong, the superheroes captured our gaze. On a night with stars twinkling in the sky, they gather around a bonfire, boiling instant noodles and carving apples. Around them, there are beer bottles and water pipes, while Thor's hammer Mjolnir lies on the ground. Far away in the forest, the protagonist from "The Witcher," Geralt, is clandestinely observing this scene. What is about to happen? This enigmatic scene leaves viewers puzzled. As they attempt

to deduce the reasons for these characters being together, the figures in the artwork regain a sense of vitality, once again drawing attention.

On the far left, "Rambo," who is carving the apple, represents a Vietnam War veteran involved in unjust conflicts in the local villages (from the movie "First Blood"). "They drew first blood, not me." As evident from this dialogue, Rambo symbolizes the young individuals who were exploited as human weapons within the political context of the 1960s and 1970s United States, and he criticizes the cynicism of society during that era. Behind the action of shooting machine guns, the underlying sentiment of pacifism becomes evident. On the other hand, "Star Wars," a science fiction movie that marked the beginning of a massive success, is connected to the fervor of the Space Race during the Cold War era. Together with "Luke Skywalker" and "Han Solo," the extraterrestrial species "Chewbacca" overcomes the evil forces represented by the black-helmeted "Darth Vader" and the Empire. This narrative aligns with the spirit of the United States, which opposed the German Nazis, Japanese imperialism, and Soviet fascism, and sought to dominate in arms and technology. How about "Joker" and "Thor" from the two major veins of American comics, DC Comics and Marvel Comics? Joker (Arthur Fleck), from a background

of poverty and as a former clown, discovers destructive power amidst the hardships of his life, presenting a portrait of the struggles he endures. Thor, who was once regarded as a god and hero, is banished to Earth, losing his powers and grappling with a sense of powerlessness. However, he gradually awakens and regains his strength, wielding thunder and lightning, symbolizing the journey of self-discovery and empower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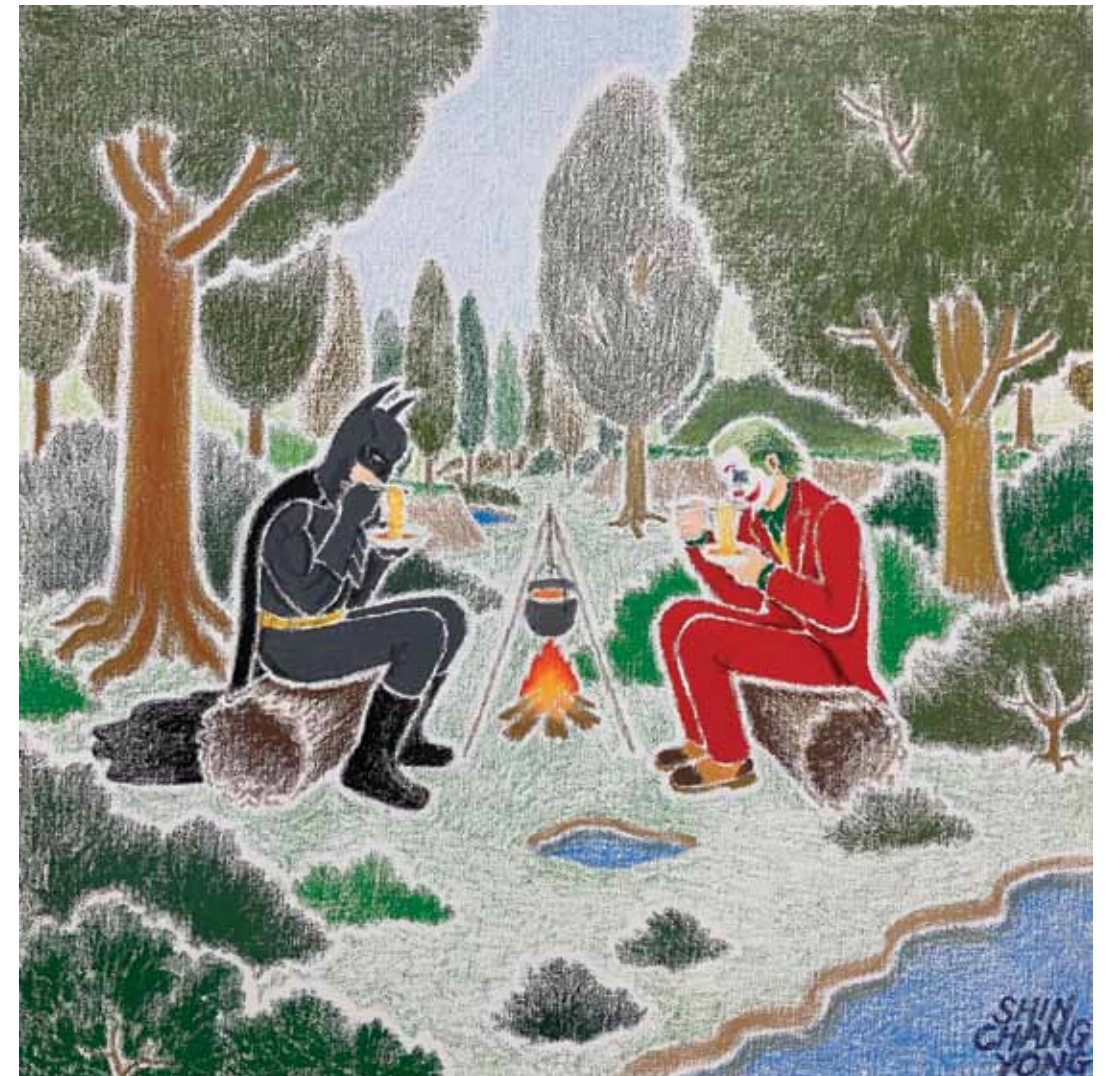
In this way, each of them lives with a profound worldview, creating their own narrative while facing different "three difficulties (isolation, suffering, and solitude)," as the artist described. They confront systems and social classes, seeking their own reasons for existence. In the series of works known as the "Multiverse Project," characters from completely different worlds appear together on the screen. However, your attempt to find meaning in this "historic" encounter slips away. There is no exchange or interaction among them, as they remain absorbed in their immediate tasks. With wide-open eyes (lacking black pupils!), they are simply engrossed in what is right in front of them. Here, once again, we question: What does it mean for beings from different worldviews to gather in one place?

Before exploring the meaning of the multiverse in the artist's works, let's first examine the context of its appearance in superhero stories. The term "multiverse," more precisely, refers to parallel universes. It began to be directly introduced into superhero narratives, led by "Doctor Strange," and appeared in films such as "Spider-Man 3." In the Marvel Cinematic Universe (MCU), there are over 800,000 parallel Earths within the multiverse. For instance, in the wasteland of "Old Man Logan," which depicts the life of an elderly Wolverine, it is set in a world labeled with the

number "807128." Additionally, there are other concepts like "pocket dimensions," representing different dimensions of existence. In superhero stories, the concept of multiple universes allows for interference and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dimensions, creating a multitude of worlds. To justify this, the idea of an infinite number of multiple universes, known as the "multiverse theory," is required. Furthermore, the concept of "parallel worlds" adds to the narrative, suggesting that there are countless universes with the same appearances and shared timelines, enabling them to traverse time and space freely. This endless expansion of the storyline and consumption is achieved through these concepts.

Shin Chang-yong's strategy of utilizing the multiverse involves intertwining the unique narratives of the characters to create new narratives. The unexpected encounters and entanglements in the artwork generate a sense of surprise, which is connected to his characteristic wit that runs through the entire work. For example, in the artwork "Into the Arnold Böcklin's Painting" (2020), which parodies Arnold Böcklin's "Isle of the Dead" (1880-1886), contrasting characters appear in stark contrast to the somber atmosphere of the original painting. Instead of a grieving widow, there is Bruce Lee in the foreground, and a weapons box replaces the husband's coffin. The island towards which the boat is heading becomes the stage for a new mission in the game. The existing narratives of "death" and "funeral rites" are replaced by new layers, where the sorrow of parting is replaced by the excitement and thrill of the unfolding game.

In "The Last Supper" (2022), the artwork draws inspiration from Leonardo da Vinci's "The Last Supper" (1495-1497). However, instead of featuring Jesus and the twelve disciples, it



RNB  
oil pastel on canvas, 50cm×50cm, 2023



RNB  
oil pastel on canvas, 162.2cm×130.3cm, 2023

portrays villains taking their places. The table that was once filled with important religious figures is now occupied by characters like "Joker," who is depicted eating instant ramen, and "Thanos," who is making the "Finger Snap" gesture, symbolizing his power to wipe out half of all life forms in the universe. In the seat of Peter, who traditionally sits next to Jesus, there is "Venom," sticking out his tongue menacingly. The profound question of "Who betrayed Jesus?" is seemingly replaced by a mundane inquiry like "When will we finish eating?"

At the center of the contemporary era where images are consumed, there are heroes and villains. The multiverse accelerates their consumption and strategically utilizes them in the media. However, in Shin's artworks, the entanglement of characters recontextualizes and reproduces certain parts of existing images or sequences. Instead of simply consuming

them as they are, the process acts as a means to change the framework of perception. This parodic strategy is also evident in the artist's previous works. While his earlier works often featured various characters shown within their original spacetime (such as the works "Bruce Lee and Car" and "Give Me Water" in 2015), the artist himself would occasionally appear in the paintings. In other words, the artist's world and the world of heroes would converge conceptually on the canvas. The reason why the screen gradually became filled with only characters is because the hero and the artist became identified with each other (to the artist). Ultimately, in the "Multiverse Project," heroes, villains, and the artist himself converge, each dismantling their own worldviews, coming together in one place. Through this, they invite the viewers into new horizons of perception.



Skill of flying  
acrylic on canvas  
73cm×60cm  
2022



**학력**

- 2006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와 졸업
- 2003 홍익대학교 회화와 졸업

**개인전**

- 2023 통인화랑 "multiverse"(9.6 ~ 10.1)
- 2021 아트비트 갤러리 "toy painting"(9.1 ~ 9.21)
- 2020 인영갤러리 "황상의 섬"(9.2 ~ 9.20)
- 2019 교보문고 합정 아트월 "신창용展"(2.19 ~ 5.12)
- 2016 가나아트파크 "덕화" (10.7 ~ 2017. 2.19)
- 2011 베이징 MK2 SPACE "검은 가마솥" (7.23 ~ 8.20)
- 2009 텔레비전 12 "Smells like Sasquatch" (9.12 ~ 10. 3)
- 2008 갤러리 쌤지 "잊혀지지 않는다." (11.12 ~ 11.30)
- 2007 선 컨템포러리 "강한것, 멋진것 그리고 아름다운것" (11.14 ~ 11.27)
- 2005 쌤지 스페이스 "절대무적" (9.13 ~ 11.5)
- 2017 서울 시립미술관 "경계 155"(12.5 ~ 2018.3.5)
- 2017 북서울 시립 미술관 "덕후 프로젝트"(4.11 ~ 7.9)
- 2017 미국 글렌데일 중앙도서관 "위안부의 날 기념 특별전" (7.21 ~ 9.9)
- 2016 수원 시립 아이파크 미술관 '플레이 아트'(4.28 ~ 8.21)
- 2014 태도가 형식이 될때 "서울 시립미술관"(13.12.24 ~ 14.2.2)
- 2012 소마미술관 "만화로 보는 세상"(4.5 ~ 6.17)
- 2010 경남 도립미술관 "신나는 미술관-현대팝아트의 신비로운 세계"(6.4 ~ 8.15)
- 2007 쌤지 스페이스 "작업실" 오픈스튜디오 (3.15 ~ 3.22)
- 2006 금호미술관 "who are you" (7.21 ~ 9.17)

**단체전**

- 2023 공간 와디즈 "ARTN Edition"(8.21 ~ 9.3)
- 2023 스페이스 슈퍼노말 "2인전"(6.14 ~ 7.8)
- 2023 케이옥션 "NFT도시 x 케이옥션" (6.3 ~ 6.13)
- 2023 아트 스페이스 호화 "하얀벽의 고백"(3.18 ~ 4.8)
- 2023 아트앤에디션 "FACE"(3.9 ~ 4.8)
- 2023 부산 벡스코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3.2 ~ 3.4)
- 2023 마포문화센터 "로큰롤 르네상스(경록절 전시)"(2.7 ~ 2.12)
- 2022 토탈 미술관 "TOTAL SUPPORT 2022"(10.12 ~ 10.18)
- 2022 갤러리 사지 "아트 캠핑"(8.5 ~ 9.16)
- 2022 대전 신세계 갤러리 "happy pop"(7.13 ~ 8.12)
- 2022 BK 갤러리 "THIRSTY ENTHUSIASM"(4.21 ~ 5.12)
- 2022 더 현대 서울 "더 컬렉션"(3.8 ~ 3.13)
- 2021 통인화랑 "face to face"(12.3 ~ 22.1.2)
- 2020 오산시립미술관 "뉴노멀시대의 미술"(9.29 ~ 2021.1.10)
- 2020 슈퍼리어 갤러리 "슈퍼 컬렉션"(6.17 ~ 7.29)
- 2020 성남큐브미술관 "명랑미술관"(5.22 ~ 7.26)
- 2020 호반아트리움 아트살롱 "순정5\_태도와 화법"(1.29 ~ 2.29)
- 2019 대안공간 루프 "거역장차"(12.4 ~ 12.13)
- 2019 제주조각공원 "현대미술로 바라본 여성인권 이야기\_ 위안부 전시"(4.10 ~ 5.13)
- 2019 플레이스 막 "비문증"(8.9 ~ 8.30)
- 2019 오산시립미술관 "쿤스트 콘서트"(10.18 ~ 10.27)
- 2018 교보아트 스페이스 "20세기 소년소녀"(7.3 ~ 8.26)
- 2018 돈의문 박물관 "쌤지스페이스 1998-2008-2018: 여전히 무서운 아이들"(9.14 ~ 9.26)

**레지던시**

- 2022 호반문화재단 H ART LAB
- 2012 베이징 헤이차오 콜라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 2009 베이징 레드게이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 2008 베이징창작스튜디오 (CSB) 강남대학교
- 2006 쌤지스페이스 레지던시 프로그램 8기

**주요 작품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시립 미술관, 수원 시립미술관, 오산 시립미술관 등

**Education**

- 2006 Graduate School of Hong-Ik Univ., M.F.A. in Seoul, Korea
- 2003 Graduated Department of Painting,, Hong-Ik Univ., B.F.A. in Seoul, Korea

**Solo Exhibition**

- 2023 Tongin Gallery "multiverse"(9.6 ~ 10.1)
- 2021 Artbit Gallery "Toy Painting"(9.1 ~9.21)
- 2020 Inyoung Gallery "Miracle Island"(9.2 ~9.20)
- 2019 2019 Kyo Bo Hapjoeng art wall " Shin Chang Yong" (2.19 ~ 5.12)
- 2016 Gana Artpark "Nerd Painting 6" (10.7 ~ 2017. 2.19)
- 2011 Beijing MK2 SPACE "Black Cauldron" (7.23 ~ 8.20)
- 2009 Television 12 "Smells like Sasquatch" (9.12 ~ 10. 3)
- 2008 Gallery Ssamzie "Don `t Forget" (11.12 ~ 11.30)
- 2007 Gallery SUN contemporary "Invincible, Charismatic and Spectacle" (11.14~11.27)
- 2005 SSamzie Space Annual Emerging "Absolutely Invincible" (9.13 ~ 11.5)

**Group Exhibition**

- 2023 Space Wadiz "ARTN Edition"(8.21 ~ 9.3)
- 2023 Space Supernormal "two-person exhibition" (6.14 ~ 7.8)
- 2023 K auction "NFT dosi x K auction" (6.3 ~ 6.13)
- 2023 Art space Hohwa "Confessions of a White Wall" (3.18 ~ 4.8)
- 2023 ArtN edition "FACE"(3.9 ~ 4.8)
- 2023 Busan Bexco "BAMA"(3.2 ~ 3.4)
- 2022 Total Museum "TOTAL SUPPORT 2022" (10.12 ~ 10.18)
- 2022 Gallery Sagic "Art Camping"(8.5 ~ 9.16)
- 2022 Daejeon Shinsegae Gallery "happy pop" (7.13 ~ 8.12)
- 2022 BK Gallery "THIRSTY ENTHUSIASM"(4.21 ~ 5.12)
- 2022 The Hyundai Seoul "The Collection"(3.8 ~ 3.13)
- 2021 Tongin Gallery "face to face"(12.3 ~ 22.1.2)
- 2020 Osan Museum of Art"Art of New Normal age" (9.29 ~ 2021.1.10)
- 2020 Superier Gallery "Supet Collection"(6.17 ~ 7.29)
- 2020 Sungnam Cube Museum of Art "Myungrang Museum of Art"(5.22 ~ 7.26)
- 2020 HOBAN Artrium Art Salon "purity 5\_attitude and painting"(1.29 ~ 2.29)

- 2019 alternative space loop "virtual memory" (12.04 ~ 12.13)
- 2019 Jeju Sculpture Park"Woman`s right story through the contemporary art"(4.10 ~ 5.13)
- 2019 MARK 69 "REMARKABLE"(11.27 ~ 11.30)
- 2019 Osan Museum of Art "Kunst Concert"(10.18 ~ 10.27)
- 2018 Kyo Bo Art Space "20 Centry Boy and Girl" (7.3 ~ 8.26)
- 2018 dm village "ssamzie space 1998-2008-2018" (9.14 ~ 9.26)
- 2017 Seoul Museum of Art "BORDER 155"(12.5 ~ 2018. 2.5)
- 2017 Buk Seoul Museum of Art "DUKHOO PROJECT" (4.11 ~ 7.9)
- 2017 library of Glendale city "do the right thing : (dis)comfort women"(7,21 ~ 9.22)
- 2016 SUWON IPARK MUSEUM OF ART "PLAY ART"(4.28 ~ 8.21)
- 2014 WHEN ATTITUDES BECOME FORM "Seoul Museum of Art"(13.12.24 ~ 14.2.2)
- 2012 Soma Museum "만화로 보는 세상"(4.5 ~ 6.17)
- 2010 GYEONGNAM ART MUSEUM "pop art exhibition"(5.1 ~ 8.15)
- 2007 SSamzie Space "Studio" Open Studio (3.15 ~ 3.22)
- 2006 Kumho Museum of Art "Who are you" (7.21 ~ 9.17)

**Residency Program**

- 2022 Hoban H ART LAB
- 2012 Beijing hei-qiao Residency Program
- 2009 Beijing REDGATE Residency Program
- 2008 Creative Studio In Beijing (CSB)Kangnam University
- 2006 SSamzie Space Artist Residency Program, Seoul

**Collection of works**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museum of art, Suwon museum of art, Osan museum of art etc.

이연숙  
Yeonsook Lee



좌: 엄마의 땀상\_엄마가 든 레이스커버, 레진, 아크릴물, 가변설치, 2020  
우: Reflective reflection\_영상 (loop), 미러, 스테인리스 스틸, 가변설치, 2020  
left: Mother's table\_mom's handmade race cover, resin, acryl pipe,variable size, 2020  
right: Reflective reflection\_video(loop), mirror, stainless steel panel,variable size, 2020

# 작가노트

주된 관심사는 기억 속 이미지가 현재의 특정 시공간의 영향을 받아 변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절과 재조합에 대한 내러티브이다. 불온전한 기억의 본질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간과되는 사소한 기호들을 발견하고 조작하여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현재와 과거의 간섭을 시도한다.

독일 벵크시장에서 구입하게 된 유리 필름 속 무명인의 사진들을 관찰하면서 개인사적 기록을 통해 그 당시의 시간과 사건을 유추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재 속 과거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건이라는 관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이러한 관심은 2011년 말 독일에서부터 시도해 온 장소 특정적 설치로 확장되고, 특정 장소가 보여주는 건축적 공간의 축적된 기억을 사적인 경험에 투영한 것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면, 수집된 내러티브와 개인적 경험에 드러난 건축적 요소의 내부와 외부 경계인 리미널리티 개념을 차용한 공간 설치와 사적 기억과 심리적 이미지를 재조합하여 조망적 풍경처럼 표현하였다.

2013년부터 내러티브를 수집하는 프로젝트로 국내 유희 공간이나 원래의 용도가 바뀐 특정 장소를 선정하고 그 곳의 사적 역사를 수집하여 과거의 시간을 드러내며 현재 공간에 균열을 일으키고 관람자가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설치를 주로 해오고 있다.

2018년 프로젝트는 사적인 공간에 주목하였는데, 원도심 개발 아래 폐업한 막걸리 주조장이 문화공간으로 바뀌는 해동문화공간과 미용실을 선정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막걸리 주조장은 동네의 대소사와 희노애락이 함께 공존하는 마을 공동체의 역사로 보고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빛'을 컨셉으로 잡아 퇴색된 공간과 재구성한 내러티브를 반사체와 조명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미용실은 평생 다른 사람의 머리를 손질하며 살아온 60대 미용사의 삶을 반추하며 신뢰로 맺어지는 인간관계를 서로의 머리를 빗겨주는 일상적 행위의 영상으로 상징하였다.

최근 2017년 개인전은 대중적이지만 명품이 진열된 소비 공간인 백화점 1층에 위치한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전의 유희 공간이나 특정 장소와는 다르게 명품 브랜드가

자리 잡은 백화점 일층에서 감히 쓸 수 없는 비닐봉지를 재료로 일상적 소비와 장소성의 차이를 극대화하며 변형 조작되는 '가치'에 대한 의문과 소비조작의 메커니즘에 짓눌려 있는 거대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우리의 일상을 표현하였다.

즉 프로젝트는 특정 공간과 시간에 드러난 기억 속 그 어떤 가치의 전치와 재맥락화를 통해 덧붙여지는 허구적인 또 다른 내러티브를 찾고자 한다. 특정 공간을 선택하고 그 속에 있는 사회적, 역사적 사실을 수집하고 개인의 기억으로 재구성하여 시놉시스를 만든다. 그것을 바탕으로 공간 설치와 퍼포먼스로 표현하는데, '공간과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시도를 하여 공간과 개인의 축적된 이야기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내러티브화를 시도한다.

주된 형식은 오브제와 이야기의 수집을 통한 조각, 재해석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장소 특정적 설치 및 사진과 영상 도큐멘테이션이다.

기억 속에 드러난 '가치'에 대한 의문을 버려진 사물을 통해 보여주던 초기 작업이 타인의 기억을 수집하면서 유희 공간이나 폐 건축적 공간 설치로 확대되었는데, 앞으로 신작 계획은 설치와 퍼포먼스, 영상을 통한 기억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미지의 재구성 과정을 심리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기억의 해리 현상과 심리적 요인의 관계를 리서치하고 사물에 대한 병적 수집 및 집착적 증상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다. 지금까지의 작업의 대부분이 개인사적인 이야기 속 설명적인 이미지 설치 작업이었다면, 좀 더 내밀한 심리적 변화 과정을 표현해 볼 계획이다. 물리적인 공간인 외부에 심리적인 이야기를 포함하려는데, 그동안 작업했던 원래의 건축적 공간을 무대화하고, 퍼포먼스와 영상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싶다. 그리고 내러티브화 된 오브제를 전통적인 조각 재료로 재현하고 별 것 아닌 가치를 전치할 수 있는 물성의 실험을 하고자 한다. 또한 조각으로 만들어진 오브제는 그 내러티브의 공간을 재현하여 재배치하여 장소 특정적 작업 중 '장소 지향적'인 '재현'에 주목하고자 한다.

# Artist's Statement

The main focus of my work is on the narrative of segmentation and recombination that occurs as the images from memories are influenced and transformed by specific spacetime in the present. It explores the essence of impure memories and discovers and manipulates subtle symbols often overlooked in everyday life, attempting to blur the boundaries of time and space and interfere with the interferenc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While observing the photographs of anonymous individuals found in a flea market in Germany, I naturally became interes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as I attempted to deduce the time and events of that period through personal records. This interest later expanded into site-specific installations that started in Germany at the end of 2011, focusing on projecting the accumulated memories of architectural spaces shown in specific locations onto personal experiences. For example, I employed the concept of liminality, which refers to the boundary between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architectural elements, revealed through collected narratives and personal experiences. I then recombined these elements with psychological images and personal memories to express them as scenic landscapes in my spatial installations.

Since 2013, my project has been centered around collecting narratives from various locations, particularly in idle spaces or places that have undergone a change in their original purpose. I select specific sites and gather their personal histories, revealing the past while creating ruptures in the present space. My main focus has been

on creating installations that allow viewers to experience these spaces. In 2018, I turned my attention to intimate spaces. I chose a closed-down traditional makgeolli (Korean rice wine) brewery, which was transformed into the HaeDong Art & Culture Platform, as well as a beauty salon. For the makgeolli brewery project, I saw it as an opportunity to delve into the history of the local community, where joy and sorrow coexisted, and collected stories from the residents. Using the concept of "light," I expressed the revitalized space and the reconstructed narratives through reflective surfaces and lighting. For the beauty salon project, I reflected on the life of a 60-year-old hairdresser who spent a lifetime caring for other people's hair. I symbolized the trust that forms in human relationships through the everyday act of combing each other's hair in a video installation.

In 2017, my recent solo exhibition took place in a gallery located on the first floor of a department store, a consumer space with display of popular luxury goods. Unlike previous projects set in idle spaces or specific locations, this exhibition sought to maximize the contrast between everyday consumption and the location itself, using plastic bags that are seemingly out of place on the first floor of a department store dominated by luxury brands. Through the manipulation of these plastic bags, the project aimed to raise questions about the notion of "value" and the mechanisms of consumer manipulation, under the overwhelming presence of rampant consumerism and giant capitalism in our daily lives. The project revolves around seeking fictional narratives that are added through the displacement and recontextualization of certain



빛과 소리 그리고  
미러 스테인레스 스틸, 홀로그램 아크릴  
장소특정적 설치  
2020

Light and Sound and  
mirror stainlesssteel, hologram acrylic  
site-specific installation  
2020

values present in specific spaces and times. It involves selecting a particular space, collecting its social and historical facts, and reconstructing them through personal memories to create a synopsis. Based on this, the project is expressed through spatial installations and performances, attempting to explore the "movement of space and body" and presenting the accumulated stories of both the space and the individual in a way that allows for various interpretations and narratives. The main formats used are sculpture through the collection of objects and stories, reinterpreted narratives serving as a basis for site-specific installations, and documentation through photographs and videos.

In the early stages of my work, I questioned the notion of "value" as revealed in memories through discarded objects. As my projects progressed, involving the collection of other people's memories and expanding into installations in idle spaces or abandoned architectural structures, my future plans now focus on transforming the images derived from memories into sculptures through installations, performances, and videos.

I aim to approach the process of reconstructing these images using psychological methodologies. I want to research th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distortion and psychological factors, exploring pathological collecting and obsessive symptoms related to objects. While most of my previous works involved descriptive image installations within personal narratives, I now plan to delve deeper into expressing psychological transformation. I aim to incorporate psychological narratives into physical spaces, staging the original architectural spaces I worked with before and combining them with performances and video works. Moreover, I intend to recreate the narrativized objects as traditional sculptural materials, conducting experiments on the transformative properties of seemingly ordinary

values. Additionally, the sculptures created will allow me to reproduce the spatiality of their narratives and rearrange them during site-specific works, focusing on "place-oriented reproduction" within the narrative's spatial context.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아름다움  
 Woman's dance, AR, 깃털, 돌, 아크릴, 스테인리스 스틸, 향기, 센서, 서클레이터  
 가변설치  
 2022



The intolerable beauty of being  
 woman's dance, AR, feather, stone, acryl, stainless steel, inscent, sensor, circulator  
 variable size  
 2022

## 이연숙 × 고유정

### 할미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나에게

영화 파친코에서 주인공 '선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남편을 따라 넘어가 자이니치로 살아가면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억척스럽게 가리지 않고 일을 한다. 젊은 '선자'는 시장통에서 김치를 팔아 남편의 부채를 막아내며 당차게 타향살이에서 살아 남는다. 할머니 선자는 미국에서 돌아온 손주에게는 슬며시 다가가 오랜시간 내려온 뿌리에 대해 알려주고,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더듬더듬 공부하여 어설피지만 하고 싶은 말을 해낸다. 우리 기억 속에 '할머니'는 가족을 위한 그림자 같은 버팀목이면서 종종 가정의 흔들림을 지켜내는 강인한 존재였다. 《할미가(鶺鴒歌)》는 지빠귀의 작은 노래라는 뜻이면서 할머니에서부터 어머니, 그리고 작가 이연숙에게까지 전승되어오는 가족의 관습에 대한 전시이다. 본래 이연숙은 기억에 의존하여 비닐봉지, 폐허가 된 집터, 손가락, 나무, 빗소리, 깃털 등 연약한 재료를 통해 과거의 흔적을 현재의 장소에 소환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는 특히 할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한다. 한국 사회에서 '할머니', 그 중에서도 할머니를 스스로 낮춰 부르는 '할미'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생산의 역할과 함께 강한 생활력을 동시에 보여 왔다. 과거의 할머니들은 이러한 양면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느질, 뜨개질, 부엌일 등 집안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여성적인 노동으로 이어간다. 그러한 조용한 노동으로 전승되는 손끝의 습관들은 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로 다시 딸에게로 이어진다. 신여성의 물결을 타고 딸은 '엄마처럼은 살지 않겠다'지만 어느새 자신에게 배어 있는 어머니의 습관을 발견하게 된다.

이연숙은 전작들에서 모계를 통하여 전해져온 자신만의

습성들을 이야기하였다. 2017년 신세계미술제 수상작가전에서 《봉다리》를 선보여 비닐에 숨겨져 있는 기억의 역사를 다루었던 작가는 이후 연약한 사물을 주로 매체로 삼아 흔적들을 담아 왔다. 2020년 수림문화재단에서의 개인전 《안개를 그리기 전까지 안개는 없었다》에서는 어머니의 20대와 딸의 20대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딸이 어머니를 묘하게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노란 장판, 파란 날개의 선풍기, 할머니의 경대는 작가의 기억에서 시작해 관객의 기억도 함께 소환하였다. 성북도원의 전시 《Sonic Scape》에서는 나무 마루의 옥외 난간, 그리고 그 난간을 잇는 비닐과 실로 메워 가족의 실마리를 엮어냈다. 성북구청의 장위동 빈집에서 열린 《가 보면 없는 집》은 오랜 기간 비어 있던 낡은 주택을 전시장으로 하여 이불, 실 등으로 작은 집을 가득 채웠다. 방마다 턱의 높낮이가 달라 조심조심 다녀야 하고, 욕조나 부엌과 같은 곳에서도 시선이 교차하는 과정에 놓인 전형적인 한국 근대화의 상징과 같은 집에서는 유년의 기억에서 시작한 끊어질 듯 이어온 가족들의 삶이 눈앞에 그려진다.

'있다', '엮는다'와 같이 작가의 작업에는 다른 이의 골동품에서 나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예민한 감성들이 주를 이룬다. 가날프고 연약한 매체에 덧입혀진 정체성은 한국 여성들의 전형성이 반영된 것으로 오랜 기간 수행적 차원의 행위들이 켜켜이 쌓인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 (Judith Butler)는 성정체성을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구성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수행의 결과로 설명한다. 젠더란 '인습화된 행위와 반복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적 정체성'으로 단일한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수행적 '행위들'이다. 즉, 여성적 제스처가 담긴 '머리 빗기', '바느질' 등의 작업은 규제의 틀 안에서 반복된 몸의 양식화이자 반복된

행위들이다. 버틀러의 이러한 주장은 관습적 행위들을 전복시키고 규제적인 허구를 깨트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문화적 관습이 전승되어온 과정에 대해서는 이연숙의 작업에 투영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할머니의 부엌에는 소금과 설탕이 있고, 할머니가 코바늘을 뜨던 모양과 유사한 레이스가 타국의 베틀시장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할머니의 립스틱과 엄마의 립스틱이 떨어질 듯 붙을 듯 하면서 마주하는 <Soft Tension>에서는 모계 가족끼리의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보인다. 여러 장소에서 수집한 거울과 경대, 반달이 등도 기억과 사물의 수집에서 보이는 그들의 취향이 오히려 나타난다. 작가는 특히 엄마와 딸의 관계에서 한 단계 나아가 타인인 듯 아닌 듯 자신에게 켜켜이 쌓여 온 할머니의 습관적 행위들을 드러내어 코바늘, 실 등으로 전달되는 연약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관객들이 '엄마'에 대한 생각을 모은 작업을 빨래가 널려 있는 것처럼 설치한 <Her Story>는 작가의 기억 속에서 옥상에 널려 있던 하얀 기저귀들을 생각하며 만든 것이다. 작가에게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동생의 기저귀 빨래는 부지런한 엄마의 모습 그대로이다. 필자의 경우에는 할머니들이 매우 억척스러운 편이었는데, 때로는 가족의 생계까지 할머니들이 책임지기도 하여서 집안 일에서부터 밖의 일까지 하루도 쉼없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다. 노동의 강도는 어딜가나 밤낮으로 이어져 중국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할머니의 부지런한 일상이 잊혀지지 않는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나이는 1910년대, 1920년대 태생이었어서 일제 강점기부터 6.25 전쟁, 산업화와 근대화의 시기까지 안 겪어본 일이 없는 세대여서 가족들을 지켜내기 위한 행위들은 가리지 않고 실천한 경험들이 있다.

그렇게 개인의 기억과 사회적 기억이 만나는 접점을 이연숙 작가는 매항리 스튜디오에서 《Running Stage》라는 전시에서 다루었다. 1970년대 마을 여거저거에 있던 탄피를 모아 사랑방 같은 가게에 모여 고물상에 판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던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매항리에서 작가는 사격장의 폐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고군분투한 마을의 사정을 백토, 얇은 나뭇가지들로 드러냈다. 몸에 인이 박히도록 바꿀 수 없는 신체적, 문화적

습관들은 오히려 아주 작은 미시적 사물들에 작지만 명징하게 나타난다. 사적인 내러티브, 사적인 기억들은 이렇게 사회적 목소리로 파생이 된다. 그렇게 작고 미미한 목소리들은 조금씩 모여 하나의 큰 일을 도모하는 바탕이 되는데, 이렇게 작은 움직임들은 사회의 다양성을 구축하고 숨겨져 있던 이면을 드러내는 중요한 틈새가 된다. 우리가 다 스러져 가는 할머니의 몸짓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전시 《할미가》에서는 워크숍을 통해서 얻어진 엄마에 대한 인상과 소감, 한쪽에서 돌아가고 있는 작은 바람, 전시장의 위쪽에서 돌아가고 있는 붓을 맴도는 행위, 수행적인 글쓰기 등 누군가의 흔적이 모여 전시장을 이루고 있다. 엄마의 잔소리가 연상되는 밥을 챙기는 문구들은 매일 같이 만나게 되는 일상이지만 어느덧 돌아봤을 때 유사한 낱말들이 낯설게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관객들은 가족들끼리만이 알 수 있는 사적인 내러티브는 이렇게 특특 전시장 속에서 만나게 된다. 유독 정갈한 전시장소보다는 며칠을 고생하며 방청소를 하는 일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이연숙 작가에게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노동들이 하나하나 의미있게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작고 예리한 감각들이 모여 전시장을 메우게 되는데, 그것은 일상을 관찰하는 날카로운 예술가의 시선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끊임없이 작고 하찮은 과거들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큰 뜻이 없는 것 같지만 바느질을 하며 다가오거나,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거나, 머리를 빗는 몸짓은 과학적인 인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방식과 관습이 모여 문화적인 체계를 이어오기 마련인데,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에서 또다른 손으로 이어지고 전달되는 작은 일상은 엄마가 딸에게, 그리고 그 다음 딸에게, 다시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내밀한 진실들이다. 작가는 이러한 방법으로 할머니를 연상시키는 다양한 수집적인 체계에서부터 파편적인 장면들이지만 그것을 전시장에 놓음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과정을 체화시킨다.

막내 여동생의 기저귀가 우리 집 옥상에 걸려 있다.  
 My youngest sister's diaper is hanging on the roof of my house.



사실, 끼어진, 사실적-Memory from the garage  
 16:30:00 영상, 천 기저귀  
 2015

Past, Present, Futer-Memory from the garage  
 16:30:00 video, cloth diapers  
 2015

## Yeonsook Lee × Yoonjeong Koh

From Halmi(Mother's mother) to Mother, and to Me

In the drama "Pachinko," the protagonist Sunja follows her husband to Japan and lives as a "Zainichi" (literally "residing in Japan") while working tirelessly to protect her family. Sunja sells kimchi confidently at the market to support her family while her husband is away. As she becomes a grandmother, she takes it upon herself to introduce her grandchild, who has returned from the United States, to their long-standing family roots. Despite her limited fluency in Japanese, she makes a concerted effort to communicate even if her Japanese language skills are not fluent. In our memories, a "grandmother" is like a pillar that supports the family and often safeguards the stability of the household. "Halmiga," which means "the song of the blackbird," is an exhibition that encompasses the family tradition passed down from grandmother to mother, and now to daughter, Yeon Lee. Her artworks always rely on memories to evoke traces of the past in the present space, using delicate materials such as plastic bags, ruins of houses, spoons, wood, the sound of rain, and feathers.

In this exhibition, Yeon Lee particularly focuses on the stories of grandmothers and mothers. In Korean society, "halmeoni" (grandmother), especially when referred to as "halmi" (a humble term for grandmother), has demonstrated remarkable resilience in the face of their role in

production within a patriarchal society. In the past, grandmothers often performed traditional feminine tasks such as sewing, knitting, and cooking, which may not have been recognized as important household duties. The habits passed down through quiet labor are inherited from grandmothers to mothers and then passed on to their daughters. Riding the wave of the new generation of women, daughters may declare, "I won't live like my mother did." However, they soon discover that their own mother's habits have quietly become ingrained within themselves.

In her previous works, Yeon Lee narrates stories about her own habits that were passed down through the maternal lineage. In 2017, at the Gwangju Shinsegae Art Festival, she presented "Bongdari," an art piece that explores the hidden memories within vinyl materials, specifically plastic bags. Since then, the artist has predominantly used fragile objects as her medium, capturing their traces. In her 2020 solo exhibition titled "Vanished Landscape" at the Surim Cultural Foundation, the artist juxtaposed images of a mother in her 20s and her daughter in her 20s. Through this comparison, she revealed the subtle resemblance that the daughter gradually develops with her mother. The yellow floor mat, the blue-winged fan, and the grandmother's old-fashioned spectacles not only evoke memories for the artist's memories



보이는 보이드  
우레탄 비닐, 종, 태슬, 매직 미러  
가변 크기  
202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커미션

Visible void  
urethane vinyl, bell, tassel, magic mirror  
variable size  
2021  
commissioned by Asia Culture Center



but also those of the spectator. In the exhibition "Sonic Scape" at SeongbukDowon, she portrays the interconnections within a family through the use of outdoor railings on a wooden deck and vinyl and string that connect those railings. In "The Vanishing House," held in Jangwi-dong, Sungbuk-gu, the artist transformed an old, small house that had been empty for a long time into an exhibition space filled with blankets, threads, and more. The house, reminiscent of the symbol of typical Korean modernization, has different levels of steps in each room, requiring carefulness and crossing gazes even in places like the bathtub and kitchen. The exhibition showcases the lives of families that seem to be intertwined with the house itself. Childhood memories, on the verge of being forgotten, are vividly portrayed before my eyes. The lives of families, seemingly disconnected yet connected by childhood memories, unfold vividly before our eyes.

The artist's work, characterized by expressions such as "connecting" and "weaving," and predominantly features delicate emotions that evoke memories associated with other people's belongings. The fragile identities overlaid on everyday objects reflect the typical roles assigned to Korean women, which have been accumulated through years of performative acts. An American philosopher, Judith Butler explains that gender identity is not a singular essential attribute, but rather a result of specific social and cultural performative acts. According to Butler, gender is constructed through learned behaviors and repetitions, forming an institutionalized identity. Gender is not something that one is born with, but rather something that is performed and learned through cultural and social practices. Indeed, acts that involve feminine gestures such as "combing hair" and "sewing" can be viewed as repetitive embodiments of the body within the

context of regulation. Butler's argument aims to subvert conventional behaviors and challenge the regulatory norms. This perspective can also be applied to the transmission of cultural traditions, as demonstrated in the works of Yeon Lee. In the grandmother's kitchen, one can find salt and sugar. Additionally, lace similar to the way grandmother used to knit may be discovered at flea markets in various countries. In "Soft Tension," the tension between the maternal family members is evident as the grandmother's lipstick and mother's lipstick seem to separate and cling at the same time. Mirrors, spectacles, and clotheslines collected from various places also reveal their owners' preferences in the collection of memories and objects. The artist delves beyond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to explore the habitual behaviors of her grandmother, which feel both familiar and unfamiliar to her. Through the use of knitting needles, thread, and other materials, she showcases both fragility and resilience simultaneously.

The artwork "Her Story" is a compilation of the spectators' thoughts on motherhood, arranged like laundry hanging out to dry. It was inspired by memories of white diapers hanging on the rooftop. Yeon Lee still vividly remembers the memory of her younger sibling's cloth diapers hanging on the clothesline, which embodies the diligent appearance of their mother. In my personal experience, both of my grandmothers were incredibly hard working. I remember observing them tirelessly managing household chores and even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family's livelihood. They worked both inside and outside the house without rest. The intensity of their labor persisted day and night, and in the end, my grandmother passed away before my grandfather did. Even after a long

time has passed, I cannot forget the bustling daily life of my grandmother. My grandparents were born in the 1910s, and they lived through significant historical events such as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Korean War, and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They had firsthand experience of doing whatever it took to protect their families and endured various challenges during that period.

The exhibition titled "Running Stage" by Yeon Lee explores the intersection where personal and collective memories converge at Maehyang-ri Studio. In the 1970s, villagers used to collect bullet casings from various places in the village and sell them to junk shops to sustain their livelihoods. Hidden within Maehyang-ri, these stories are scattered throughout the area. The artist depicts the village's long-standing struggles, starting from the closure of the shooting range. The artwork is created using local clay and thin branches, which effectively capture the village's circumstances. Immutable physical and cultural habits, so deeply ingrained that they become inseparable from the body, are reflected in even the smallest and most subtle objects. Personal narratives and private memories give rise to social voices. These small and seemingly insignificant voices gradually come together to form the foundation for significant collective actions. These subtle movements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ocial diversity and the revelation of hidden layers. That is why we must pay attention to the gestures of our disappearing grandmothers; they provide significant insights into the societal fabric.

The exhibition "Halmiga" brings together various elements to create a unique space that explores impressions and reflections on motherhood. Through workshops, a gentle breeze in one

corner, circling around the hanging pole above the exhibition space, performative writing, and the accumulation of traces from someone's presence, visitors can experience a multi-sensory journey. The exhibition also includes phrases that evoke memories of a mother's nagging, representing the everyday encounters that we all experience. However, upon reflection, these seemingly identical days appear unfamiliar, revealing the effects of the passage of time. Within the exhibition space, personal stories that are only shared among family members are presented in a relaxed manner. For Yeon Lee, who starts her day by cleaning rooms after struggling for days, the small tasks she carries out within the household hold significant meaning. As these small, sharp senses come together, they fill the exhibition space, made possible by the keen perspective of an artist who observes everyday life.

The reason we constantly reflect on small and seemingly insignificant past moments that because they carry significance. Although they may seem insignificant, actions such as sewing, making continuous circular movements, or combing one's hair may not have a scientific cause, but they can be expressive ways of conveying intentions. Cultural systems are formed and maintained through these modes of expression and traditions. By revealing these rituals, we can reflect on the path we have walked and speculate about the future. The passing down of these small daily practices, from a mother to her daughter, and then to the next generation, carries profound wisdom. Yeon Lee evokes memories of her grandmother through various accumulative systems and fragmented scenes. These are presented within the exhibition space, embodying the coexistence of the past and present.



만인의 달-강릉  
 미러 스테인레스 스틸, 모터, 카펫  
 가변설치  
 2022

Moon for everyone-Gangneung  
 mirror stainless steel, motor, carpet, light  
 variable size  
 2022

학력

- 2020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박사)졸업
- 2008 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Fine Art(MFA)졸업
- 2002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석사) 졸업
- 1999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학사) 졸업

수상, 선정

- 2023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유형3 선정, 아트앤테크&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22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유형2 선정, 아트앤테크&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22 작가 조사-연구-비평 사업, 작가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21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아이디어 기획구현 유형1 선정, 아트앤테크&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21 아트경기 작가 선정, 경기문화재단
- 2021 지역예술프로젝트 공모 출판 부문 선정, 화성문화재단
- 2020 지역예술프로젝트 공모 선정, 용인문화재단
- 2020 우수작가 선정, 경기문화재단
- 2020 수림아트랩 작가 선정, 수림문화재단
- 2018 Herstory 전시 기획 공모 선정, 광주여성재단
- 2016 국제교류지원사업 선정, 한국예술인경영센터
- 2015 서울문화재단 다원예술 기획 선정, 서울문화재단
- 2015 신세계미술제, 우수상
- 2015 오래된 집 하우스위빙 프로젝트 작가 선정, 캠퍼운데이션
- 2014 속닥속닥 대청, 내가 사는 섬 프로젝트, 인천문화재단
- 2012 SEMA 전시 지원 작가 선정, 서울시립미술관
- 2011 금호영아티스트 선정, 금호미술관
- 2011 아시아문화마루 '아시아문화메신저'선정, 문화체육관광부
- 2008 Danfoss Art Competition, 덴마크-Silver Medal 외 다수

레지던시

- 2022 H art Lab 레지던시, 호반문화재단, 서울, 한국
- 2019 메타매칭 레지던시, 성북예술창작터, 성북문화재단, 서울, 한국
- 2019 ZK/U 레지던시, 베를린, 독일
- 2018 ACC 아시아 네트워크 레지던시 기획자 참여, 아시아문화전당, 광주, 한국
- 2018 대구예술발전소 단기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한국
- 2017 신당창작스튜디오, 서울문화재단, 서울, 한국
- 2013 노마딕레지던시 프로그램 호주 공동기획 선정, 서울, 한국
- 2013 모하창작스튜디오, 울산, 한국
- 2011 스피너라이 L.I.A (Leipzig International Art Program)
- 2011 국립 고양 창작 스튜디오,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개인전

- 2022 아카이브 샐러드볼\_Storytellers from the place, 아트잠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트앤테크, 서울
- 2022 샐러드볼, 문화비축기지 T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트앤테크, 서울시, 문화비축기지, 서울
- 2022 기획 초대전<여성과 신화-터전에 관한 긴 이야기>, 할미가, 무안오승우미술관, 무안
- 2021 프로토타입\_기억공간\_몸 소리 문, 대안공간루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트앤테크, 서울
- 2021 가 보면 없는 집, 장위동 빈집, 성북문화재단,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 한국
- 2020 몸 소리 문,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주)아트주, 광주
- 2020 Running stage\_공간 그리고 그 장소, 매항리스튜디오, 화성문화재단, 화성
- 2020 Vanished landscape\_안개를 그리기 전까지 안개는 없었다, 김희수 아트센터 아트 갤러리, 수림문화재단, 서울 외 다수

기획, 초대 및 그룹전

- 2023 물의 공간,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 문의, 한국
- 2023 하얀 벽의 고백, 아트스페이스 호화, 서울, 한국
- 2023 검은 감각의 기동, 아트스페이스 호화, 서울, 한국
- 2022 채널: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 창원조각비엔날레, 성산아트홀, 창원, 한국
- 2022 모두의 조각, 성북구립 최만린 미술관, 성북문화재단, 서울, 한국
- 2022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_談정유정X이연숙, 삼각산시민청갤러리, 서울, 한국
- 2022 공진화, 강정대구현대미술제, 디아크 광장, 대구, 한국 외 다수

작품 소장

- 금호미술관, 국립미술원, 보스니아, 사라예보, 경기도 이천 도자 엑스포 조각 공원,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현대미술연구소, 광주시립미술관

Education

- 2020 Hong-ik University, Ph.D. Sculpture, Seoul
- 2008 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MFA in Fine Art, London, UK
- 2002 Hong-ik University, M.F.A. Sculpture, Seoul
- 1999 Hong-ik University, B.F.A. Sculpture, Seoul

Award & Fund

- 2023 Selected as an artist of Art and technology convergence support type 3, Arts Council Korea, Art&Tech
- 2022 Selected as an artist of Art and technology convergence support type 2, Arts Council Korea, Art&Tech
- 2022 Artist's Research and Criticism Project, selected artist, Arts Council Korea
- 2021 Selected as an artist of Art and technology convergence support idea planning implementation, Arts Council Korea, Art&Tech
- 2021 Selected as an artist of Art Gyunggi Cultural Foundation
- 2021 Selected in the publishing sector of the Regional Art Project, Hwaseong City Cultural Foundation
- 2020 Selected in the Regional Art Project, Yongin Cultural Foundation
- 2020 Selected as an excellent artist,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 2020 Selected as an artist of Soorim Aet Lab, Soorim Cultural Foundation
- 2018 Selected as a Curator of Herstory Exhibition, Gwangju Foundation for Woman & Family
- 2016 Selected as an international exchange support project,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 2015 Selected planner, Interdisciplinary art, Seoul Cultural Foundation
- 2015 ShinSeGye Art competition, Excellence award
- 2015 Selected 'House warming project', Can Foundation, Art Council Korea
- 2014 Sokdak Sokdak Daechung, Island project, Incheon Cultural Foundation
- 2012 Selected Sema artist, Seoul Museum of art
- 2011 Selected Kumho young artist, Kumho museum of art
- 2011 Selected 'Asia cultural messenger',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 2008 Danfoss Art Competition, Denmark - Silver Medal

Residency

- 2022 H art Lab residency, Hoban Cultural Foundation, Seoul
- 2019 Meta Matching Residency, Sungbuk Cultural Foundation, Sungbuk Young Art Sapce, Seoul
- 2019 ZK/U Residency, Berlin, Germany
- 2018 Participated as a curator in the ACC ASIA Network residency, Asia Cultural Center, Gwangju
- 2018 Daegu Art Factory short term artist residency program, Daegu Art Factory, Daegu
- 2017 Seoul Art Space Singdang, Seoul Foundation for

- Arts and Culture, Seoul
- 2013 NOMADIC residency program\_Australia
- 2013 MOHA residency program, Ulsan
- 2011 Leipzig International Art program, Spinnerei, Leipzig, Germany 'Asia Cultural messenger' Art residency programme Gwangju Pavillion(Suppor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Tourism, Korea), Leipzig, Germany
- 2011 The National Art Studio, run by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olo Exhibition

- 2022 Archive Salad Bowl, Storytellers from the place, Art jamsil, ARKO, seoul
- 2022 Salad Bowl, Oil Tank Culture Park T2, Arts Council Korea, Art&Tech, Seoul
- 2022 Hal Mi Ga, Muahn OH SeungWoo Museum of Art, Muahn
- 2021 Prototype\_Memory Space\_Body Sound Door, Alternative Space LOOP, Arts Council Korea, Art&Tech, Seoul
- 2021 Going but no House, Jangwidong Empty House, Sungbuk Cultural Foundation,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 Seoul
- 2020 Body Sound Door, Hollywood Creative Studio, Art Zoo, Gwangju
- 2020 Running stage\_Space and the place, Maehyangri Studio, Hwaseong City Cultural Foundation, Hwaseong
- 2020 Vanished landscape\_There was no fog until I panted it, Kimheesoo Art center Art gallery, Soorim Cultural Foundation, Seoul. etc

Invited Group Exhibition

- 2023 Voices From the Walls, ArtSpace Hohwa, Seoul
- 2023 Black Nuance, ArtSpace Hohwa, Seoul
- 2022 Channal: Wave-Partifle Duality, Changwon Sculpture Biennale, Seongsan Arthall, Changwon
- 2022 Sculpture of everyone, Choi Man Lin Museum, Seongbuk Museumof art, Seoul
- 2022 A story that bites tail after tail , Dam: YuJeong JeongXYeonSook Lee, Samgaksan Citizens Hall, Seoul
- 2022 Arts, Coevolution, Dalseong Deagu ContemporArt Art Festival, The arc, Deagu. etc

Collections

- Kumho Museum of Art National museum, Bosnia, Sarajevo Ceramic Expo Sculpture Park, Echon, Kyunggi, Korea
- Sejong si, Government Complex Contemporary Art Institution(Daegu), GwangJu Museum of Art



조영주

Youngjoo Cho

노란 벤저민과의 동거, 2022

라이브 퍼포먼스, 30분 / 안무 및 공동연출: 임은정

주연 퍼포머: 권택기, 김윤미, 명지혜, 정재우, 최규태 / 조연 퍼포머: 박종래, 이영자, 주혜숙, 천금단, 최군자

설치: 조영주 <휴먼가든텐> 2021 / 음악: 환빙 / 프로젝트 매니저: 박성연

Cohabiting with Yellow Benjamin, 2022

Live performance, 30min / Choreography & Co-direction: Eunjung Im

Leading performer: Taekki Kwon, Yun Mi Kim, Ji Hye Myeong, Jae Woo Jung, Gatai Choi

Supporting performer: Jong Rye Park, Young Ja Lee, Hye Suk Joo, Geum Dan Cheon, Gun Ja Choi

Installation: Youngjoo Cho Humangarten 2021 / Music: Vad Hahn / Project manager: Sung Yun Park

## 작가노트

서구 사회를 오가며 '이방인', '서구 사회에서의 동양 여성'의 카테고리 안에서 겪는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관계에 대해 다양한 인종, 문화권 사람들과 부딪히며 탐구했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은 한국 사회로 다시 이주하게 되면서 본인이 위치한 '한국 여성의 삶'과 '여성 작가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번져갔다. 특히, 한국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여성주의'적 이슈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작업하고 있다. 최근 작업들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인 틀 안에서 작가 개인이, 특히 여성 작가가 가지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작품으로 변환시킴으로써, 협업자, 관객과 함께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했다. 특히, 스스로 겪은 '육아' 경험을 돌봄노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조금 넓은 의미로 관객과 교감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동시에, 예술사에서 다루어진 여성 신체의 이미지와 무의식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동시대의 몸의 이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영상과 퍼포먼스 매체의 특성과 각각이 관객과 맺는 관계는 어떠한가라는 물음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다.

본인의 육아경험을 시작으로 돌봄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퍼포먼스 영상을 제작하며, 여성의 신체가 경험되는 사적인 영역과 그것을 다루는 사회적 맥락의 관계는 앞으로의 작업에도 주된 질문이 될 것이다. 여성 신체 이미지에 대한 관심은 트랜스 상태에 놓인 신체의 실제 상황과 그것이 영상 이미지로 변환되었을 때 가지는 뉘앙스에 대한 관계로 발전되었다. 매체를 통해 경험한 곳, 이산가족상봉, 입양아 찾기 등의 영상 이미지, 또 그것에 등장하는 트랜스 상태의 신체를 바라보는 자들의 조합은 특정 세대가 가지는 한국인의 정서와 부합하여, 어떠한 감정, 나아가 정동을 일으킨다. 죽음, 전쟁, 가난 등으로 가족과 단절된 여성들이 몸 곳곳에 축적했을 역사가 한 순간 폭발하는 순간의 신체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작업과 관객의 관계), 그것의 해석의 여지(사회적인 맥락에서의 의미)를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 퍼포먼스와 그것의 기록 영상을 주된 매체로 활동하던 가운데, 팬데믹 상황으로 여러 온라인 전시와

공연을 경험하면서, 퍼포먼스와 그것의 이미지(영상)의 라이브니스는 작품과 관객의 사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비자발적 트랜스 상태의 여성 신체'라는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들과 그 속에서의 '관객' 또는 '관객 역을 하는 퍼포머'는 어떠한 이미지를 연출 하고, 트랜스 상태의 퍼포머 신체와 실시간으로 어떠한 광경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를 질문하며 앞으로의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 Artist's Statement

While traversing Western societies, I delved into the internal conflicts and external relationships within the categories of "stranger" and "Asian women in Western societies," encountering diverse races and cultural backgrounds. As I returned to Korea, this curiosity extended towards exploring "the lives of Korean women" and "the identity of female writers" within the framework of my own position. Particularly, I have consistently engaged with "feminist" issues that Korean society is grappling with. Through recent works, I sought to transform personal concerns that individuals, especially female writers, hold within the societal and cultural constructs into artworks. I aimed to share these experiences with collaborators and spectator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collaborative nature of caregiving labor, stemming from my own experience of "childcare." Simultaneously, I've shown an interest in the image of the female body depicted in the art world and the unconscious consumption of contemporary body images.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video and performance medium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audiences, I've questioned how these media contribute to the discourse.

Starting from my own parenting experiences, I have created various performance videos related to caregiving lab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 realm where the female body is experienced and the societal context addressing it will remain a key question in my future works. The interest in the female body image has evolved into an exploration of nuances arising from the actual state of the body in a "trance" and how this state transforms into video imagery. The combination

of video images—experienced through the medium—depicting rituals like gut (rites performed by Korean shamans), long-distance family reunions, and the search for adopted children, along with the appearance of the "trance" state of the body, resonates with the emotions and sentiments unique to certain generations of Koreans. This combination aligns with the emotional landscape of Koreans and stirs up emotions, and sometimes profound sentiments. I aim to analyze the explosion of historical moments where women, who have been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due to death, war, poverty, etc., have accumulated these experiences in their bodies. I seek to study the body images that burst forth in these moments, the perspectives of those viewing the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 and the audience), and the potential interpretations within the societal context.

While predominantly utilizing performance and its recorded videos as my medium, the experience of various online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during the pandemic has led me to contemplate how the liveness of performance and its imagery (videos) interact between the artwork and the audience. As I plan to recreate the scenario of the "voluntary trance state of the female body," I have become intrigued by the devices required for this, and the "audience" or "performer taking on the role of the audience" within that context. I'm exploring what kind of image they might project and how the performer's body in a trance state could create real-time spectacles. These questions are guiding my future works.



진실한 관객의 제스처, 2022  
 참여형 라이브 퍼포먼스, 45분  
 안무: 임은정  
 퍼포머: 김승록, 윤상은, 임은정, 허윤경

A gesture of the sincere audience, 2022  
 Participatory performance, 45min  
 Choreographer: Eunjoung Im  
 Performer: Seungrok Kim, Sangeun Yoon, Eunjoung Im, Yunkyung Hur



디어 마이 아티스트, 2022  
 이원생중계 라이브 퍼포먼스, 30분  
 안무: 임은정  
 퍼포머: 권택기, 손병준, 이솔빛나  
 피아니스트: 양은철  
 이원 중계 영상: 최시영  
 카메라: 이선영  
 프로젝트 매니저: 박성연

Dear my artist, 2022  
 Live satellite performance, 30min  
 Choreography: Eunjoung Im  
 Performer: Taek Ki Kwon, Byung Jun Son, Solbitna Lee  
 Pianist: Eun-chul Yang  
 Two-way live broadcast: Siyoung Choi  
 Camera: Sunyoung Lee  
 Editor: Dongkuk Kim, Sunyoung Lee  
 Project manager: Sung Yun Park



세 개의 숨, 2020  
1채널 영상, 8채널 사운드 설치 (12분 37초), 함석 배기관, 라이브 퍼포먼스  
작곡: 이은지  
퍼포머: 김욱(베이스 클라리넷, 서수복(타악기),  
이동화(튜바), 정인현(알토 색소폰)  
촬영 & 편집: 이선영  
카메라: 이정훈, 최준하  
음향: 허가람  
음향 보조: 박신원

Three Breaths, 2020  
1 channel video, 8 channel sound installation, Steel metal ducts, Live performance, 12mn 37sc  
Composition: Eun-Ji Anna Lee  
Performer: Uk Kim (bass clarinet), Subok Seo (percussion),  
Donghwan Lee (tuba), In-Hyun Jung (alto saxophone)  
Filming & Editing: Sunyoung Lee  
Camera: Jeonghun Lee, Junha Choi  
Sound: Garam Heo  
Sound Assistant: Shin Won Park

## 조영주 × 이경미

### 몸의 좌표에서 해방되는 과정의 예술 - 글로벌 에일리언(Global Alien)의 세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조영주는 동시대의 몸이 사회와 관계 맺는 방식을 고민하며 관객과 감각적 경험을 나누는 것에 주목해 왔다. <꽃가라 로맨스>(2014)나 <DMG:비무장 여신들>(2015)처럼 50-60대 중년여성들과의 댄스필름 시리즈에서부터 <꿈 빠니>(2021)나 <콜레레>(2022)와 같이 돌봄의 이슈를 보여주는 근작에 이르기까지, 작가는 퍼포머티브한 움직임을 통해 그들의 몸이 어떻게 (지역)사회 및 타인과 관계 맺으며 보여지고 작동하는지 포착한다. 때로는 “뽕끼” 가득한 춤사위로, 때로는 서로를 매만지는 마사지의 행위로, 때로는 격렬한 격투와 애무를 넘나드는 신체적 접촉의 형태로 말이다. 개인들의 역동이 자리한 작업 속 정형화되지 않은 몸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감각할 수 있을까?

‘여성’이자 ‘작가’로서, 서구 사회에서 ‘이방인’이자 ‘동양인’으로서, 한국에서 출산 및 육아를 병행하며 ‘엄마’로서 작가 본인이 몸소 겪은 수많은 라벨링(labeling)의 경험처럼, 우리(그리고 작업에 등장하는 퍼포머, 관객과 주민, 혹은 작가)는 사회적 정체성이라 불리는 좌표들에 의해 규정된다. 이처럼 하나의 몸을 수놓는 좌표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그들의 몸을 규정할 수 없는 새로운 영토의 차원으로 해방시키는 경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는 작가의 작업에서 매우 핵심적인 구조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사회적 경계들을 인식함과 동시에 그 프레임을 넘나들 잠재성을 발견한다. 본고에서는 조영주 작가의 현재 프랙티스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근간이 되는 아티스트 그룹 활동을 살펴볼려 한다. 2006년부터 10년 넘게 활동해 온 국제미술그룹 ‘글로벌 에일리언(Global Alien)’이다. 베를린을 기반으로 다문화 예술가들이 함께 국가·문화·언어·계급적 경계(border)로부터

생겨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표면화시키고, 그 차이를 직면하면서 시작되는 연대의 가능성을 실험했다. 이 글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 전략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 사적 영토를 공유하기

우선 비교적 잘 알려진 작가의 초기작 <Exchanging T-shirts>를 살펴보자. 2007년 뉘른에서 첫 선을 보인 후 2008년 베를린 <Congress of Culture> 전시에서 재발표한 작업이다. 전시장을 찾은 관객은 이전에 방문했던 다른 관객이 남긴 옷과 본인의 옷을 바꿔 입고 그 티셔츠 위에 이주와 이동을 의미하는 ‘Final Destination’ 등 문구를 선택하여 인쇄하였다. 피부색과 체형에 따라 각양 각색인 몸의 외피에는 인종과 국가, 종교 및 문화, 계급 등 수많은 코드가 새겨져있고 나와 타인을 사회 안에서 구별짓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누군가의 피부에 닿았고 체취가 담긴 셔츠를 통해 다시 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사적이고 내밀한 차원에서의 만남이다. 본 작업은 사회적 인식 차원에서 피부가 지닌 경계와 구별의 지위를 허물어 낸다.

*인간의 피부는 우리 몸의 경계선이다. (...) 그러나 피부는 오직 경계만을 뜻하지 않으며, 혹은 실질적으로 전혀 경계가 아니다. 피부로 감각하고 숨을 쉬고 땀을 배출하면서 피부는 주변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기관이다...*

*Skin is the borderline of our body. (...) But the skin is not only a border, or actually not at all a border, it is an organ that connects us with the environment, we sense with the*

*skin, we breathe with skin, we transpire...*

- 『Global Alien』, 2008, p.18

글로벌 에일리언의 작업에서는 유학생,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 보트피플(난민), 1인 시위자 등 국경을 넘고 제도를 이탈한 몸들이 끊임없이 소환된다. 그러나 그들을 (소수자로서) 대상화시키지 않으려는 부단한 노력은 마치 티셔츠를 교환하는 방식과 닮아있다. 관객(의 몸)을 작업 안으로 직접 끌어들이 그들의 몸과 맞닿도록 한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규정된 일률적인 좌표들 속에서, 정의 내리기 어려운 다채로움(또는 복잡함)을 지닌 개인으로서 그들을 감각하는 것이다.

#### 언어의 안과 밖을 경유하기

앞서 작업 사례가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가장 정치적인” 경계와 그 개방을 논하였다면 두 번째로는 언어에 관한 실험들이다. 다양한 국적의 예술가들이 모인 만큼 언어가 가진 문화적 다름은 다양성을 넘어 언어가 가진 일종의 권력과 배제의 속성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2008년 <Congress of Culture> 전시가 진행된 쿤스트라움 크로이츠벡/베타니엔(Kunstraum Kreuzberg/Bethanien)은 베를린에서도 터키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곳에 위치하며, 멀티컬처를 상징하는 곳이다. <Oral Exam> 작업은 영어듣기 평가처럼 총 12개의 질문이 메가폰에서 출제되는 형식을 취한다. ‘개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친구인가?’, ‘당신은 식당에서 팁을 남기는 편인가?’, ‘10대가 용돈을 받는 것은 당연한가?’ 등의 질문은 생활 방식과 문화권, 종교적 배경에 따른 답변의 다양성을 열어놓는다. 그러나 영어로 이해하고 답해야 하는 소통 방식은 언어가 지닌 이중적 면모, 다시 말해 소통과 배제 혹은 고립을 보여준다. 2010년 <The Power of the Spoken Word> 전시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언어가 가진 권력적 속성을 논했다.

*노예에게 주인의 언어는 생각과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 소통의 매체가 아니라 그에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명령과 지배의 수단이다. 이민자나 소수자들은 주류사회의 언어를 배우도록 요구받는다. 주류 사회의 언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의 사회 통합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이들의 체류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할 만큼 중대한*

*결핍으로 여겨진다.*

- 김남시, 『언어, 경계, 지배, 차이』, 『Global Alien-The Power of the Spoken Word』, 2010, p.3

한편 “언어가 가지는 이러한 한계 혹은 장애를 예술 작품의 출발점으로 삼아 일종의 글로벌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한 작업도 전개되었다. 2012년 미국에서 개최된 <Rebus New York City-Reoccupy Language in Urban Space> 프로젝트에서는 음성언어를 소거하고 그 자리를 제스처와 드로잉으로 대체해 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거리를 돌며 ‘뉴욕에서 완벽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관한 그림 답변을 수집한 후, 전시장에서 관객으로 하여금 마스크를 쓴 채 드로잉이나 제스처를 통해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 각자의 방식으로 소통하도록 하였다. 2011년 미국에서 개최된 <희망과 실패: Investigating the American Dream>는 최면술을 통해 ‘아메리칸드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젝트였다. 무의식 상태의 몸에서 발화되는 언어를 통해 난한 꿈에 지나지 않는 ‘자유’와 ‘성공’에 관한 다양한 생각들을 경유하는 과정을 가졌다.

#### 바디 스크리닝 (Body Screening)

영화, 방송, SNS 등 다양한 미디어의 스크린 너머로 우리의 몸은 지속적으로 소비된다. 블루 스크린을 이용하고 전시장을 촬영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글로벌 에일리언의 작업에서 여러 차례 활용되던 전략이다. 2007년 뉘른스페이스에서 개최된 <Freedom of Speech> 전시는 방송 시스템을 아주 적극적으로 차용한 사례이다. 전시공간 일부는 영상 프로덕션을 위한 녹색의 블루 스크린이 되었고, 측면에는 촬영 중인 참여자의 배경이 변환되어 영상으로 재생되었다. 또한 신디사이저 악기인 테레민(theremin)에 의해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 주파수가 변하면서 다른 소리를 만들어냈다. 여기서 참여 관객은 일종의 퍼포머로서 TV 스튜디오로 변한 공간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장소들을 방문하며 새로운 맥락의 몸으로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를 기록한 영상은 이후 지역 tv를 통해 방영되었다. 또한 2008년 베를린 <Congress of Culture> 전시에서는 스크리닝, 토크, 회의 등이 벌어졌는데 이들의 행위를 CCTV를 통해 두 공간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서로





글로벌 에일리언, 2005-2015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국제 미술 그룹

Global Alien, 2005-2015  
International artists group based in Berlin



이산 신체 재회, 2022  
 이원생중계 라이브 퍼포먼스, 2채널 영상 설치, 20분, 가변크기  
 안무 & 공동연출: 임은정  
 퍼포머: 김기영, 명지혜, 박소희, 박지현, 송영선  
 음악: 한밤  
 프로젝트 매니저: 박성연

Discrete Bodies Reunite, 2022  
 Live Satellite Performance, 2 Channel Video Installation,  
 20min, Dimensions Variable  
 Choreographer&Co-director: Eunjoung Im  
 Performer: Giyoung Kim, Ji Hye Myeong, Sohee Park, Ji Hyeon Park, Young-sun Song  
 Music: Vad Hahn  
 Project manager: Sung Yun Park

다른 장소의 연결이자 감시의 구조를 만듦으로써 오늘날 미디어를 소비되는 신체 이미지에 관한 사유를 이끌었다. 이처럼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몸, 미디어에 의해 규정되는 정체성에 관한 주제는 작가의 근작 <이산, 신체, 재회>(2022)에서 여성의 신체로 구체화된다. 2 개의 다른 공간에서 각각의 라이브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일부 퍼포머는 퍼포밍 도중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도 한다. 중계 영상시스템과 크로마키, 모션 캡처 기술을 사용하여 한 장소의 퍼포머와 다른 장소의 퍼포머 신체가 중첩 및 분리되기도 한다. 스크린 너머 트랜스된 여성의 몸이 미디어에 보이는 방식을 탐구한 이 작업은 앞서 그룹활동에서 실험한 스크리닝의 다양한 기법이 고도화됨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에일리언의 작업에서 관객의 몸은 인종이나 국가, 문화, 계급 등에 관한 경계(borderline) 드러냄과 동시에 내밀하고도 사적인 영역(boundary)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매질이 된다. 더불어 언어가 지닌 소통과 배제의 이중성을 체감하는 장소가 되고, 미디어에서 소비되는 피사체로서 탐구되었다. 이를 위해 낯선 환경에 투입되거나,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기 위한 장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참여자가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정체성을 스스로 인지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실제 세계의 질서를 차용하거나 살짝 틀어버리는 방식으로 그들은 질문한다: 당신 몸에 새겨진 경계의 좌표를 흔들어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가, 협력 예술가, 참여하는 퍼포머 혹은 관객 사이의 협업적 예술 형식이 만들어진다. 각기 다른 주체들 간의 차이를 조율하는 작업 방식은 비정형적 요소들이 창발하며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에 관한 유연한 태도로 이어진다. 이는 과거 글로벌 에일리언의 활동과 현재의 개인작업을 잇는 중요한 태도이며 현재의 작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 Youngjoo Cho × Mia Kyoungmi Lee

### Art of Liberating from the Coordinates of the Body - Focusing on Three Strategies of Global Alien

Youngjoo Cho has been attentive to the ways contemporary bodies engage with society and share sensory experiences with the audience. From her dance film series featuring women in their 50s and 60s, such as *Floral Patterned Romance* (2014) and *DMG\_Demilitarized Goddesses* (2015), to her recent works like *Com pani* (2021) and *Colere* (2022), which shed light on issues of caregiving, the artist captures how these bodies interact and function within (local) communities and with others through performative movements. Sometimes filled with playful gestures, at other times engaging in massage-like acts of mutual touch, or even intense combat and affectionate embraces, these non-standardized bodies in her works embody individual dynamism. What sensations can we perceive from these bodies as they traverse various forms of bodily contact?

As a “woman” and an “artist,” Cho Young-joo has been labeled countless times due to her identity as an “alien” and an “Asian” in Western society, as well as her role as a “mother” juggling childbirth and childcare in Korea. In this way, all of us (including performers, spectators, residents, or the artist herself) are defined by coordinates known as social identities. To break free from these coordinates that embroider a singular body and create an experiential environment that

liberates them into a new territory where their bodies cannot be confined, is a crucial structure within the artist’s practice. Through this process, the artist becomes aware of social borderlines while discovering the potential to transcend those frames. To better understand the foundation underlying Youngjoo Cho’s current practice, this article examines the artist group “Global Alien,” which has been active for over a decade since 2006. Based in Berlin, this international art group brings together multicultural artists to experiment with the possibilities of solidarity that emerge from various social conflicts arising from national, cultural, linguistic, and class borderlines. This article explores three strategies employed to achieve this goal.

**Sharing Personal Territories:** Let’s examine the early work of a relatively well-known artist, *Exchanging T-shirts*. This piece was first presented in SSamzie in 2007 and later re-exhibited at the *Congress of Culture* exhibition in Berlin in 2008. When visitors entered the exhibition space, they exchanged their own clothes with garments left behind by previous visitors. They were then given the opportunity to choose phrases to be printed on the exchanged T-shirts, such as “Final Destination,” which symbolized migration and mobility. The external surface of the diverse bodies, based on skin

color and body shape, is inscribed with countless codes, encompassing race, nationality, religion, culture, and class, becoming the criteria that differentiate individuals and others within society. However, by touching the shirt that has come into contact with someone else’s skin and carries their scent, one experiences a private and intimate encounter. This work dismantles the social perceptions that create borderlines and distinctions based on the skin in the realm of social awareness.

*Skin is the borderline of our body. (...) But the skin is not only a border, or actually not at all a border, it is an organ that connects us with the environment, we sense with the skin, we breathe with skin, we transpire... - 『Global Alien』, 2008, p. 18*

In the works of Global Alien, bodies that transcend borders and depart from established systems, such as international students, migrant workers, undocumented residents, boat people (refugees), and solitary protesters, are constantly summoned. However, the diligent effort to avoid objectifying them as (minorities) is akin to the method of *Exchanging T-shirts*. The audience’s bodies are directly drawn into the artwork, making them come into contact with these bodies. Amidst the standardized coordinates dictated by social prejudices, the goal is to sense them as individuals with complexities and diversities that are difficult to define or judge.

**Transiting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of language:** In the previous discussion of the artworks, we explored the borderline that is “the most personal yet also the most political” and its openness. The second aspect to consider is the experiments concerning language. Given the gathering of artists from various nationalities, it appears that they are attentive not only to the diversity of culture that language holds but

also to its aspects of power and exclusion. For instance, during the 2008 exhibition *Congress of Culture* at Kunstraum Kreuzberg/Bethanien in Berlin, which is located in an area with a significant Turkish immigrant population and symbolizes multiculturalism, the artwork *Oral Exam* took on the format of an English listening test with a total of 12 questions being posed through a megaphone. Questions like “Is a dog man’s best friend?” “Do you tip at restaurants?” “Is it natural for teenagers to receive pocket money?” opened up the diversity of responses based on different lifestyles, cultural backgrounds, and religious beliefs. However, the communication style that required understanding and responding in English revealed the dual aspect of language, indicating both communication and exclusion or isolation. In the exhibition *The Power of the Spoken Word* in 2010, the discussion revolved around the more direct and powerful attributes of language.

*To slaves, the language of their masters is not a means of communication for sharing thoughts and emotions; instead, it is a tool of command and domination that they must obey and follow. Immigrants or minority individuals are expected to learn the language of the dominant society. Their inability to speak the dominant society’s language is regarded as a significant deficiency, raising concerns about their willingness to integrate into society and even questioning their very presence in that society. - Kim Nam-see, 『Language, Borderlines, Domination, Difference』, 『Global Alien - The Power of the Spoken Word』, 2010, p. 3*

On the other hand, there have been artworks that experiment with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 kind of global language by taking the limitations or obstacles inherent in language as the starting point. In the project *Rebus New York City* -



인간은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2021  
 라이브 퍼포먼스 (25분)  
 안무 & 공동연출: 이민경  
 퍼포머: 권택기, 명지혜, 임은정, 홍준기  
 프로젝트 매니저: 박성연

Human beings don't spring up like mushrooms , 2021  
 Live performance, 25 min  
 Choreography & Co-direction: Min Kyoung Lee  
 Performer: Taekki Kwon, Ji hye Myeong, Eunjoung Im, Jungi Hong  
 Project manager: Sung Yun Park



입술 위의 깃털, 2020  
 단채널 영상 (10분 30초), 컬러, 사운드  
 안무 & 연출: 이민경  
 퍼포머: 광혜은, 명지혜, 임은정, 장슬기  
 촬영 & 편집: 이선영  
 음향: 허가람  
 음향 보조: 박신원

Feathers on lips, 2020  
 Single channel video (10mn 30sc), color, sound  
 Choreography & Co-direction: Min Kyoung Lee  
 Performer: Kwak Hyeun, Myeong ji hye, Jang seul kee, Im Eunjoung  
 Filming & Editing: Sunyoung Lee  
 Sound: Garam Heo  
 Sound Assistant: Shin Won Park

*Reoccupy Language in Urban Space*, held in the United States in 2012, Global Alien worked on eliminating spoken language and replacing it with gestures and drawings. They roamed the streets, collecting visual responses to the question, "What is needed to have a perfect day in New York?" Then, at the exhibition space, they invited the audience to wear masks and communicate through their own methods, using drawings and gestures to indicate what they would do and where. Another project, *Hope and Failure: Investigating the American Dream*, held in the United States in 2011, involved sharing stories about the "American Dream" through hypnotism. It delved into various thoughts about "freedom" and "success," which are often just fleeting dreams, through language spoken from the unconscious body during a trance-like state.

**Body Screening:** Across various media platforms such as films, television, and social media, our bodies are continually consumed. The strategy of using blue screens and transforming exhibition spaces into film sets has been recurrently employed by Global Alien. For instance, in the exhibition *Freedom of Speech* held at SSamzie Space in 2007, the artists actively incorporated the broadcasting system. Part of the exhibition space was turned into a blue screen for video production, and participants' backgrounds were transformed and played back as videos. Additionally, a theremin, an electronic musical instrument, generated different sounds based on people's movements. Audiences assumed the role of performers in a TV studio-like space, visiting various locations of different countries through their movements, appearing as bodies in new contexts. The recorded videos were later broadcasted through local television networks. In the 2008 exhibition *Congress of Culture* in Berlin, screenings, talks, and meetings were arranged, and their actions were designed to be viewed from different spaces through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creating a connection between distinct locations and establishing a structure of surveillance, prompting contemplation on the consumption of body images in contemporary media.

In Youngjoo Cho's recent work, *Discrete, Body, Reunion* (2022), the focus is on the female body as it undergoes transformation across two different spaces through live performances. Some performers move between locations during their performances. By utilizing relay video systems, chromakey, and motion capture technology, the bodies of performers in one location are superimposed and separated from those in another. This work delves into how the transfigured female bodies beyond the screen are presented in media, showcasing a heightened refinement of the various techniques experimented with in previous group activities.

In Global Alien's artworks, the audience's bodies become a medium that reveals borderlines related to race, nationality, culture, and class while simultaneously exchanging and sharing intimate and personal boundaries. Moreover, the artworks explore the duality of language, which can be a tool for communication and exclusion. The bodies of the participants are investigated as subjects consumed by the media. To achieve this, they are constantly immersed in unfamiliar environments or presented with devices that render the familiar unfamiliar, prompting the participants to become aware of their own cultural and social identities. Additionally, by borrowing or slightly distorting the order of the real world, the artworks pose the question: "Shake the coordinates of the borderlines etched onto your body!"

Throughout this process, a collaborative artistic form emerges among the artist, collaborating artists, participating performers, or the audience. The method of reconciling differences between



나의 몸을 쓰는 것, 2019  
단채널 영상(9분 57초), 컬러, 사운드  
퍼포머: 조영주  
안무: 송주원  
음악: 김하림  
촬영 & 편집: 이선영

Writing my body, 2019  
Single channel video (9mn 57sc), color, sound  
Performer: Youngjoo Cho  
Choreographer: Joowon Song  
Music: Harim Kim  
Filmed & Edited by Sunyoung Lee

diverse participants leads to the emergence of unstructured elements and a flexible attitude toward creating meaning. This attitude serves as a vital link between Global Alien's past activities and the current individual works, providing essential indicators for understanding the present works.

## 학력

2007	파리-세르지 국립고등미술학교 DNSEP 졸업, 세르지, 프랑스
2005	파리-세르지 국립고등미술학교 DNAP 졸업, 세르지, 프랑스
2003-5	파리8대학 조형예술학과 석사과정 수학, 파리, 프랑스
2001	성균관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서양화 전공) 학사 졸업, 서울, 한국

## 주요 개인전

2021	‘그리고 다른 증인, 온라인 채널
2020	‘코튼 시대, 대안공간 루프, 서울, 한국 ‘오계(五季),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서울, 한국
2019	‘젤리비 부인의 돋보기, 플레이스막 레이저, 서울, 한국 ‘순순 만만, 기억의 집, 순천, 한국
2016	‘워터리 마담, 주인도한국문화원, 뉴델리, 인도
2014	‘우리 작은 젠더 이야기’, 스페이스 매스, 서울, 한국
2013	‘가볍게 우울한 에피소드’,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한국 ‘My public affairs’, 스페이스 매스, 서울, 한국

## 이인전

2023	‘오렌지 잠,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한국
2022	‘끈적이는 바닥, 공간 힘, 부산, 한국
2013	‘Good job Good place Good time’, 오산시립미술관 문화공장 오산, 오산, 한국

## 주요 단체전

2023	하얀 벽의 고백, 아트스페이스 호화, 서울
2022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Unfold X) ‘Shaping the future’, 에스팩토리, 서울 ‘다다익선: 즐거운 협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과천 ‘미술관의 입구: 생태통로’, 경기도미술관, 안산 ‘나는 미술관에 ㅇㅇ하러 간다,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21	‘돌봄사회’,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하나의 당김, 네 개의 눈, 공간 Type, 서울
2020	‘제20회 송은미술대상전’,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Safe House’, Maryland Art Place, 볼티모어, 미국
2019	‘Focus on X OVNI: Objectif Video Nice’, 니스, 프랑스 ‘Un-wall’, Kunstquartier Bethanien, 베를린, 독일 ‘나나랜드’, 사비나미술관, 서울
2018	‘OVNI: Objectif Video Nice’, 니스, 프랑스 ‘신여성 도착하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부드러운 권력’,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2017	‘Video Portrait’, 토탈미술관, 서울 ‘미스리와 김여사: 이영숙과 김숙자 이야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외 다수

## 수상 및 선정

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 지원금
2022	융합예술창제작지원사업 언폴드엑스 지원금, 서울문화재단, 서울
2021	서울문화재단 다원예술 창작지원금, 서울문화재단, 서울
2020	제20회 송은미술대상 대상, 송은문화재단, 서울
2017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지원금, 인천아트플랫폼, 경기 외 다수

## 레지던시

2023	델피나재단, 런던
2022	H아트랩 레지던시, 서울
2021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서울, 한국
2020	금천예술공장, 서울, 한국
2017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2015	대전테미창작센터, 대전, 한국
2014	홍티아트센터, 부산, 한국
2013	스페이스 매스 레지던시, 서울, 한국
2010	경기창작센터, 경기, 한국
2009	골드러쉬 예술가프로젝트 ‘Goldrausch Künstlerinnenprojekt art IT’, 베를린, 독일

## 출판

2023	비명꾼, 서울
2017	춤추는 여인들, 서울
2014	루와얌 섬 레지던시 프로젝트, 서울 예쁜, 까칠까칠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오산
2013	가볍게 우울한 에피소드(Mile depressive episode), 서울
2010	Global Alien ‘The power of the spoken word’, 베를린
2009	Youngjoo Cho ‘Splendid Isolation’-Goldrausch 2009, 베를린
2008	Global Alien-GA1,GA2, GA3, Traktor Verlag, 베를린

##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서서울  
송은문화재단, 수원시립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 Education

2007	DNSEP,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s de Paris Cergy
2005	DNAP,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s de Paris Cergy
2003-5	Studies in Master of Fine Arts, University Paris8
2001	BFA, Sungkyunkwan University, Departments of Art Education

## Solo Exhibitions

2021	And another witness, Online Exhibition
2020	Cotton Era, Alternative Space Loop, Seoul Five Seasons, Seoulllo Media Canvas, Seoul
2019	Mrs. Jellyby's magnifying glass, Place Mak Laser, Seoul SoonSoon ManMan, House of Memory, Jeonnam
2016	Watery Madames, Korean Cultural Centre India, New Delhi, India
2014	Our little gender stories, Space Mass, Seoul
2013	Mild depressive episode, Corner Art Space, Seoul My public affairs, Space Mass, Seoul

## Duo Exhibitions

2023	Orange Sleep, ONE AND J. Gallery, Seoul
2022	Sticky Floor, Space Heem, Busan
2013	Good job Good place Good time, Osan Museum of Art, Gyeonggi

##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3	Voices from the walls, Art space hohwa, Seoul
2022	The 1st Arts Festival Seoul: Unfold X 2022 Shaping the future, S-Factory, Seoul Merry Mix: The More, The Better,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Gyeonggi Museum Access: Through the Eco-Corridor,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yeonggi On my way to the Museum, Busan Museum of Art, Busan
2021	Caring Society, Gyeongnam Art Museum, Gyeongnam Balance & Tension, Space Type, Seoul
2020	Song Eun Art Awards, Song Eun Art Space, Seoul Safe House, Maryland Art Place, Baltimore, USA
2019	Focus On X OVNI: Objectif Video Nice, Nice, France Un-wall, Kunstquartier Bethanien, Berlin, Germany NaNA Land: It's My World,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2018	OVNI: Objectif Video Nice, Nice, France The Arrival of New Wome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Soft Power, Cheongju Museum of Art, Cheongju
2017	Video Portrait,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Miss Lee and Mrs. Kim: The Story of Youngsook Lee and Sookja Kim, Incheon Art Platform, Gyeonggi

## Awards &amp; Grants

2023	Grant for international exchange of arts and culture, Arts Council Korea
2022	Grant for Arts & Tech Unfold X,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2021	Grant for the Solo Exhibition (Multidisciplinary ar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2020	The 20th Song Eun ArtAward, Grand Prize, Song 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Seoul
2017	Grant for Community arts project, In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Gyeonggi

## Residencies

2023	Delfina Foundation, London
2022	H Art Lab, Seoul
2021	MMCA Residency Changdong, Seoul
2020	Seoul Art Space Geumcheon, Seoul
2017	Incheon Art Platform, Gyeonggi
2015	Artist Residency TEMI, Daejeon
2014	Hong-ti Art Center, Busan
2013	Space Mass Residence program, Seoul
2010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2009	Goldrausch Künstlerinnenprojekt art IT, Berlin, Germany

## Publications

2023	A Screamer, Seoul
2017	The Dancing Ladies, Seoul
2014	Ile Royale Artist Residency Project, Seoul
2013	Mile depressive episode, Seoul
2010	Global Alien: The Power of Spoken Words', Berlin
2009	Youngjoo Cho 'Splendid Isolation'-Goldrausch 2009, Berlin
2008	Global Alien-GA1,GA2, GA3, Traktor Verlag, Berlin. etc

## Collection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MCA) Art Bank, Seoul Museum of Art, Song 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Suwon Ipark Museum Of Art, Cheongju  
Museum of Art,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 H ART LAB

Creator:

Art  
Critic

고윤정

Yoonjeong Koh

이경미

Mia Kyoungmi Lee

# H아트랩에서의 1년

고윤정

H ART LAB 2기 입주 이르기

나는 H아트랩에서 이르기로서 2022년 3월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레지던시 기간을 보내게 되었다. 우선 국내에서 운영되는 레지던시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기획자와 이르기를 지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이번 기회가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우선 독립기획자, 독립이르기의 공간이 따로 마련되는 경험이 흔치 않은데, 매번 어디에서 일을 할지 거의 매일 고민이 된다. 집에서 일을 할 것인지, 노트북을 들고 어디론가 갈 것인지, 아예 공간을 마련할 것인지, 혹은 공유오피스 등을 등록할 것인지 등등 말이다. 글은 도대체 몇시에 써야 하는지, 아침에 가족들 아침 준비하고 학교와 회사를 보내면 좀 쉬어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벌써 점심이 다가올 때가 많다. 아무튼 H아트랩 덕분에 상당히 오랜만에 독립된 공간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있는 경험이 상당히 낯설었다.

독립큐레이터의 삶은 사실 대부분 운전과 회의이기는 하다. 현장에서 눈으로 전시장 구조를 체크해야 하고, 그 현장을 다른 협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야 하며, 작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든 가야 하는데, 그 장소가 대부분은 서울권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온전히 집중해서 컴퓨터 앞에 있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회의를 하는 순간이 어색하기만 했다. H아트랩에서는 이러한 낯선 순간들을 자주 경험할 수 있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회사 사옥에 있는 레지던시를 신기하게 생각해서 즐거운 일들이 많았다.

어쨌든간에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일은 H아트랩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했던 일일 것이다. 나는 학교를 다니다가 말다가 하던 중이어서 10여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H아트랩의 사무실에서 노트북과 큰 모니터를

연결하여 이런저런 내용들을 담고 글을 다시 읽어보기도 하면서 시간이 흘렀다. 여러 번의 심사와 심사 후의 절차들, 그리고 다시 쓰는 과정, 끝남의 순간 등을 모두 H아트랩의 사무실에서 맞이하였는데, 이 과정은 오랜 기간 동안 마음에 남아 있을 것 같다. 토요일 저녁, 일요일 낮, 평일 저녁 등등 사람들이 일을 잘 안하는 시간에 종종 계획을 세우고 글을 써가는 혼자만의 장기간의 시간을 보낸 경험은 살면서 흔치 않을 경험인 것이다.

이후의 행보는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 H아트랩에서의 진한 경험 이후 바로 이어지는 몇몇 가지 미루어두었던 일들이 몰아치듯 지나가고나니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다시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해야 할 때가 왔다. 1년 여 간의 시간이 잘 밀거름이 되어 다음 순서로 잘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퍼포먼스 아트를 중심으로 한 《프롬나드런》(2019), 세종문화회관의 《행복이 나를 찾는다》(2020), 《하나의 당김, 네 개의 눈》(2021) 등을 기획했다. 2018년 『퍼포먼스 아티스트 레코딩』으로 한국의 퍼포먼스 아트, 공동체 기반의 예술을 실천하는 젊은 작가들에 대한 작은 비평서를 썼다. 끊임없이 생동하는 동시대 미술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예술가, 큐레이터, 비평가, 전시 공간 등 독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술계 일원이 자생하는 생태계에 주목한다.



누가 선택을 강요하는가?: 여성, 엄마, 예술가 사이에서 균형 찾기  
고동연, 고윤정 공저(시공사), 2022

What Forces Women Artists to Give Up: Balancing Being a Woman, Mother, and Artist  
Dongyeon Koh, Yoonjeong Koh (Sigong Art), 2022



# A Year at H ART LAB

**Yoonjeong Koh**  
H ART LAB Critic

I spent approximately 1 year and 2 months as a resident theorist at H ART LAB starting from March 2022. While there are numerous residencies in Korea, it's quite rare to find ones that provide support for curators and theorists. This opportunity felt particularly special for me.

Having a dedicated space for independent curators and theorists is uncommon, and I found myself pondering daily about where I should work. Should I work at home, carry my laptop to someplace else, set up a separate workspace, or register at a shared office... Writing becomes a challenge about when to write. I should take some time to relax after getting my family ready in the morning and sending them off to school and work, but as time goes by, lunchtime often approaches. In any case, thanks to H ART LAB, I had the chance to experience an independent space after a long time. Being alone in a quiet place where nobody else is around felt quite unfamiliar.

The life of an independent curator is, in fact, often filled with driving and meetings. We have to visually inspect the exhibition space structure on-site, vividly convey that environment to other collaborators, and meet artists wherever necessary, which often means going to places outside the Seoul area. As a result, moments of focusing solely on being in front of the computer or having someone come over for a meeting felt awkward. At H ART LAB, I had the opportunity to frequently experience these unfamiliar moments, and many enjoyable events occurred due to external visitors finding the residency at the company headquarters intriguing.

Anyway, personally meaningful was the completion of my doctoral thesis at H ART LAB. I had been in and out of school, and after about a decade, I finally achieved something substantial. Setting up my laptop and connecting it to a large monitor in H ART LAB's office, I spent time writing various content and reviewing my work. The entire process of multiple evaluations, post-evaluation procedures, rewriting, and the moment of completion unfolded within the office, and I believe these experiences will linger in my mind for a long time. Spending extended periods planning and writing during hours when people typically don't work, such as Saturday evenings, Sunday afternoons, and weekday evenings, was a rare experience in life.

The future path is not particularly set in stone. After the profound experience at H ART LAB, some matters that had been postponed began to unfold one after another, and before I knew it, the first half of the year had passed. Now, the time has come to plan for what lies ahead. I believe that the time of over a year has provided a solid foundation, and I am confident that I can transition smoothly to the next phase.

I am currently working as an independent curator. I have curated various projects focusing on performance art, such as "Promenade Run" (2019), "Happiness Finds Me" (2020), and "Balance & Tension" (2021) at the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In 2018, I wrote a small critique titled "Performance Artist Recording" about young artists practicing performance art and community-based art in Korea. I have a keen interest in the constantly evolving contemporary art scene, and I pay attention to the ecosystem where artists, curators, critics, and exhibition spaces operate independently.



《행복이 나를 찾는다》, 세종문화회관, 2020  
사진 - 진달래&박우혁, The Moment, 퍼포먼스, 2020

Happiness finds me, Sejong Center, 2020  
Picture by Jinandpark, The Moment, Performance, 2020



《두 비트 사이의 틈》  
 금천예술공장  
 2022

Between Two beats  
 Seoul Art Space Geumcheon  
 2022



전시전경 Exhibition view

2019.12.12THU - 2020.01.02THU

Promenade Run  
 Promenade Run  
 Promenade Run  
 Promenade Run  
 Promenade Run  
 Promenade Run  
 Promenade Run  
 Promenade Run  
 Promenade Run  
 Promenade Run  
 Promenade Run  
 Promenade Run  
 Promenade Run  
 Promenade Run  
 Promenade R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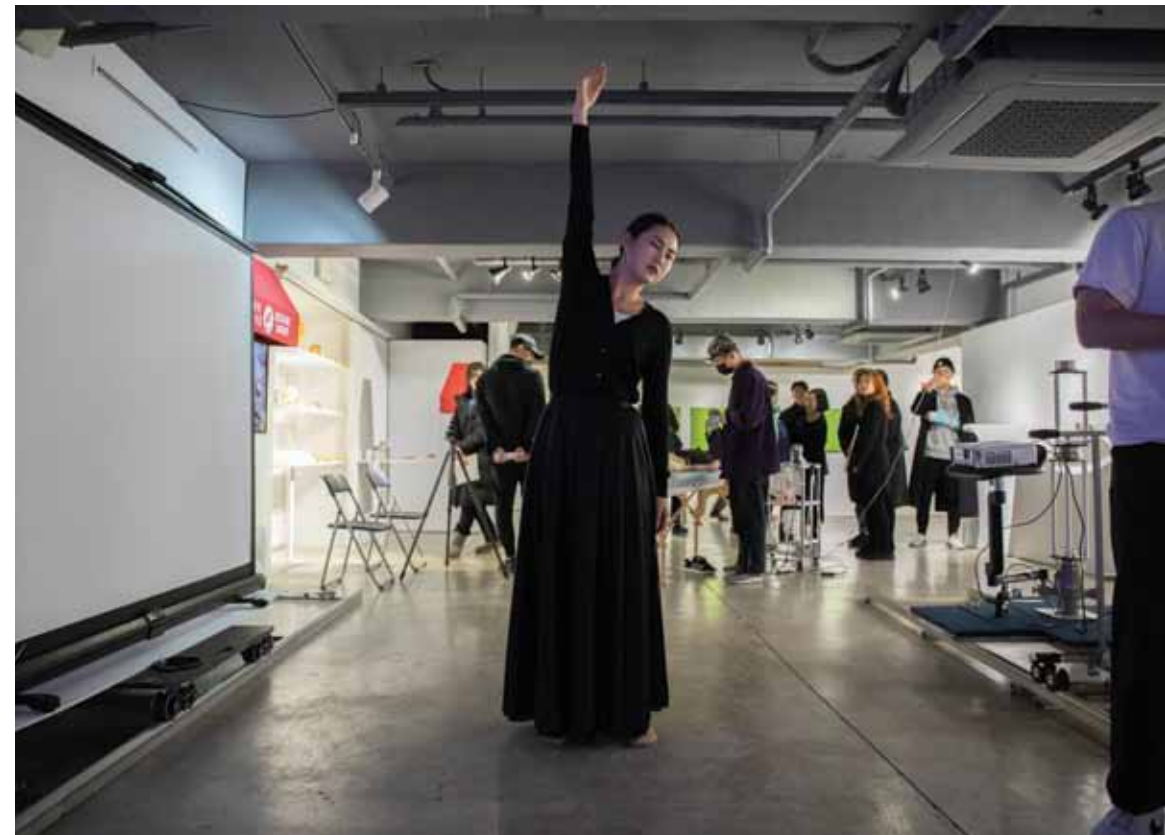
비행기편  
 OPENING. 2019.12.12. THU 5-8pm

서울특별시 |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문화재단 | EMU ARTSPACE

《프롬나드런》  
 복합공간 예무  
 2019

《Promenade Run》  
 Emu Space  
 2019

오프닝 퍼포먼스 <움직이는 팔림프세스트>, 2019-2020  
 Opening Performance, Jaehyun Shin, <Moving palimpsest Series>, 2019-2020



학력

2002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멀티미디어 복수전공)  
 2009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석사 졸업  
 202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협동과정 미술교육 박사 졸업

주요경력

2023 대구사진비엔날레 협력 큐레이터  
 2022-2023.4 H ART Lab 2기 기획자/이론가  
 2019-현재 경기문화재단 비평가 매칭 주관단체 및 참여비평가 활동  
 2021 아트인컬처 3040 여성미술인 선정  
 2018-현재 이미단체 대표  
 2018-2020 토탈뮤지엄프레스 객원편집장  
 2018-2020 토탈미술관 월요살롱 진행  
 2019-2020 비평주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 산실 비평지원) 진행  
 2019 금천예술공장 플로우엔비트 협력큐레이터  
 2014-2017 갤러리 구 협력 큐레이터  
 2015-2017 그레파이트온핑크 출판사 편집장

논문

박사: 퍼포먼스 아트의 통합예술교육 실천 사례  
 석사: 한국의 행동주의적 공공미술  
 학술지: 공동체 미술의 교육적 역할 - 폴 쉐의 <고도를 기다리며> 중심으로

리서치 및 연구, 기획

2022-2023 조영주 작가 비평서(가제) 총괄기획  
 2023 창작의 과정,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사전연구, <포포먼스, 액션, 플젝>  
 2021 아르고 공공미술 리서치 - 프로젝트미래유통 (경동시장, 청량리시장 인근)  
 2021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리서치 - 팬데믹 시대, 퍼포먼스의 기록 관련  
 2020 서울문화재단 190시간

출판 및 출판기획

2022 고동연, 고윤정 공저, 『누가 선택을 강요하는가- 여성, 엄마, 예술가 사이에서 균형찾기』, 시공사 출판  
 2018 『퍼포먼스 아티스트 레코딩』 저자, 출판 및 출판기획  
 2017-2019 토탈미술관 K.Note 발행 issuu.com/k.note  
 2017 『비디오 포트레이트』 국, 영문 출판기획

Education

2023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Art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2009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tury in art theory  
 2002 Ewha Womans University, BA in Sociology

Selected Work

2023 Daegu Photo Biennale Associate Curator  
 2022-2023 H Art Lab 2nd Researcher  
 2018-2020 Total Museum Press Guest Editor  
 2018- Present Director Already Organization

Research & Book

2022-2023 Youngjoo Cho's Anthology book  
 2023 Performance, Action, Project - pre research of 2024 new exhibition  
 2022 What Forces Women Artists to Give Up: Balancing Being a Woman, Mother, and Artist, Sigong Art (Dong Yeon Koh, Yoonjeong Koh)

Selected Curator's work

2023 Black Nuance, Artspace Hohwa  
 2022 Between two beats, Seoul art space Geumcheon  
 2021 Jamsil Scape, Art Jamsil  
 2020 Happiness finds me, Sejong art center  
 2019 Promenade Run, Emu Space

2018 안종현 개인전 『보통』 출판기획, 김시하 『무대위의 쌍둥이』 출판기획

비평, 리뷰

2021-2022 <지도에 없는 i> 릴레이 리뷰 (총 6편)  
 2021 퍼블릭아트 10월호 <설탕과 소금> 전시 리뷰  
 2020 안종현 <당신으로부터 나의 거리> 개인전 서문  
 2020 퍼블릭아트 9월호 웅갤러리 배운성 개인전 리뷰  
 2019-2022 경기문화재단 시각예술창작지원평가위원  
 2019 월간미술 윤종석 개인전 리뷰  
 2019 양주시립미술관 레지던시 777 작가 비평가 매칭 외 다수

전시기획 (총괄기획 및 단체전)

2023 검은 기둥의 감각, H아트랩 2기 전시 Part 1, 아트스페이스 호화  
 2023 물질과 에너지의 배열, 영등포문화재단 지원사업, 예술센터  
 2022 두 비트 사이의 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 우수전시)  
 2020-2021 경기도형 공공예술 프로젝트 <ㄱㄱ게릴라영상쇼 <어쩌다 마주친> 기획 (경기문화재단 주최, 수원컨벤션센터)  
 2021 공간타이프 <하나의 당김, 네 개의 눈> 기획  
 2020 세종문화회관 <행복이 나를 찾는다> 총괄기획  
 2019 <프롬나드런>, 복합문화공간 에무 (서울문화재단 다원예술지원)  
 2019 금천예술공장 <NON 프리임마켓> 기획 외 다수

전시기획(개인전)

2022 진달래 & 박우혁, <의미있는 형식들>, 플랫폼엘  
 2021 강건 개인전 <타아상실>, 아트스페이스 광고  
 2020 노세환 개인전 <My Toes Are Free>, 복합문화공간 에무  
 2020 김은형 개인전 <춤추는 노예들>, Space55  
 2019 조영주 개인전 <젤리비 부인의 돋보기> 플레이스막 외 다수

# 1년간의 H아트랩 입주를 마무리하며

**이경미**

H아트랩 2기 입주이론가

H아트랩은 모든 면에서 매우 새로운 레지던시였다. 건설회사의 사옥 한켠을 예술가들에게 내어준 것이기에 개인 작업실은 사무공간 특유의 쾌적함이 묻어있었다. 개별적으로 제공받은 카드를 통해서만 건물 출입이 가능했기에 월 10일 출석 여부가 자동적으로 확인되었고, 주차장과 화장실, 구내식당과 카페테리아를 비롯한 모든 시설이 매우 준수한 편이었다. 양재에 위치하여 높은 접근성은 가장 큰 장점이었다. 이전에 광주와 성남에서 레지던시 생활을 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떠나 대다수의 레지던시 위치가 꽤 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누구나 혹할 만한 조건이다. 무엇보다도 예술가와 이론가 일곱 명이 근거리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기에 입주 전부터 기대가 컸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건대 생각보다 다른 입주자들과 교류할 시간을 많이 갖지는 못했다. 대신 개인적으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냈다. 입주를 시작한 2022년 상반기부터 여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시각연구 플랫폼 <PUBLIC PUBLIC>을 런칭하고자 구성원들과 생각을 모으고 사업을 이끌어가느라 지난한 zoom회의를 하며 보냈다. 도시연구 출판 프로젝트 <CITY CRACK>의 네번째 볼륨 제작을 위해 외부인을 초대해 회의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일은 많았고 코로나19는 멈출지 몰랐으며 어떤 계기 없는 네트워킹은 쉽지 않았다.

그나마 매칭된 작가의 작업론을 쓰기 위해 전시장에서, 작업실에서 마주한 시간들이 유의미했다. 그리고 입주기간 막바지에 이르러 결과보고 전시를 기획하며 입주 작가 및 이론가와 제대로 마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매체도 주제도 소재도 다른 작업들을 하나로 꿰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는 것은 일종의 챌린지였다. 그들의 작업을 되돌아보고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공통의 속제를 풀어가고자 의기투합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맡은 2부 전시 <하얀 벽의 고백>에 입주작가님 모두가 참여하게 되었다.

바쁘신 일정 안에서도 나의 기획에 귀 기울여주고 그 의미에 공감해 준 박관우, 신선주, 신창용, 이연숙, 조영주 작가님들께 감사함이 크다. 오랜만에 광화문 일대에서 전시를 개최하여 초대한 지인들과의 만남도 즐거웠다. 전시장에서 연계 프로그램 <리서처 토크>를 함께 진행한 조계원, 박소현 선생님께는 연구자로서의 깊이있는 태도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준 호반문화재단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Wrapping up 1 year of residency at H ART LAB

**Mia Kyoungmi Lee**

H ART LAB Critic

H ART LAB was an incredibly unique residency in every aspect. It was a breath of fresh air to have artists occupy a corner of a construction company's headquarters; hence, the individual studios carried a pleasantness typical of office spaces. Access to the building was only possible through individually provided cards, automatically tracking attendance for up to 10 days a month. All facilities, including parking lots, restrooms, an in-house restaurant, and a cafeteria, were well-maintained. Its prime accessibility, situated in Yangjae, was its most significant advantage. Setting aside my personal experiences from past residencies in Gwangju and Seongnam, the fact that many residencies are quite distant in location makes this a condition that anyone would marvel at. Above all, the opportunity for seven artists and theorists to reside within proximity is rare, so there was great anticipation even before moving in.

However, to be honest, I didn't have as much time to interact with other residents as I had initially thought. Instead, I had a very busy personal schedule. Starting from the first half of 2022 when I moved in, I was selected for several competitive projects and engaged in various initiatives. I also worked towards launching the visual research platform, "PUBLIC PUBLIC," by gathering thoughts and leading discussions with the team members through numerous Zoom meetings. Additionally, I organized meetings and interviews with external participants for the creation of the fourth volume of the urban research publishing project, "CITY CRACK." The workload was heavy, and with the

uncertainty of when the COVID-19 pandemic would subside, networking without any proper occasions proved to be quite challenging.

The moments that were effective were the times I spent facing the matched artists, whether in the exhibition hall or the studio, while working on craft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ir artwork. As the residency period reached its final stages, I had the opportunity to plan a report presentation exhibition and engage with the resident artists and theorists more deeply. Planning an exhibition that could bring together works with different mediums, themes, and subjects was a challenge. We reviewed their works, shared stories big and small, and came together to address common tasks with enthusiasm. In this process, all the resident artists participated in the second part of the exhibition, titled "Voices from the Walls." Despite their busy schedules, I am greatly thankful to the participating artists Park Kwan-woo, Shin Sun-joo, Shin Chang-yong, Lee Yeon-suk, and Cho Young-joo, who lent their ears to my planning and empathized with its significance. Hosting the exhibition in the Gwanghwamun area after a long time was also enjoyable, with encounters with invited acquaintances. Collaborating on the affiliated program, "Researcher's Talk," with Professor Jo Gye-won and independent researcher Park So-hyun was a valuable learning experience about their profound attitudes as researchers. Lastly, I extend my gratitude to the Hoban Cultural Foundation for providing such opportunities.

## CITY CRACK #4

### '코로나19가 남기고 간 질문 : 혐오와 이주의 시대, 당신은 자유로운가'

2019년 시작된 도시연구 출판 프로젝트 'CITY CRACK'은 매년 다양한 작가와 연구자들과 협업하여 오늘날의 도시적인 삶과 장소들 안에서 개인에 대해 사유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년 무가지 형태의 간이연구서를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크고 작은 프로젝트로의 확장가능성을 실험해보고자 한다. 네번째 볼륨에서는 국적과 인종, 문화, 정체성이 뒤섞이고 이동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혐오에 관한 다학제적 연구를 심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혐오의 현재를 확인하고, 우리에게 스며든 편향된 사고(Biased thinking)를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 재인식할 필요성을 나누고자 한다.

#### <하얀 벽의 고백> 전시 현장

#### <Voices from the Walls> Exhibition Installation



- 발간일: 2022년 12월
- 기획: 이경미
- 협력/참여: 김선(보건경제학자), 조계원(정치학자), 박소현(독립기획자), 박다애(독립기획자, 프로젝트비아비 협업)
- 디자인: 김민재
- 협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 공공예술연구지원사업'

- Publication date: 2022. 12.
- Host/Curator: Mia Kyoungmi Lee
- Collaborator: Sun Kim(Health Economist), Gyewon Jo(political scientist), Sohyun Park(Independent Researcher), Daae Park(Independent Curator)
- Designer: Minjae Kim
- Cooperation: Arts Council Korea(2022 Public Art Research fund)

## CITY CRACK #4

### Questions Left behind COVID-19 : The Age of Hate and Migration, and Biased Thinking

The urban research publishing project "CITY CRACK," which began in 2019, aims to engage in contemplation about individuals with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urban life and spaces through collaborations with diverse writers and researchers. Each year, it produces various forms of makeshift research papers, continually publishing them. Based on this, it seeks to experiment with the potential for expansion into both significant and minor projects. In its fourth volume, it features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hatred within an era where nationalities, races, cultures, and identities intertwine, and mobility increases. Through this, it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hatred trigger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to encourage a reevaluation of the biased thinking that has permeated both individual and societal levels

#### 연구자 토크 <이주와 혐오의 풍경들>

#### Researcher Talk <Landscapes of Migration and Hate>



- 일시: 2023년 4월 1일
- 장소: 아트스페이스 호화
- 기획: 이경미
- 참여: 박소현(독립기획자), 조계원(정치학자)

- Date: 2022. 4. 1
- Venue: Art Space Hohwa
- Moderator: Mia Kyoungmi Lee
- Speaker: Sohyun Park(Independent Researcher), Gyewon Jo(political scientist)

## 14인의 목소리

서울 서남권 일대 문화예술의 지형 변화에 대응하고 금나래갤러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유관 공간과의 연대에 주목하고, 지역사회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주민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전시이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 종사자 좌담회, 주민 대담, 종사자와 주민 간의 1:1 워크숍으로 구성된 총 3회의 만남과 대화의 장이 선행된다. 만남과 대화를 통해,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현재를 구성하는 키워드를 발견한다. 14인의 목소리가 섞이고 부딪치는 과정에서 창발된 영감은 예술가 강은경, 유장우, 조재영을 통해 총 3점의 예술작품으로 재해석 된다.

### 전시 포스터 Exhibition Poster



## 14 Voices from Here

The exhibition focuses on solidarity with relevant local spaces and aims to activate Geumnarae Gallery in response to the changing cultural and artistic landscape in the southwest region of Seoul. It seeks to capture the stories of residents who are actively shaping the local community and incorporate them. This project consists of three sessions of meetings and conversations, which include cultural and artistic practitioners' roundtable discussions, discussions with residents, and 1:1 workshops between practitioners and residents. Through these interactions, key themes that shape the present state of the region are identified through personal narratives. The process of 14 individuals' voices blending and colliding generates inspiration, which is reinterpreted through three art pieces created by artists Eunkyung Kang, Jangwoo You, Jaiyoung Cho.

### 전시 현장 Exhibition Installation



- 일정: 2022년 12월 19일 - 2023년 1월 14일
- 장소: 금나래갤러리
- 참여작가: 강은경, 유장우, 조재영
- 참여자: 곽민주, 김창범, 박현주, 심색슈라, 오연서, 오현애, 유지애, 윤인향, 윤주희, 이승재, 이지연, 임승언, 주시영, 지상훈
- 주최/주관: (재)금천문화재단
- 총괄 기획: 이경미
- 전시 코디네이터: 조아영
- 도움: 금천예술공장, #메이크구로창작소, 범일윤수종점 Tiger1, 아트센터 예술의 시간, G밸리 산업박물관,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청춘벨딩, 유알아트
- 전시 아이덴티티 디자인: AABB
- 전시 공간 디자인: 홍민희(홍앤장 예술사무소)
- 웹사이트 디자인: 윤충근

- Date: 2022. 12. 19 - 2023. 1.14
- Venue: Geumnarae Gallery
- Artist: Eunkyung Kang, Jangwoo You, Jaiyoung Cho
- Host/Organizer: Geum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 Curator: Mia Kyoungmi Lee
- Coordinator: Ahyoung Cho
- Identity Design: AABB
- Spatial Design: Minhee Hong(HnJ Samuso)
- Web Design: Choonggeun Yoon

# 토론극장: 우리\_들 9막 & 10막

2019년부터 박혜수 작가와 함께 기획하는 참여예술 프로그램으로, 가족, 친구, 학교 및 직장 동료 등 개인이 타인 및 집단과 맺는 다양한 관계들 안에서 겪는 어려움에 주목하고, 집단 내 편가르기, 관계 내 감정쓰레기통, 돌봄노동과 불평등, 팬데믹과 혐오감정 등 사회적 이슈를 다뤄왔다. 2022년 9막과 10막으로 돌아온 <토론극장>에서는 외부와의 소통, 관계맺음이 어려워 '자기만의 방'으로 스스로를 격리하는 당사자들과 그 주변인들을 관객으로 모시고, 낭독극, 쿠킹, 참여연극과 해설 등 다채로운 구성을 통해 개인적 문제이자 사회적 현상인 '외로움', '고립', '은둔'에 관해 사유해 보고자 했다.

프로그램 포스터 Program Poster



# Forum Theater: URI Chapter 9 & 10

Since 2019, in collaboration with artist Hyesoo Park, a participatory art program has been planned. This program focuses on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within various relationships that individuals form with others and groups, such as family, friends, schoolmates, and colleagues. It explores social issues like group conformity, emotional dumping within relationships, caregiving labor and inequality, pandemic-related emotions, and hatred. The Chapters 9 and 10 of the program, titled "Forum Theater," returning in 2022, invite the audience to engage with individuals who isolate themselves from others due to challenges in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building. Through dramatic readings, cooking, participatory theater, commentary, and various engaging components, the program seeks to contemplate personal issues and social phenomena such as "loneliness," "isolation," and "withdrawal."

9막 유인도 표류기 Chapter 9. Manned Island Drift



- 일장: 2022년 10월 29일(토) & 11월 26일(토) 오후 3시
- 장소: 아트센터 예술의 시간
- 기획: 박혜수, 이경미
- 주최/주관: 토론극장: 우리\_들
- 대상: '외로움', '고립', '은둔' 이슈를 가진 당사자 및 지인
- 협력: 김혜원 교수(자문 및 해설), 박시호 외 3인(낭독극 및 상황극)

- Date: 2022.10.29 & 11.26 3pm
- Venue: Art Center Art Moment
- Curator: Hyesoo Park, Mia Kyoungmi Lee
- Host/Organizer: Forum Theater: URI
- Audience: Parties and acquaintances with issues of 'loneliness', 'isolation', and 'hidden'
- Cooperation: Professor Hyewon Kim (advisory and commentary), Siho Park and three others (reading play and role play)



# PUBLIC PUBLIC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연구하고 사후연구와 비평을 포함한 담론생산을 실험하는 연구단체이자 플랫폼이다. 예술작품과 대중(관객) 간의 상호소통에 주목하고, 대중의 개입과 참여에 반응하는 예술 생태계를 매개하고자 2022년 시작되었다. Studio SOOBOX와 협력으로 <메타 조각공원 유치를 위한 소멸지역 피칭데이>를 기획한 바 있으며 토크 프로그램 <Document the Undocumented(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진행하였다. 메일리 플랫폼에서 정기적으로 아티클을 발행하고 있다 (<https://maily.so/publicpublic>).

## <메타 조각공원 유치를 위한 소멸지역 피칭데이> 포스터 <Pitching Day for Depopulation Area building Meta Sculpture Park>



- 일시: 2022년 8월 20일(토) 오후 2시-4시
- 장소: 경기상상캠퍼스 멀티빙커
- 기획: PUBLIC PUBLIC X Studio SOOBOX
- 참여: 김신애 닐티 대표(강원 태백), 박혜수 작가, 유명하 지역활동가(충남 부여), 이지현 뭐하능 대표(충북 괴산), 티슈오피스(메타버스 제작)
- 후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 Date: 2022. 8. 20 2-4pm
- Venue: Gyeonggi Sangsang Campus
- Curator: PUBLIC PUBLIC X Studio SOOBOX
- Sponsor: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t is a research organization and platform that explores the social value of art and experiments with discourse production, including post-research and criticism. It was initiated in 2022 to focus on the interaction between artworks and the public (audience) and to mediate an art ecosystem that responds to public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They collaborated with Studio SOOBOX to plan "Extinct Area Pitching Day for Establishing a Meta Sculpture Park " and conducted the talk program "Document the Undocumented." They regularly publish articles on the platform "mailly."

## <Document the Undocumented(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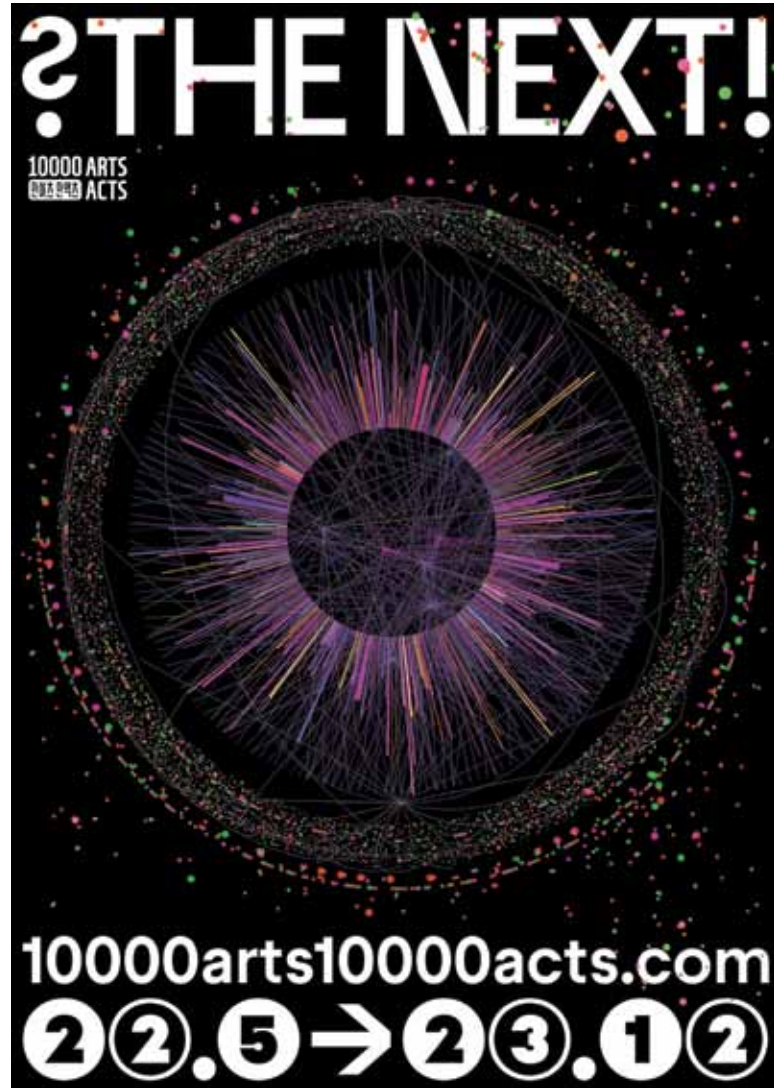


- 일시: 2022년 10월 중 세션 4회 진행
- 장소: ZOOM
- 주최/주관: 프로젝트비아비
- 기획: 퍼블릭퍼블릭 X 프로젝트비아비
- 참여: 구민자, 도미니크 힘멜스바크 드 브라이스(소셜 아티스트), 이수민, 조지은(이끼바위쿠르르)
-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제작지원: 2022년 아르크 공공예술 연구지원사업
- Date: 2022. 10 (4 times)
- Venue: ZOOM
- Host/Organizer: Project ViaB
- Curator: PUBLIC PUBLIC X Project ViaB
- Artist: Minja Gu, Dominique Himmelsbach de vries, Sumin Lee, Jieun Cho(ikkibawikrrr)
- Sponsor: Arts Council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10000 ARTS 10000 ACTS

2017년 시작된 공공예술 프로젝트 <만아츠 만액츠 10000 ARTS 10000 ACTS>((주)유쾌한 주최)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도시의 유휴공간을 무대로 예술의 사회적 참여와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주민과 예술가, 체제와 자율성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매개하면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발굴해내고자 한다. 2022년과 23년에는 <?THE NEXT!>라는 타이틀로 기후위기, 공동체, 인프라 등 도시의 이슈를 예술적 상상력으로 공론화시키고자 한다.

만아츠 만액츠 <?THE NEXT!> 포스터



Engaged as a curator in the public art project "10000 ARTS 10000 ACTS" (Host: Delightful Inc.), which began in 2017, I contemplate the social participation and role of art on the stage of urban vacant spaces. I seek to discover points of contact between residents and artists, as well as between systems and autonomy, while continually mediating and uncovering urban sustainability. In 2022 and 2023, under the title "?THE NEXT!," I aim to use artistic imagination to publicize urban issues such as the climate crisis, community, and infrastructure.

Networking Day for the project Relay Action (2023.5.11, Getto Alive) 10000 ARTS 10000 ACTS



- 일시: 2022년 5월-2023년 12월
- 장소: 금천, 노원 일대 및 온라인
- 주최: (주)유쾌한
- 주관: 만아츠 만액츠
- 총괄기획: 신윤선
- 큐레이팅: 이경미
- 참여작가: IVAAIU CITY, 갯벌랩(김익명 외 3인), 김선동X양은영X최경아, 그린코믹스, 윤충근, 조재영 등
-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포스터 디자인: 일상의 실천
- Date: 2022. 5 - 2023. 12
- Venue: Geumcheon-gu, Nowon-gu and Online
- Host: Delightful Inc.
- Organizer: 10000 ARTS 10000 ACTS
- Director: Serra Yoonsun Shin
- Curator: Mia Kyoungmi Lee
- Artist: IVAAIU CITY, Getbol LAB, Green Comics, Sundong Kim X Eunyoung Yang X Kyungah Choi, Choonggeun Yoon, Jaiyoung Cho
- Sponsor: Arts Council 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Poster Design: Everyday Practice

학력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학과 졸업(문학 석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졸업(문학사)

주요경력

2023 ARKO 인사미술공간 '아트토크 2.0' 멘토  
2022-현재 PUBLIC PUBLIC 공동 디렉터  
2021-2022 금천문화재단 '금천아티스트-랩' 사업 총괄기획  
2020 아트인컬처 선정 미술계 YOUNG POWER 111  
2017-현재 만아츠 만엑츠(10000 ARTS 10000 ACTS) 큐레이터  
2009-2016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금호미술관 학예연구실 큐레이터/어시스턴트 큐레이터

2022 「이주민 혐오에 관한 공공예술의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 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과 암스테르담 두 도시를 중심으로」 (ARKO 공공예술연구 지원사업) 공동연구서 발간  
2022 「코로나19가 남기고 간 질문: 혐오와 이주의 시대, 당신은 자유로운가」 (CITY CRACK #4) 기획 및 발간  
2021 「1인을 위한 테이블, 함께에 관한 물음들」 (CITY CRACK #3) 기획 및 발간  
2021 제로원(ZERO1NE) 크리에이터 비평 참여  
2020 『토론극장: 우리들』 (갓고싶은책) 단행본 공동집필 출간  
2020 금호미술관 '금호창작스튜디오 비평워크숍' 작가비평 참여  
2020 「도시를 만드는/도시로 만들어진 감정의 지형들」 (CITY CRACK #2) 기획 및 발간  
2019 「가상의 음식지형과 도시의 틈새들」 (CITY CRACK #1) 기획 및 발간  
2018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공간을 구현하는 '유라-거울 건축' 연구」 (홍익대학교 일반대학 예술학과 석사 논문)  
2017 『아르코 큐레이터스 리뷰』 (ARKO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공동연구서 집필 참여

전시 및 프로젝트 기획

2023 <하얀 벽의 고백> 기획 (아트스페이스 호화, 호반문화재단 주최)  
2022-2023 <?The Next!> 큐레이팅 (☎유쾌한 주최, 만아츠 만엑츠 주관)  
2022 <14인의 목소리 14 Voices from Here> 기획 (금나래갤러리, 금천문화재단 주최)  
2021 <계란후라이, 선홍빛, 나, 골든베르크> 기획 (금천문화재단 주최)  
2020-2021 <New Play, New Connection, New Normal> 큐레이팅 (☎유쾌한 주최, 만아츠 만엑츠 주관)  
2019-2022 <토론극장: 우리들> 총 10막 공동기획 (박혜수 작가)  
2019 태평 빈집 프로젝트 <사라지지 않는 1> 기획 (성남문화재단 주최)

연구 및 레지던시

2022.03-2023.04 호반문화재단 H아트랩 입주이론가  
2020.05-2021.12 성남문화재단 공공예술창작소 입주기획자  
2019.08-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입주기획자  
2016.04-2017.02 ARKO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 부문 연구자

출판 및 비평

2022 「공공예술 담론 생성을 위한 아카이브 #공공 #참여 #예술 #아카이브」(서울문화재단 예술인연구모임 지원사업) 공동연구서 발간

Education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Art (Master of Arts)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in the Department of Arts (History of Literature)

A Major Career

2023 'Art Talk 2.0' Mentor (ARKO Insa Art Space)  
2022- present PUBLIC PUBLIC Co-director  
2021-2022 'Geumcheon Artist Lab' Curator (Geum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20 YOUNG POWER 111 (Art In Culture)  
2017- present '10000 ARTS 10000 ACTS' Curator (Delightfull Inc.)  
2009-2016 Curator/Assistant Curator of Kumho Museum of Art (Kumho Asiana Cultural Foundation)

Exhibition and Project

2023 <Voices from the Wall> Curating, Art Space Hohwa (Hoban Cultural Foundation)  
2022-2023 10000 ARTS 10000 ACTS <?The Next!> Curating (Delightfull Inc.)  
2022 <14 Voices from Here> Curating, Geumnarae Gallery (Geum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21 <Fried eggs, bright red light, me, Goldenberg> Curating (Geum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20-2021 10000 ARTS 10000 ACTS <New Play, New Connection, New Normal> Curating (Delightfull Inc.)  
2019-2022 <Forum Theater: URI> Co-curating (Artist Hyesoo Park)  
2019 Taepyeong Vacant House Project <1 that doesn't disappeared>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Research and Residency

2022.03-2023.04 H Art Lab (Hoban Cultural Foundation)  
2020.05-2021.12 Seongnam Creative Space Of Public Art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2019.08-12 ACC\_R Residency Program (ACI)  
2016.04-2017.02 ARKO Creative Academy (ARK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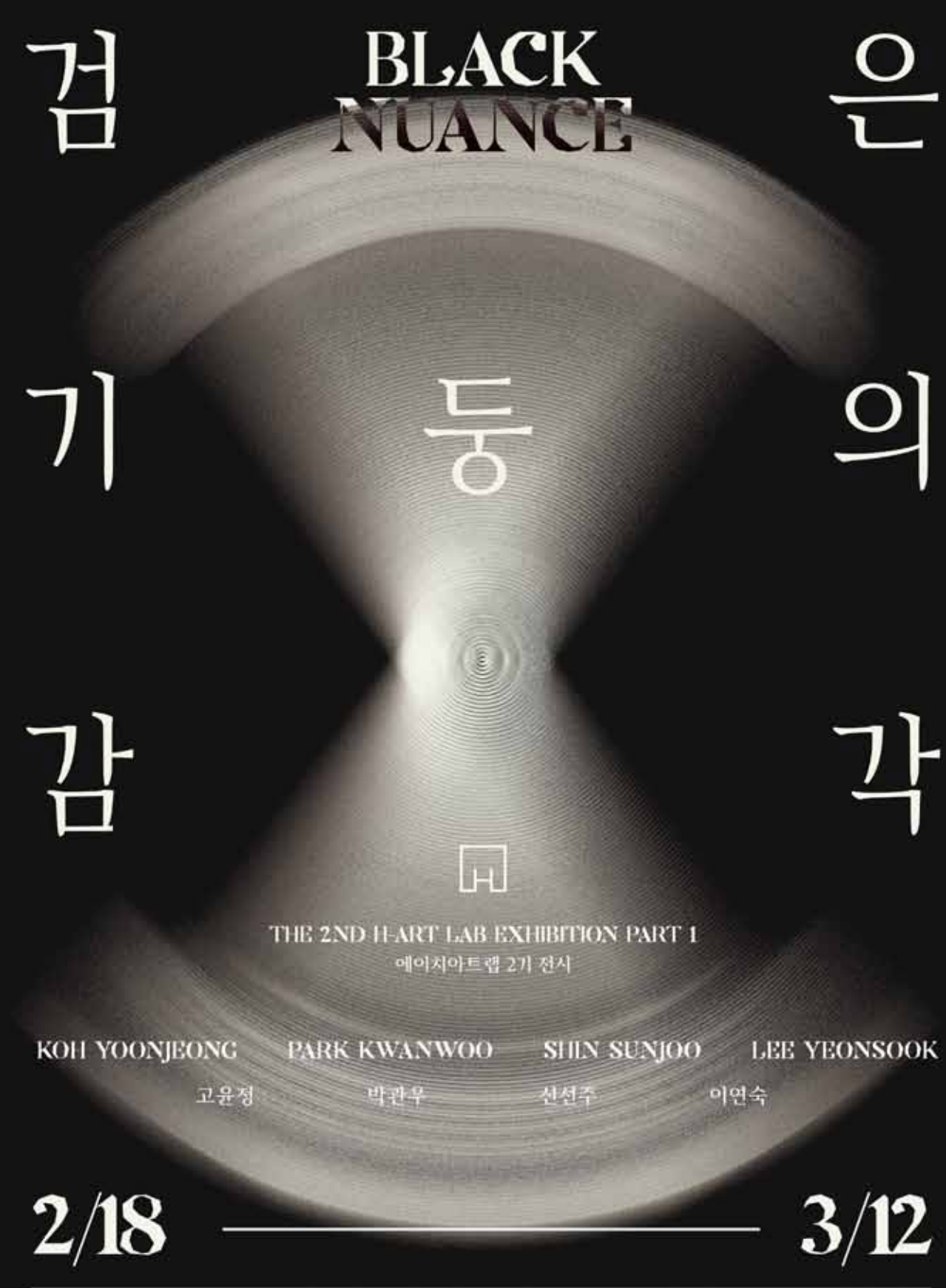
Publishing and Criticism

2022 Archive for Public Art #Public #Participation #Art #Archive, Publishing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22 A Study on the New Role and Possibilities of Public Art on Migrant Hate: Post-COVID-19 Era, Focusing on Two Cities, Seoul and Amsterdam, Publishing (ARKO)  
2022 Questions Left behind COVID-19: The Age of Hate and Migration, Biased Thinking, CITY CRACK #4, Publishing  
2021 Talk about Being by Yourself at Table, CITY CRACK #3, Publishing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2021 ZERO1NE Catalog, Contributing criticism (ZERO1NE)  
2020 Forum Theater: URI, Co-editing  
2020 Kumho Creative Studio Criticism Workshop, Contributing criticism (Kumho Museum of Art)  
2020 Emotional Topographies Creating a City / Created as a City, CITY CRACK #2, Publishing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2019 Virtual Foodscape and City Cracks, CITY CRACK #1, Publishing (ACI)  
2018 A Study on the 'Glass-Mirror Architecture' of Heterotopia (Master's thesis in the Department of Arts, Hongik University)  
2017 Curators' Review, ARKO Creative Academy, Contributing criticism (ARKO)

H  
ART  
LAB  
Exhibition

결과보고전

Exhibition



KOH YOONJEONG    PARK KWANWOO    SHIN SUNJOO    LEE YEONSOOK  
 고윤정    박관우    신선주    이연숙

2/18 ————— 3/12

## H ART LAB 결과보고전 part1.

### (1부) 검은 기동의 감각

- 기획: 고윤정
- 작가: 박관우, 신선주, 이연숙

“아무도 없는 밤, 큰 유리창과 달빛만이 거대한 건축구조물 사이로 비스듬히 보이고 고요하기만 하다. 작은 바스락 소리에도 스산하게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비어 있지만 가로 지르는 큰 기동 뒤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다.”

『검은 기동의 감각』은 공간의 중압감에 짓눌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미스테리를 보이는 전시이다. 공간과 오래된 물건, 반사되는 거울 속 또다른 설정은 곧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목직인 기운을 뿜는다.

항상 사건은 눈앞에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가만가만 수면 위로 떠오른 몇몇 개의 단어들을 퍼즐처럼 맞추어 보면 그날의 진실이 다가오는데, 그것은 대부분 CCTV, 블랙박스, 핸드폰 카메라에 잡힌 어스름한 물체,

인스타그램의 짜투리 사진 등이다. 우리는 인지하지 않아도 너무 많은 사건의 단서들을 길거리에 뿌리고, 과잉된 단서들이 집합을 보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새로운 파놉티콘의 시대에 살고 있고, 나의 정보들은 끊임없이 어딘가에 기록된다. 사각지대의 뜻은 어느 위치에서인가사물이 눈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각도를 뜻하는데, 복잡한 도시에서 사각지대는 시시각각 CCTV의 위치에 따라 바뀌어 간다.

공간과 접합된 무거운 공기는 이제 사람이 개입되어도 수시로 바뀌어 가는 시선의 교차 속에서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낡은 누군가의 옛 물건, 스러질 것 같은 나무와 뜻하지 않은 향기는 아날로그만 향수를 불러일으키지만 현대사회의 신문물과 겹쳐지면서 미스테리한 기운을 더 뿜어낼 뿐이다. 두 개의 기동은 실은 세 개일 수도 있다. 전시에서 보이는 기동은 몇 개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동은 시, 공간을 초월한 상상의 기동일 수도 있다. 수십 년의 차이를 두고 새로운 날들로 인식되는 새로운 작동 시스템에 적용되는 코드로 이루어진 기동일 수도 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관측의 몫이다.



# H ART LAB

## Results Report Exhibition Part 1

### Part 1 : Black Nuance

- Curating : Yoonjeong Koh

- Artists : Kwanwoo Park, Sunjoo Shin,  
Yeonsook Lee

“On a night with no one around, only a large glass window and moonlight are visible slantingly through the vast architectural structure, maintaining a profound silence. Even the faintest rustle gives a sense that someone might be present. Although empty, there’s an intangible presence behind the tall pillar that stands horizontally, watching over me. It’s a cold space where not even the sound of the wind can be heard.”

“Black Nuance” is an exhibition that portrays a sense of mystery, as if under the weight of the space’s oppressive atmosphere, someone’s gaze can be felt. The combination of the space, old objects, and the setting within reflective mirrors exudes a palpable tension that suggests something significant is about to occur.

Events are not always limited to what is immediately visible. Piecing together a few words that gently rise to the surface, like a puzzle, can reveal the truth of that day. These are often obscured objects captured on CCTV, black boxes, cellphone cameras, fragments of Instagram photos, and more. We unknowingly scatter numerous clues of events in the streets, yet fail to notice when these excess clues coalesce into a narrative. Living in the age of new panopticons,

our information is constantly recorded somewhere. The meaning of a blind spot refers to the angle at which objects become invisible to the eye. In a complex city, blind spots change constantly depending on the positions of CCTV cameras.

The dense air intertwined with the space now doesn’t easily dissipate, even when human intervention occurs, amid the intersecting gazes that are ever-changing. Old belongings of someone, decaying wood, and unexpected scents evoke nostalgia solely in an analog context, but when layered with the artifacts of modern society, they emit an even more mysterious aura. The two pillars might in fact be three. No one knows how many pillars are visible in the exhibition. Moreover, the visible pillars could transcend time and space, becoming pillars of imaginative projection. They could also be interpreted as pillars composed of codes applied to a new operational system perceived as new days, separated by decades. Deciphering the reality currently before our eye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aud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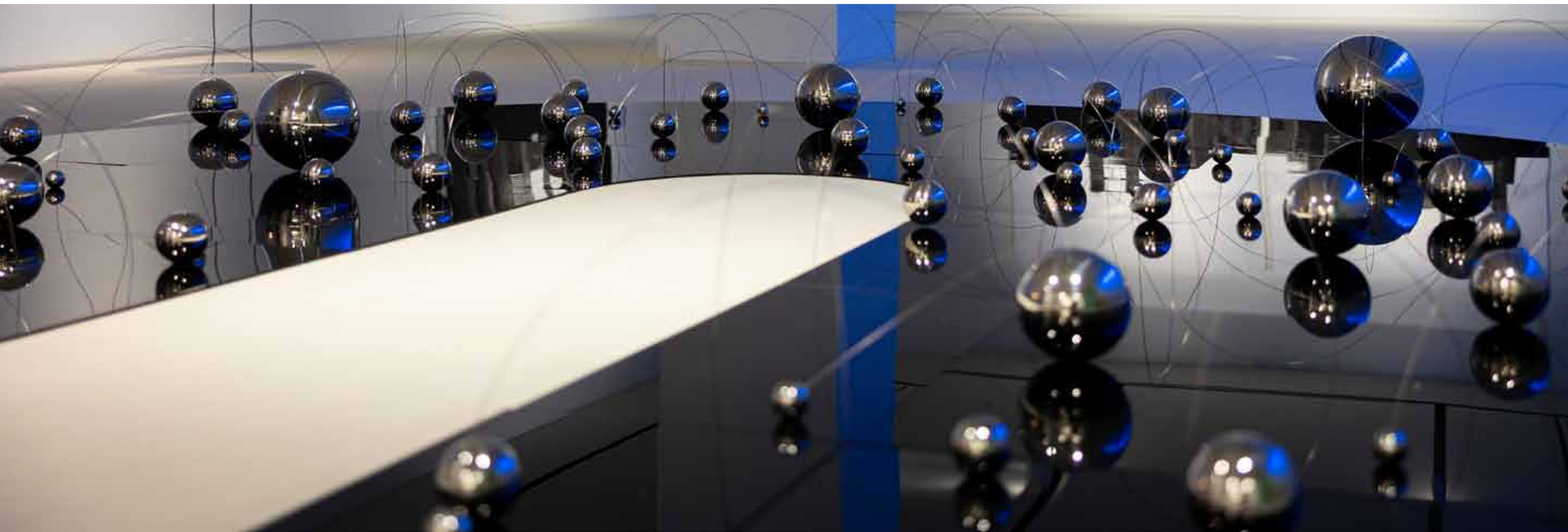


이연숙

Yeonsook Lee

검은 망각의 묘약을 위하여  
아크릴, 스테인레스 스틸  
500×500×500 cm

You came to here to forget  
acrylic, stainless steel  
500×500×500 cm



박관우

Kwanwoo Park



달콤한 꿈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구성된 장면, 반소설<2052년의 이주사건>, 만들어진 향기, 4종류의 인터뷰 영상, 네온사인  
가변크기  
2022~

Sweet Dreams are Made of What?  
Staged scenes, Half novel "The Immigration Incident of 2052,"  
created fragrance, four types of interview videos, neon sign  
variable size  
2022~



신선주

Sunjoo S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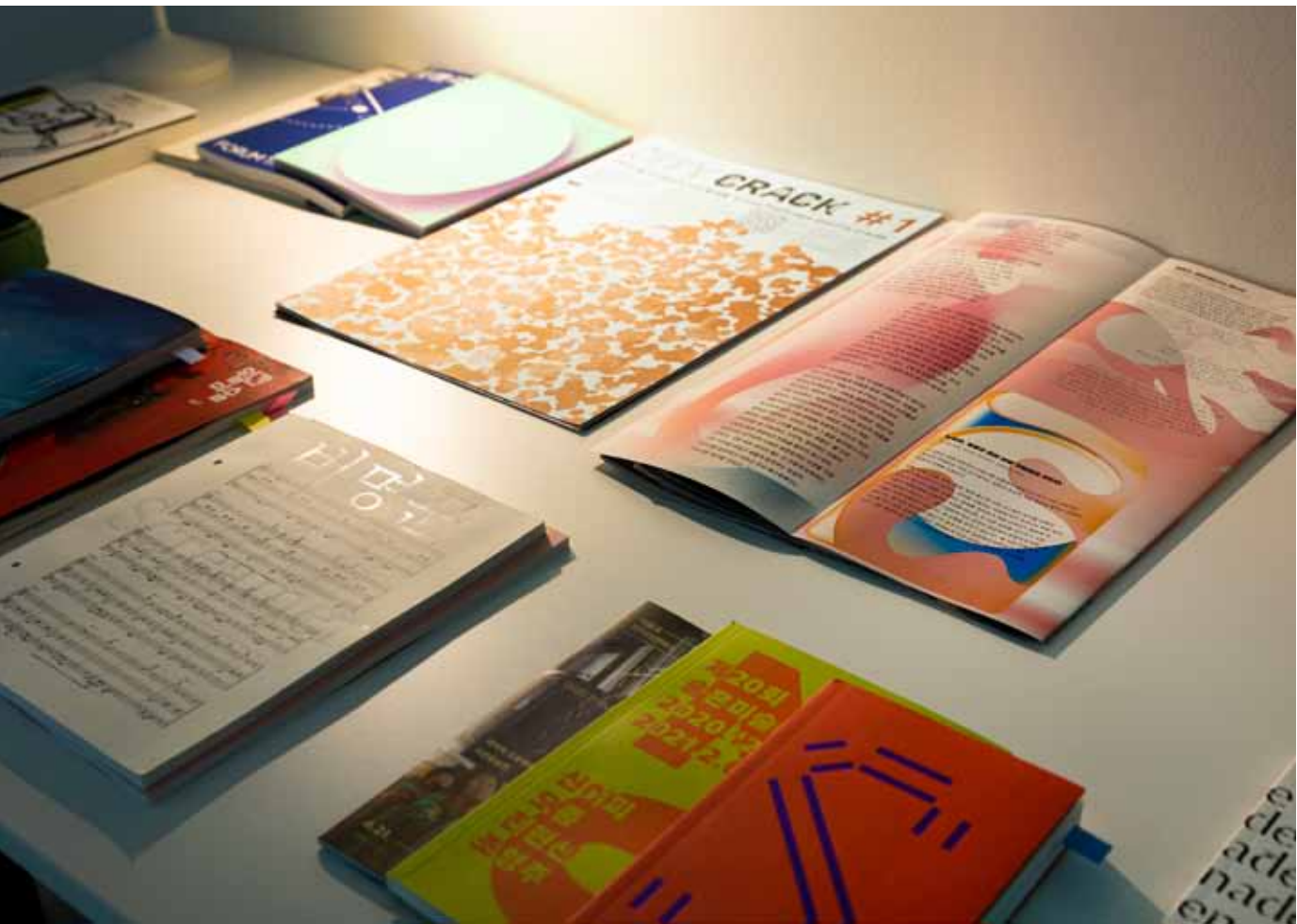


전시 전경  
Exhibition view



Engine Company 33  
scratching, oil pastel, acrylic on canvas  
180×180 cm  
2016~2022

아카이브  
Archive



# 하얀벽의고백

VOICES FROM THE WALLS

# 고백



THE 2ND HART LAB EXHIBITION PART 2  
에이치아트랩 2기 전시

PROJECT VIAB  
LEE MIA KYOUNGMI  
이경미 (프로젝트 비아비)

SHIN CHANGYONG  
신창용

CHO YOUNGJOO  
조영주

PARK KWANWOO SHIN SUNJOO LEE YEONSOOK  
그리고 박관우 신선주 이연숙

3/18 ————— 4/9

## HART LAB 결과보고전 part2.

### (2부) 하얀 벽의 고백

- 기획: 이경미

- 작가: 신창용, 조영주, 박관우, 신선주, 이연숙,  
이경미(프로젝트 비아비)

“벽은 힘이 아니라 두려움의 상징이다. 벽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 확신이 없음을 보여준다.”

- 마사 누스바움 가디언지와의 인터뷰, 2016

“좋은 벽이나 나쁜 벽 같은 것은 없다. 벽은 언제나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에 따라 달리 작용하기 때문이다.”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1975

여기, 벽이 서있다. 수용소의 거대한 담장에서부터 쇼핑몰을 구획하는 단지, 지하철 플랫폼, 일터의 파티션, 화장실 칸, 개인의 방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벽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공간을 분리하고 가치를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기 보전을 위해 벽들을 계속 세운다. 물리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인식 속에서도 말이다. 이 벽들은 나(우리)와 타인(그들)을 구분짓고 자신의 취약성을 벽 너머로 밀어버리는 수단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와의 연결 지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벽을 사이에 두고 밀어낸 그들은 드라마틱한 스토리로 소비되기도 하고 자본주의 산업 체계 안에서 일종의 노동력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나'와는 달라서 참 다행이다! 벽들은 이렇게 두려움을 내려놓고 안심하도록 만든다.

전시 <하얀벽의 고백>에서는 벽 너머의 존재들을 불러낸다. 여기로 소환된 엄마, 이주민, 히어로는 그간 벽 너머에 존재하던, 당신이 세운 벽에 의해 규정되는

인물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고정된 역할과 쓰임의 틈새에서 미끄러지거나 자기식대로 전유한 주체들이다. 육아와 돌봄이라는 보이지 않는 노동의 반복에서 소진되기를 멈추고 자신의 현재를 드러내며 연대하기 위한 리듬을 발견하거나, 시공간 여기서 저기로의 이동과 정착의 과정을 통해 고정된 삶의 양식과 사회적 인식에 대항하기도 한다. 또한 자아실현의 강박에서 벗어나 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며 유유자적한 시간을 즐긴다. 이들은 일상에 찌들고 사회적 정체성에 종종 회의감을 갖는 당신과 일면 닮아있다. 벽을 가운데 두고 당신과 그들 사이에 가로막혀있던 연결선이 미약하게나마 생기는 순간, 대상화했던 시선을 거두고 그들을 바라보며 서로를 쓰다듬을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취약성에 공감하는 몸짓으로서 말이다.

# H ART LAB

## Results Report Exhibition Part 2

### Part 2 : Voices from the Walls

- Curating : Mia Kyoungmi Lee

- Artists : Changyong Shin, Youngjoo Cho,  
Kwanwoo Park, Sunjoo Shin,  
Yeonsook Lee,  
Mia Kyoungmi Lee(Project ViaB)

*"Walls are not a symbol of strength, but of fear. Walls show that we lack the conviction to create a better world alongside others."* - Martha Nussbaum, in an interview with *The Guardian*, 2016

*"There are no good walls or bad walls. Walls always operate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eople who build them."* - Michel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1975

Here, a wall stands. From the massive fences of prisons to the partitions in shopping malls, subway platforms, workplace cubicles, restroom stalls, and individual rooms, we live surrounded by both large and small walls. In a society that functions by separating spaces and (re)allocating values, individuals continue to erect walls for their self-preservation. This applies not only physically

but also within perceptions. These walls become a means of differentiating "me" (us) from "others" (them) and pushing vulnerabilities beyond the walls. What is crucial here is that there must be no points of connection with the "self." Those pushed beyond the walls are sometimes consumed by dramatic stories, and within the capitalist industrial system, they are even reduced to a form of labor force. "How fortunate I am to be different from 'me!'" Walls are created to lay down such fears and to provide a sense of security.

In the exhibition "Voices from the Walls," beings beyond the wall are summoned. The mother, immigrant, and hero brought forth here are not individuals defined by the wall you have built, which existed beyond the wall until now. They are not confined by socially fixed roles and uses, slipping through the crevices or self-defining subjects. They discover rhythms to cease the exhaustion within the repetition of invisible labor like parenting and caregiving, revealing their

present while building solidarity, or resist against fixed patterns of life and social perceptions through the process of movement and settlement across time and space. Moreover, they break free from the compulsion of self-realization, enjoying solitary moments by indulging in a bowl of ramen. These individuals, like you, often find themselves immersed in the mundane and occasionally harboring doubts about their social identities. When the faintest glimmer of a connection appears between you and them, separated by the wall, in that fleeting moment, the gaze that had objectified them can be withdrawn, and you can look at them and each other with a sense of comfort. This is a gesture of empathy towards the vulnerability shared by all of us.





전시 전경  
Exhibition view

(왼쪽부터)

NFT 아트  
단체널 영상, 사운드  
각 30sec  
2023

(From the left)

NFT art  
single channel video, sound  
30sec each.  
2023

Thor, Chewbacca, Rambo and Joker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cm×130cm  
2022

Thor, Chewbacca, Rambo and Joker  
acrylic on canvas  
130cm×130cm  
2022

RNB  
캔버스에 아크릴릭  
162cm×131cm  
2022

RNB  
acrylic on canvas  
162cm×131cm  
2022

Into the Arnold Bocklin's Painting  
캔버스에 아크릴릭  
145×112cm  
2020

Into the Arnold Bocklin's Painting  
acrylic on canvas  
145×112cm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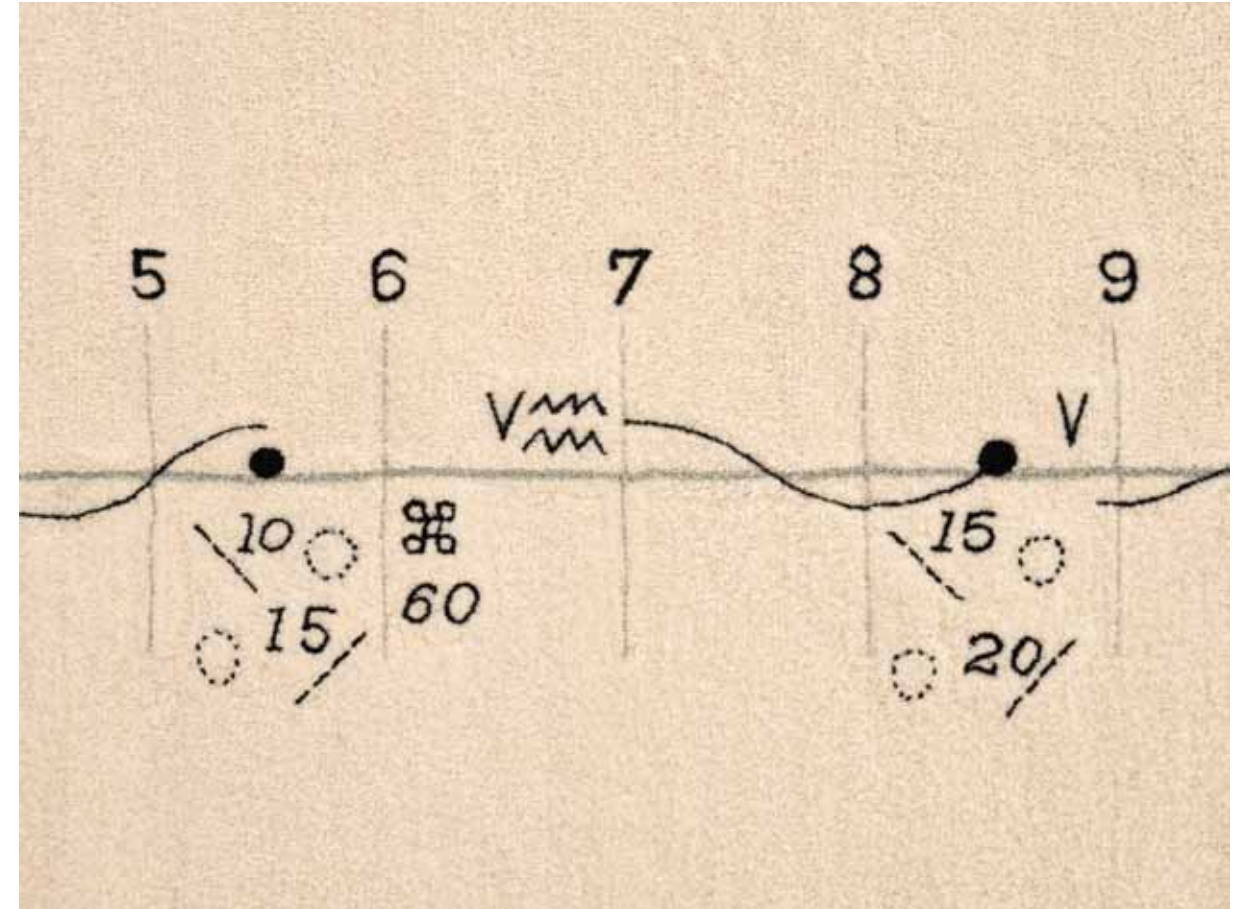
조영주

Youngjoo Cho



콜레레  
단채널 영상,  
4분21초/10분 (안무 & 공동 연출: 임은정)  
2022

Colere  
single channel video,  
4min 21sec/10min (Choreography & Co-direction: Im Eunjoung)  
2022



풀 타임-더블 : 10월 9일  
울사  
110×400cm  
2022  
사진 : 이의록

Full Time-Double: 9 Oct.  
wool  
110×400cm  
2022  
Photography : Euirock Lee

# 이경미 (프로젝트 비아비)

Mia Kyoungmi Lee (Project ViaB)



CITY CRACK#4  
철 프레임에 베를리너 판형, 연구서, 가변설치  
28.5×39.5mm  
2022

CITY CRACK#4  
berliner plate(28.5×39.5mm) research paper on metal frames  
variable installation  
2022

# 신선주

## Sunjoo Shin



하얀 색조의 방식: Grand Central Terminal  
 일포드 캔버스지 위에 오일파스텔, 아크릴릭 물감,  
 잉크젯 프린트(Ultra chrome pigment),  
 81.5cm X 122cm (액자 사이즈: 145.5 X 96.5 X 12.5cm)  
 2023

Manière-blanc : ON, 2023  
 oil pastel, acrylic, inkjet print (ultra chrome pigment)  
 on ilford canvas paper  
 81.5cm X 122cm (Frame size: 145.5 X 96.5 X 12.5cm)  
 2023

# 박관우

## Kwanwoo Park



달콤한 꿈의 한면  
 사각기둥에 바이닐 컷 프린트  
 가변크기  
 2022

One Side of a Sweet Dream  
 vinyl cut print on a rectangular shaped pillar  
 variable size  
 2022





# 이연숙

Yeonsook Lee



하얀 벽  
혼합매체  
38×50cm  
2023

White Wall  
mixed media  
38×50cm  
2023

# 아카이브

Archive



# H ART LAB Program

프로그램

Program

## 신창용 개인전 《덕화》

2022. 5. 2 ~ 5. 8

H ART LAB은 입주자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시 및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H ART LAB이 위치한 호반문화재단의 여러 전시공간에서 입주 작가 및 이론가의 전시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 Changyong Shin 《Nerd Paintng》

2022. 5. 2 ~ 5. 8

H ART LAB provides various opportunities for its residents to showcase their creative activities through exhibitions, projects, and more. Situated within the Hoban Cultural Foundation, H ART LAB supports resident artists and art critics by offering exhibition and program opportunities across the foundation's multiple exhibition spaces.



# 고윤정 『누가 선택을 강요하는가?』

## 북토크 프로그램

2022. 8. 23

H ART LAB 입주자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다양한 전문가 및 대중을 초청하여 창의적 의견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갑니다. 입주 이론가 고윤정이 출판한 『누가 선택을 강요하는가?』 북토크에는 여성이면서 엄마, 그리고 현직 예술가인 11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여성, 워킹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술가의 직업을 통해 논의하며 대중과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누가 선택을 강요하는가?』 북토크

강연: 고동연, 고윤정  
초대: 황수경

누가 선택을 강요하는가?

2022년 8월 23일 (화) 2시  
호반파크 2층 Town Hall (양재대로 2길 18)

H ART LAB

# Yoonjeong Koh 『What Forces Women Artists to Give Up』

## Book Talk Program

2022. 8. 23

H ART LAB invites diverse experts and the general public to the projects conducted by its residents, creating a platform for the creative exchange of ideas. In the book talk for "What Forces Women Artists to Give Up: Balancing Being a Woman, Mother, and Artist" authored by resident art critic Yoonjeong Koh, the stories of eleven women who are not only artists but also mothers are featured. Through their professions as contemporary artists, the book delves into discussions about the socially relevant topic of "women and working moms." This enables a discourse on the subject and facilitates the sharing of perspectives with the audience.



# 박관우 <심-포지엄> 프로그램

2022. 12. 9

국내 대표 미술평론가 3인(권태현, 배혜정, 장진택)과 함께 H ART LAB 입주자 박관우의 작품세계를 중심으로 한 렉처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작가 박관우의 작품에 드러난 몇몇의 사건과 이론들을 작가와 미술평론가, 참여자가 함께 대화를 주고 받는 심포지움 형식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작가, 연구자, 미술계 유명인사 등의 만남의 장을 제공, 분야간 장벽 없이 작품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합니다



[심포지움의 구성]

<믿습니까?! - 믿음과 증언, 구조, 그리고 픽션> 권태현 (독립 큐레이터)

<체험의 시간, 상황의 예술 - 박관우의 예술과 관계맺기> 배혜정 (미술 평론가)

<디지털 미디어 세계의 새로운 정체성과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혹은 미적 인터랙션에 관하여> 장진택 (독립 기획자)

[Symposium Composition]

"Do You Believe?! - Belief, Testimony, Structure, and Fiction" by Kwon Tae-hyun (Independent Curator)

"Time of Experience, Art of Situation - Relating to Park Kwan-woo's Art" by Bae Hye-jeong (Art Critic)

"The New Identities of the Digital Media World and Their Communication, or Aesthetic Interactions" by Jang Jin-taeg (Independent Producer)

# Program by Kwanwoo Park <SYM-POSIUM>

2022. 12. 9

In collaboration with three prominent art critics in South Korea (Kwon Tae-hyun, Bae Hye-jeong and Jang Jin-taeg), a lecture performance was conducted at H ART LAB, focusing on the artistic world of resident artist Park Kwan-woo. The symposium format facilitated dialogues between the artist, art critics, and participants, exploring specific events and theories that are embedded in Park's artworks. This platform provides an opportunity for meetings among artists, researchers, and well-known figures in the art world, sustaining a program that encourages the creative exchange of opinions about artworks across different fields.



# 미니 오픈스튜디오

2022. 3. 24 ~ 3. 25

입주자들이 입주기간동안 스튜디오에서 작업한 결과물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오픈스튜디오는 작업의 결과물 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보여줍니다. 소규모로 진행 된 미니 오픈스튜디오를 통해 작가의 창작과정과 삶을 이해하고 입주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H 아트랩 2기 입주 이혼가 고운정 Mini Open Studio

## H 아트랩 2기 입주 이혼가 고운정 Mini Open Studio

일시: 3월 24일 3시 ~ 8시  
3월 25일 3시 ~ 8시

장소: 서초구 양재대로 2길 22-1b,  
호반파크 1관 H 아트랩

\*방문개방 예술가  
3월 24일 신창용  
3월 25일 이연숙

\*신청: 구글폼

H 아트랩 2기 입주 이혼가 고운정 Mini Open Studio

H 아트랩 2기 입주 이혼가 고운정 Mini Open Studio

H 아트랩 2기 입주 이혼가 고운정 Mini Open Studio

# Mini Open Studio

2022. 3. 24 ~ 3. 25

During their residency, the Open Studio at H ART LAB allows residents to showcase their work to the public. This event not only presents the final artworks but also reveals the creative process behind them. Through small-scale mini-Open Studio events, attendees gain insight into the artist's creative process and life, fostering communication with them.



**발행처** 호반문화재단, H ART LAB  
**이사장** 우현희  
**디렉터** 조서은  
**큐레이터** 박선경, 심지영

**도록 디자인** 흥익그래픽스

**H ART LAB**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길 22-16  
www.h-artlab.co.kr  
T. 02-6177-0086  
E. contact@h-artlab.co.kr

본 도록에 실린 글과 작품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3. H ART LAB All rights reserved.

**Publisher** Hoban Cultural Foundation, H ART LAB  
**Chairman** Hyunhee Woo  
**Director** Seoeun Jo  
**Curator** Sunkyoung Park, Jiyong Shim

**Catalog Design** HONGIK GRAPHICS

**H ART LAB**

22-16, Yangjae-daero 2-gil,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www.h-artlab.co.kr  
T. +82.2.6177.0086  
E. contact@h-artlab.co.kr

All rights reserver.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manner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s.

©2023. H ART LAB All rights reserved.





